복합의 눈으로 재구성한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

#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8

EAI
EAST ASIA INSTITUTE

#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목차

**나가사키에서 한국전쟁을 떠올리다** 4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① 심예나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배경: 1549-1614** 42

_ 데지마 ② 유지현

**상투를 자른 이토, 사무라이가 된 글로버** 84

_글로버 가든 ③ 정헌욱

**17 세기 동인도회사(VOC)와 동양의 만남 도자기 무역의 국제정치학** 127

_아리타 도자기 박물관/궁전 ④ 정다연

**이홍장, 해악연하(海岳煙霞)에 맞서다** 139

_시모노세키 일청강화기념관 ⑤ 한이임

U.S. – China Strategic Competition 2050: 159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system and order

_Kyushu National Museum ⑥ 손승포

신[新]대만 해협 위기 178

2030 년 미중일 해군력 균형전망

_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⑦ 김사준

18 세기 한국의 대일심상 215

애증의 일본

_한일교류박물관 ⑧ 최다인

1 장

# 나가사키에서 한국전쟁을 떠올리다
##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심예나**
서울대학교

## 들어가며

1945년의 나가사키는 2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롭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도 수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많은 기독교 교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들과 항구가 공존하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서구화된 도시였습니다. 북쪽에서 흘러오는 우라카미 강에 의해 몇몇 계곡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계곡 중 하나는 도시 노동력의 90퍼센트를 수용하는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가던 1945년 8월 일본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1945년 8월 7일,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은 원자폭탄 투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원폭 투하에 관한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8월 8일, 일본 천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원폭을 실은 '벅스 카(Bocks Car)'가 이륙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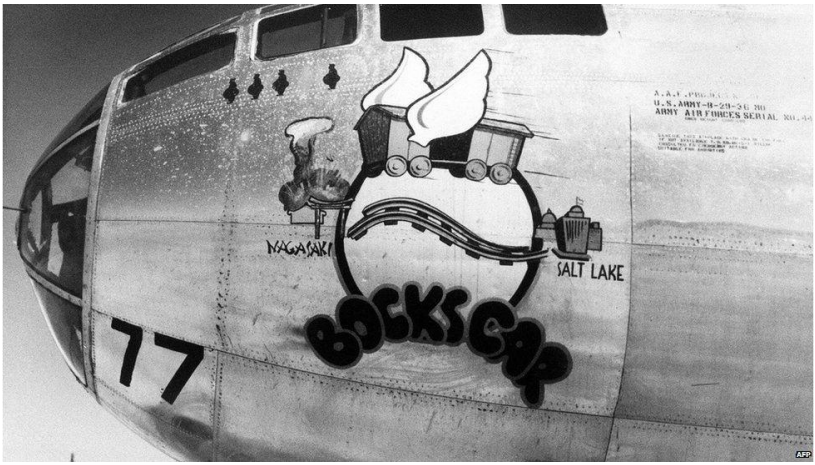



**Figure 1. 벅스 카 (출처**: BBC News, In pictures: Nagasaki bombing, 2015. 08. 09).

다음 날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 미국은 사망자 수를 3만 5000명이라고 발표한 반면, 나가사키의 공무원들은 7만 4800명이라고 발표했다.
>
> (『일본 제국 패망사 : 태평양전쟁 1936~1945』)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원폭투하로 인한 사망자 수는 7만 48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나가사키 인구가 2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후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됐습니다.




**Figure 2. 원폭 투하 이후 폐허가 된 나가사키 (출처:** BBC News, In pictures: Nagasaki bombing, 2015. 08. 09).

1945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사용된 이후, 핵무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은 소련과의 본격적인 냉전 구도 형성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정세는 1949년 소련의 핵개발 성공,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 에 초점을 두었을 때, 나가사키에서 한국전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지 5년이 지난 1950년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핵전략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Harry S. Truman)은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북한과 중국, 소련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한 대학에서 "핵무기는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던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정작 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지시한 셈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전쟁에서는 핵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배경을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즉 핵무기라는 안보 요소와 위협 인식이라는 관념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49년 소련 핵개발에서 1951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들어가기까지,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과 그에 따른 핵전략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1949년 미국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중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뺏겼고, 1945년 이후 중국에 공수되었던 5만 명의 미 해병은 쫓겨났습니다. 소련의 원자폭탄은 미국의 첩보기관이 예견했던 것보다 몇 년 앞서 폭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1949년을 시작으로 하여 증가한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미국의 대내적인 핵 정책 및 대외적인

핵전략 전개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1949년부터 1951년을 대상으로, 미국의 핵 정책 및 핵전략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는 초강대국 미국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고, '위협 인식'을 군사전략에 활용했던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의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연구 검토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과정을 역사 서술적으로 연구한 것, 그리고 둘째, '1945년부터 냉전 시기'로 이어지는 시기를 종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무기의 '기술'을 분석하는 군사전략적 연구입니다.

첫 번째 분류는 '사실 기술'에 집중한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과정에서 핵의 사용 여부를 두고 미국 지도부 내에서의 의견대립 과정에 대한 연구(Glenn D. Paige)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 지도부의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의견대립이 아닌,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및 국무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핵무기 투하 결정권을 가진 것은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었으며, 국방부는 언제까지나 트루먼(Harry S. Truman)의 명령 하에서 핵무기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번째 분류는 '과정'에 집중한 연구입니다. 기존의 미국의 위협 인식이 일본에서 소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J. Swenson-Wright)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위협 인식의 전환 과정을 본격적으로 핵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전쟁에서 '핵'이라는 대상을 두고,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협 인식을 활용하여 핵 위협 전략을 구사했던 양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 '기술'에 집중한 연구입니다. 주로 안보 영역에서 다뤄오는 연구 영역입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기술적 측면보다는 세계 전략의 측면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사용된 맥락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연구방법

본 연구의 핵심적인 시기적 대상은 1949년부터 1951년 휴전협상이 시작한 시점까지입니다. 1949년은 미국의 입장에서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는 시기였으며, 1950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에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대 공산권 위협 인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북진 전략을 자제하고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려던 미국의 태도는 전환되었습니다. 즉 과소평가했던 중공군의 예상외의 선전에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1951년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극에 달했던 위협 인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전쟁에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 및 미국의 핵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1차 자료인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 자료 및 미국 지도부의 대외 연설 자료,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 자료와 2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로서 1949년 4월의 NSC 8/2, 1949년 12월의 NSC 48/2, 1950년 1월의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 연설, 1950년 4월의 NSC 68, 1950년 9월의 NSC 81을 참고하였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핵 사용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료 및 이에 따른 미국 언론의 보도자료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회고록, 한국 측 외교문서, 2차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충했습니다.

이어질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을 소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949년의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이 향후 대외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 대소 견제를 더욱 강하게 반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공산권위협인식은 증가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미국은 공산권, 특히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내적으로 자국의 핵 기술 개발 및 핵 열무기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중심적인 핵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국지화하는 대외전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을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은 미국이 공산권의 세력의 힘을 비소련국가에서 체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공산권위협인식이 극에 달했으며, 미국은 공산권과의 전면적인 대립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 핵 사용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외중심적인 핵전략은 한반도 문제를 세계화하는 대외 전략과 맞물려 나타나게 됩니다.

4장에서는 휴전협상이 시작하게 된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미국과 공산권이 모두 한국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됨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국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와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의 회담은, 미국의 핵전략이 결국 '위협'에 그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해주는 사건이며, 미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미국과 공산권이 군사적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여 상호 위협 인식을 누그러뜨리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발발 이전

###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 소련의 핵실험 성공

1949년의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이 향후 대외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 대소 견제를 더욱 강하게 반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공산권위협인식은 증가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미국은 공산권, 특히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 미소 간의 대립은 점점 심해졌고 국제정세는 미국의 불안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1949년 미국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뺏겼고, 1945년 이후 중국에 공수되었던 5만 명의 미 해병은 쫓겨났습니다. 소련의 원자폭탄은 미국의 첩보기관이 예견했던 것보다 몇 년 앞서 폭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49년 소련의 핵개발 성공으로 인해 미국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핵무기의 공격대상' 및 '핵무기의 능력 우위'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핵무기의 공격 대상의 경우, 미국의 위협 인식이 일본에서 공산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면 핵무기의 능력 우위의 경우, 소련의 핵 개발로 미국의 핵 우위가 깨졌습니다.

1950년 봄 트루먼(Harry S. Truman)은 수소폭탄의 개발을 승인하고, 소련의 원폭 소유 . 수폭 개발 및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 대소 정책 및 대외전략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안보회의 결정(NSC 68)이 제출되었습니다. NSC 68의 핵심은 자유주의 및 공산주의의 대립이라는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미소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대립이 존재하고, 소련과의 교섭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을 주장하며, 국방예산의 비약적인 증대를 요구하였습니다. NSC 68 문서에 깔린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 인식은 자유주의 이념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미소 간의 힘의 양극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패배가 전 세계에서의 각 진영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NSC 68의 발표는 공산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적대적으로 변화한 시점을 나타내는 분수령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NSC 68는 발표 이후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지침으로 작용하며, 향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의 냉전 전략 교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위협 인식은 이러한 NSC 68 문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0. 04. 14] NSC 68 _ VIII. Atomic Armaments
>
> A. 미국 및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군사적 평가
>
> 1. 미국은 현재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와 인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원자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
> 2. 소련의 원자력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핵 기지와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격을 수행하는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소련이 충분한 수의 원자 폭탄과 충분한 운반 능력을 갖게 되어 현재의 불충분한 대공 방어를 가진 영국이 미국의 상당 부분을 공격하는 전진 기지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소련이 기습 공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반대가 없다면 소련은 향후 4년 이내에 미국의 핵심 중심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타격은 경제적 잠재력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크게 감소시킬 만큼 미국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

(FRUS(1950), NSC 68. VIII. Atomic Armaments
A. 미국 및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군사적 평가)

NSC 68의 'A. 미국 및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군사적 평가' 라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해 견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항은 미국의 원자력 능력이 소련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소련에 대한 위협 인식을 형성하고 있지만,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일종의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항은 소련의 원자력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 받을 것이며, 소련에 대한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년 이내에

소련이 미국의 핵심 중심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2항부터 핵 능력에서 대소 견제 인식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현재로서는 우리의 원자적 보복 능력이 크렘린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자유민에 대한 고의적인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저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원자력 능력이 있다고 계산하여 우리의 원자적 우월성을 무효화하고 결정적으로 유리한 군사적 상황을 조성한다면 크렘린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공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 두 개의 큰 원자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전쟁 선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FRUS(1950), NSC 68. VIII. Atomic Armaments
> A. 미국 및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군사적 평가)

NSC 68의 4항에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무기가 병존한다는 것은 전쟁 억지가 아니라 전쟁 선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핵 무기 개발이 핵무기의 양극체제(bipolar) 실현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선동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열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자유세계 전체에 대한 소련의 압박이 크게 증가하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7.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열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은 당분간 소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FRUS(1950), NSC 68. VIII. Atomic Armaments
A. 미국 및 소련의 원자력 능력에 대한 군사적 평가)

NSC 68의 6항과 7항에서는 열핵무기의 개발에 있어 미소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공하는 지에 따라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항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열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 및 자유세계에 대한 소련의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대소 위협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950. 04. 14] NSC 68 _ VIII. Atomic Armaments

B. 원자 무기의 비축 및 사용

2. IV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군사력 사용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강력하며 압도적 다수의 우리 국민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는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양측이 사용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소련의 원자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할

때, 소련의 사전 사용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와 동맹국의 원자력 군사 능력은 완전히 개발되어야 하고 소련의 정치적 약점은 완전히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소련이 조만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압도적인 원자력 우위를 갖고 공중 지휘권을 확보해야만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소련이 핵무기 사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FRUS(1950), NSC 68. VIII. Atomic Armaments
B. 원자 무기의 비축 및 사용)

NSC 68의 B. 원자 무기의 비축 및 사용 파트에서는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대소 위협 인식이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소련과의 전면전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항의 전반부에서 미국의 군사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군사력 사용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강력하며 국민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2항에서는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소련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압도적인 원자력 우위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침략자의 사전 사용에 대한 보복을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한 선언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원자 공격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FRUS(1950), NSC 68. VIII. Atomic Armaments
B. 원자 무기의 비축 및 사용)

한편 NSC 68의 B조의 3항을 통해 소련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보복 차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위험성을 인지하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한 상황을 소련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것입니다. 즉 대소위협인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원자력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소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49년 9월 24일, 뉴욕타임즈는

"트루먼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소련에서 원자폭탄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정보를 미국인들과 공유하는 데 좋은 판단력을 보였다."

- New York Times. (1949). "RUSSIA AND THE BOMB". 9월 24일

고 보도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소련의 핵실험을 국가기밀이 아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이 소련의 핵개발에 대응할만한 핵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의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은 예상보다 빠른 핵개발 성공에 대해, 미국의 핵 패권이 깨짐에 따라 미국의 대 소련 위협 인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제일의 핵전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핵전력의 상대적 우위에서 일종의 자신감을 보였고, 이는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극에 치닫는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의 대내적인 핵 정책 및 한반도 문제 국지화

이 시기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은 소련을 견제하는 정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 대립을 기피하였고, 미국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소련에게 심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전략을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내적으로 자국의 핵 기술 개발 및 핵 열무기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중심적인 핵 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국지화하는 대외전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949년 주한미군 철수 이후 나타난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의 대한정책은 군부가 주장한 군사적 불개입 정책과 국무성이

주장한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는 국제연합의 권위 아래 수립된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여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과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의회의 반대와 군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한 경제, 군사원조를 집요하게 추구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집요하게 추구한 트루먼(Harry S. Truman)과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의 태도는,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조선경비대의 증강 및 지원에 관한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군을 철수시키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과정은 NSC 8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수정한 NSC 8/2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949년 12월 30일이 발표된 NSC 8/2가 가진 내용의 핵심은 최소한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최대한으로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NSC 8/2는 미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방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원조는 국내적인 치안 유지의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50년 1월 20일 진행된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의 연설은 2주일쯤 전에 채택된 안보회의 결정(NSC 48/2)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던 것입니다.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은 만일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면 먼저 의지해야 할 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을 통한 대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애치슨 라인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원조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원조를 국내적 치안유지 목적에 한정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문제를 국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공산권과의 위협 인식이 증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면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한 한반도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쟁 발발

###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 : 중공군 개입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나타난 미국 정책결정권자의 행동은 과거, 특히 1948~49년의 주한 미군 철수과정에서 보였던 행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당시 일본 주재 델레스(John Foster Dulles) 대사는 미 국무성 본부에 다음과 같은

전송문을 보냈습니다.

> "한국이 자기 힘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미국 군사력이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이 도발하지도 않은 무력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게 될 재앙적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
>
> -Harry S. Truman, *Memoirs* II: Years of Trial and Hope, p. 336.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대되어 갔던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은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전략을 두고 대립하였던 국무성과 국방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7일 이내에 빠른 의견 일치를 보이고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견한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공군 개입 이전인 1950년 9월에 발표된 NSC 81은 중소군사개입에 주의하면서 이북 작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실시 및 작전의 성공은 전쟁의 주도권이 자유주의 세력으로 기울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은 미국이 공산권의 세력의 힘을 비소련국가에서 체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공산권위협인식이 극에 달했으며, 미국은 공산권과의 전면적인 대립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였습니다.

### 미국의 대외적인 핵전략 및 한반도 문제 세계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은 공산세력과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세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세계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 핵 사용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전의 미국의 전략은 북진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9월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북진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중공군 개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전을 우려하고 공산권과의 전면 대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군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국내 체제가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공산권으로 기울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공군 개입 이후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은 극대화 되었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대 중공 비난성명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문서에서 트루먼(Harry S. Truman)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침략을 중단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위해 국제연합의 헌장 내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미국은 자국의 방어를 강화하고 동맹국이 다른 곳에서의 공격성의 가능성에 맞서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한국 위기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트루먼(Harry S. Truman)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루먼(Harry S. Truman)의 언사를 분석해 보면, 미국은 실제 핵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인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언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igure 3. 성명발표하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출처: Retronewser, President Truman threatens to use atomic bomb to win Korean War 70 years ago this hour, 2020.11.30.)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명 및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1950년 미국외교문서 FRUS(Volume 7) 문서 909'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트루먼: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데일리 뉴스〉 잭 도터(Jack Daughter) 기자: 원자폭탄도 포함되나요?"

"트루먼: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가 포함됩니다."

"〈시카고 데일리 뉴스〉 폴 리치(Paul Rich) 기자: 대통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라고 하셨는데요.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트루먼: 그 사용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무기이며, 이 군사적 침략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FRUS(1950), VOLUME 7. Document 909)

인터뷰에서 트루먼(Harry S. Truman)은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핵무기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은 핵무기가 있는 한, 검토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핵무기 사용 계획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루먼(Harry S. Truman)의 원자폭탄 언급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으로 연결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뷰 후반부에 트루먼(Harry S. Truman)은 핵무기가 끔찍한 무기이며,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지만,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이러한 언사는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로 해석되는 데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지 표명이라는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여, 트루먼(Harry S. Truman)은 백악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 해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우리 군대가 전투 중에 있을 때마다 모든 군사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한 이후로 이 주제에

>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 무기의 사용에 대한 고려는 항상 그 무기를 소유하는 것 자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원자폭탄의 사용은 법으로 대통령만이 허가할 수 있으며, 그런 허가는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고 나서야, 야전의 지휘관이 무기의 전술적 전달을 담당하게 됩니다. (…) 요컨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 (FRUS(1950), VOLUME 7. Document 909)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트루먼(Harry S. Truman)은 원자폭탄의 사용은 법으로 대통령만이 허가할 수 있으며, 그런 허가는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치적 차원의 고려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트루먼(Harry S. Truman)은 대통령의 원자폭탄의 사용 허가 권한이 부여되고 나서야, 야전의 지휘관이 무기의 전술적 전달을 담당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전의 지휘관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북한 및 만주 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입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은 핵무기 사용 강경론자였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이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며,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은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해임 행위를 통해 미국이 실제 핵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군부의 대표인물인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 총 사령관은 1950년 12월 9일, 만주 및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을 위한 권한위임을 요청했습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원자폭탄의 사용이 유엔군의 공격을 위한 적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유엔군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에 국한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950년 12월 24일 만주 및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34개의 원자탄 사용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핵무기 사용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1951년 4월 트루먼(Harry S. Truman)은 맥아더를 해임했습니다. 트루먼(Harry S. Truman)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를 핵전략을 담당할 믿을만한 인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루먼(Harry S. Truman)의 '국방에 대한 추가 지출을 요청하는 의회에 보내는 특별 메시지'를 보면, 미국이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중공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실제로 핵을 사용하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핵 개발을 위한 의지와 집념이 더욱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위원회에 1,050,000,0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제안한다. 이 기금으로 위원회는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 새로운 시설은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그러한 물질을 원자 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더 큰 용량을 제공할 것이다. (…)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유엔군에 대한 현재의 공격은 이전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마찬가지로 벌거벗고 고의적이며 도발적이지 않은 새로운 침략 행위이다. (…)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충분히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수년 동안 자국 내에서 전쟁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와 공장이 황폐해지고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인도된 무모한 침략의 길로 중국 인민들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국방에 대한 추가 지출을 요청하는 의회에 보내는 특별 메시지. 1950년 12월 1일. Public paper)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원자력 위원회에 1,050,000,0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제안하면서, 이 기금을 통해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 원자력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협 인식의 대상이 소련을 넘어서 중국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문서에서 트루먼(Harry S. Truman)은 중국에 대해 고의적인 침략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산주의자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중국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전으로 가는 과정 : 영국-미국 회담

1951년 7월 10일 미소 양측 대표들이 휴전회담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 휴전협상이 시작하게 되면서, 미국과 공산권은 모두 한국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영국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와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의 회담은, 미국의 핵전략이 결국 '위협'에 그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해주는 사건이며, 미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미국과 공산권이 군사적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여 상호 위협 인식을 누그러뜨리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국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와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의 회담에서 영국은 서방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면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대 효용의 측면에서 한국전에서의 원자폭탄의 사용은 효용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원자폭탄의 사용은 국제연합과의 공동 보조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도의적인 책임 문제 등을 떠맡고 미국이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지배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한국전에서의 원자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입장은, 미국과 우방 국가들의 확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트루먼(Harry S. Truman)의 제5차 회의의사록에 따르면,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원자폭탄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의 공동소유이며 대단히 긴급한 사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두 나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용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
>
> (U.S. Minutes, Truman–Attlee Conversations, Fifth Meeting, The White House, Washington, Dec 7, 1950)

이는 미국의 핵전략이 결국 '위협' 에 그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해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핵전략을 '위협' 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실제로 핵을 한국전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전쟁을 군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비용 측면에서 한국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미국과 서방 세력 군대의 인력과 군수물자의 희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과 측면에서 한국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1945년에 이어 핵무기를 투하한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산권 세력과의 핵무기 경쟁이 더욱 악화되어 상호 자멸하는 파괴로 이를 것을 우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원자폭탄의 투하를 강경하게 주장한 점에서도, 한국전쟁은 군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었다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나가며

본 보고서는 1949년부터 1951년을 대상으로, 미국의 핵 정책 및 핵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핵무기 실험 성공으로 인해 대소위협인식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본질적 이익과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를 일종의 중간 지대로 설정하여,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NSC 48/2 및 애치슨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는 NSC 68 문서가 미국의 대소 전략의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하는데, 본 보고서는 미국의 대소 전략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재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NSC 68의 문서가 아닌, 한국전쟁의 발발이

미국의 한반도 가치 인식을 전환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에서도 중공군 개입이 일어난 시점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시기였으며, 동 시이게 미국의 대 공산권 위협 인식은 기존의 소련에 대한 위협 인식에 더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쌓여진 이중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과소평가하였던 중공군의 공격에 혼비백산하는 유엔군의 모습은 미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라는 전략 카드를 꺼내 들고, 위협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의 공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의 핵전략이 '위협' 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공산권에서도 인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영국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 수상과의 회담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위협 전략의 신뢰성이 공산권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고, '위협 인식' 을 군사전략에 활용했던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국가들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의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현재 북한의 핵 위협 전략을 해석하는 데에도 일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1950년의 미국과 현재의 북한의 상대적 권력 위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위협' 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의 대외 성명을 해석하고, 핵실험 등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핵 위협 전략은 위협하는 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는, 중국 및 소련이라는 공산권의 인식을 사건과 행동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핵전략에 따라 공산권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1차 자료>**

외교문서, 분류번호: 729.5『한국전쟁, 1950.6.25』롤번호: G-0002, 프레임번호: 0001-0081

국사편찬위원회, 1996,『대한민국사자료집 29: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2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2006,『해외사료총서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Acheson to Embassy in Korea, 13 April 1950, FRUS, 1950, VII, pp. 34-35.

Acheson, "Crises in Asia - An Examination of U.S. Policy," DSB, January 23, 1950, pp. 111-118.

Harry S. Truman, Memoirs II: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Y. : Doubleday, 1956), p. 336.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he Presi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NSC 8/2, March 22, 194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9v07p2/d209> (검색일: 2021년 11월 30일)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he President,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sia," NSC 48/2, December 30, 194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9v07p2/d387>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United State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NSC 81, September 1, 1950, FRUS, VII, pp. 685-690.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486>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New York Time. (1949) "RUSSIA AND THE BOMB" , 9월 24일. <https://www.nytimes.com/1949/09/24/archives/russia-and-the-bomb.html> (검색일: 2021년 12월 3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0, National Security Affairs; Foreign Economic Policy, Vol I, Document 85. April 14, 1950. NSC-68, 1950.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1/d85>
(검색일: 2021년 11월 25일)

FRUS, 1950, KOREA, VOLUME VII - Document 909,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909>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Truman Library National Archives.“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Requesting Additional Appropriations for Defense,”
<https://www.trumanlibrary.gov/library/public-papers/296/special-message-congress-requesting-additional-appropriations-defense>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FRUS, "United States Minutes, Truman–Attlee Conversations, Fifth Meeting, The White House, Washington, December 7, 1950, 3:45–5:10 p. m.".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3/d732>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FRUS, The Chinese Revolution of 1949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45-1952/chinese-rev>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Statement by the President, Truman on Korea ," June 27,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45-195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2>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July 05, 195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ed.,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Lake Success, NY: United Nations,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725>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George C. Marshall, 'A Program for a More Effective United Nations: Address by the Chief of the U.S. Delegation to the General Assembly'," October 17, 194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VII, Publication 2929 (September 28, 1947): 618-622.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220067>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Statement by President Truman in Response to First Soviet Nuclear Test," September 23, 1949,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I, No. 533, October 3, 1949.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4436> (검색일: 2021년 11월 2일)

<2차 자료>

* 단행본

Hayes Peter 지음; 고대승, 고경은 옮김,『핵 딜레마 :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서울 : 한울, 1993.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현대 편』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9.

존 톨런드 지음 ; 박병화, 이두영 옮김.『일본 제국 패망사 : 태평양전쟁 1936~1945』파주 : 글항아리 : 문학동네, 2019.

하세가와 쓰요시 지음; 한승동 옮김.『종전의 설계자들 :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서울 : 메디치, 2019.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1950. 6. 24-30, FREE PRESS. 1968.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Free Press. 2000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ed. New York: Oxford UP, 2005.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논문

이상호. 2008. 한국전쟁기 맥아더사령부의 핵 투하계획. 군사(67), pp. 133-166.

Bernstein, Barton J. 1995. "The Atomic Bombings Reconsidered." Foreign Affairs 74(1). pp. 135-152.

Dingman, Roger. 1999.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3). pp. 50-91.

Malcolm MacMillan Craig. 2009.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Non-use of the Atomic Bomb During the Korean War, June 1950 to January 1953, Master of Arts a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pp. 3-149.

John Spanier,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p. 20.

J. Swenson-Wright, Unequal Allies?: United States Security and Alliance Policy toward Japan, 1945–1960,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ch. 1. 2.

Jervis, Robert. 1980.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4. pp. 563-92.

Walker, J. Samuel. 2005. "Recent Literature on Truman's Atomic Bomb Decision: A Search for Middle Ground." Diplomatic History 29(2). pp. 311-334.

* 사진

BBC News, In pictures: Nagasaki bombing, 2015. 08. 09.

Retronewser, President Truman threatens to use atomic bomb to win Korean War 70 years ago this hour, 2020.11.30.

2 장

#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배경: 1549-1614
## 데지마

**유지현**
연세대학교

## 들어가며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16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 초반까지, 정확하게는 1549 년부터 2022 년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470 년이 넘는 긴 세월에 달한다. 그러나 470 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도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인구 수는 전체 인구수의 1%로 2 백만이 채 되지 않는다. 500 년에 다다르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소외된 신앙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향한 일본대중의 무관심 뒤에는 260 년에 달하는 기독교 탄압의 역사가 존재한다. 17 세기 도쿠가와 정권 아래 기독교 신앙은 1614 년부터 1873 년까지 대략 260 년의 긴 세월동안 일본 전역에서 철저히 금지되며 일본땅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1549 년 포르투갈 선교단을 통해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된 기독교 신앙은 1614 년 당시 일본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기독교 금지령을 발표하면서부터 일본 전역에서 철저히 금지된다. 기존에 일본에서 살며 선교 활동을 펼쳐나갔던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강제 추방령이 내려졌고, 추방령에 따르지 않고 숨어살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회당과 기독교 학교 등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중앙권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일본 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변절을 강요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며 쇼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도 예외없이 가혹한 형벌에 처해졌다. 이처럼 이에야스는 16 세기 중반부터 일본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뿌리뽑고자 하였고,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뤄지고 있진 않지만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는 기독교 금지령에서 더 나아가 서양 국가들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1549 년에 일본땅에 유입되어 순항의 길을 걸으며 빠르게 성장해나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이 65 년이 지나 1614 년부터 일본 전역에서 철저히 금지된 배경은 무엇일까? 1614 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면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1549 년부터 펼쳐졌던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그 탄압 역사의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일본의 오랜 기독교 탄압 역사의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입장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를 탄압 역사의 근본 원인으로 보며 서양에서부터 건너온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동양 국가인 일본에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본문화는 다수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 신토사상을 바탕으로 하기에, 절대자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견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쉽게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미 크게 성장했고 혹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두번째로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했던 일본인 기독교 신자 수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서양의 문화 충돌을 아예 관련 없는 요소라고 볼 순 없지만, 거의 3 세기 동안 지속된 일본의 기독교 탄압사를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입장은 일본의 국가주의를 기독교 탄압 역사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국시대에 일본 정치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은 일본의 통일이었고, 기독교와 같은 외래 종교는 일본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탄압당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통일이 당대 가장 중요했던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대개들 동의하지만 기독교 단체에 대한 중앙권력의 인식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단체가 통일의 방해요소로 인식되었다기보다 통일을 위해

중앙권력의 확립이 필요했던 시기에 만만한 외래 세력으로 정치적 도구로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이와는 상반된 의견으로 어떤 이들은 일본 정치계가 통일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독교 단체를 공동의 적으로 삼았다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빠른 성장 속도, 정치계 인사들을 겨냥한 포교활동 그리고 그 배후의 강성한 서양 국가의 존재가 일본 중앙권력으로 하여금 기독교 단체를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동서양의 문화충돌과 다르게 당대 일본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위와 같은 의견들은 일본 일리있는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정확히 그려내기에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대내적 상황만을 크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독교 탄압사란 물론 일본사회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본 밖의 외래 국가와 외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내적 상황만을 고려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보다는 부분적인 배경만을 그려낼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안팎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배경의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1549 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되어 1614 년에 전면적으로 금지되기까지 그 사이 65 년의 기간 동안 세계정치는 역동의 과정을 거쳤다. 세계질서의 재편성과 활발한 항해활동으로 여러 국가들이 연결되고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등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채로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일본과 서양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낼 수 없기에 일본 안에서 일어난 탄압 역사라 할지라도 일본의 대내적 상황뿐 아니라 안과 밖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일본의 대내적 상황에만 집중하여 좁은 관점에서 탄압사의 배경을 살펴보기보다 안팎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건을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해당 사건을 어느 한 특정 집단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탄압사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끝으로 일본의 대내외적 상황과 함께 탄압사의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입장을 헤아려 본 결과로서, 1549 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되어 순항의 길을 걷던 기독교 신앙이 1614 년부터 일본 전역에서 철저히 금지된 이유에는 포르투갈의 쇠퇴와 도쿠가와 정권의 중앙권력 확립을 위한 국가 통제가 핵심적인 배경이었음을 주장한다.

## 일본과 기독교 신앙의 만남과 그 전개

### 세계질서의 변동과 동서양의 만남

일본과 기독교 신앙의 만남과 관련하여 16 세기 초반 세계질서의 변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만약 포르투갈이 글로벌 파워로 자리매김하여 식민지 개척을 위한 활발한 해양 탐사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머나먼 유럽 땅에서 당시 아시아의 변방국가였던 일본으로 건너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일본땅으로 건너오지 못했다면 16 세기 중반에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일본에 전해지는 일 또한 있음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 16 세기 초반 세계질서의 변동에서부터 시작된다. 16 세기 초반 포르투갈은 글로벌 파워로 세계중심에 올라서게 되고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에 따라 1515 년 기존의 세계질서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된다. 이후 포르투갈은 활발한 해양 탐험을 거듭하며 식민지 개척에 몰두했고 글로벌 파워로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미치게 된다(Modelski 1978, 219). 일본과 기독교 신앙의 만남 또한 이와 같은 동서양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5 세기 초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은 활발한 해양 탐험 활동을 벌였고 그러던 중 1543 년에 한 포르투갈 상인의 배가 일본 남단의 다네가시마 섬에 상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섬나라 일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후 두 국가 간의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고, 두 국가 간의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럽의 문명과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 신앙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일본으로 유입된 것이었다.

##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환대받는 기독교 신앙

일본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1549 년 8 월 15 일 스페인 출생 포르투갈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만난 일본인 안지로(Anjiro)와 신부 토레스(Father Torres) 그리고 수사 페르난데즈(Brother Fernandez)와 함께 포교활동을 목표로 일본 카고시마(鹿兒島)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Cieslik 1954, 1-2).

21 세기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 현실로 미루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일본대중으로부터 괄대받았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당대 글로벌 파워로 자리매김한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일본대중은 물론 정치계 인사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자비에르가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중에 포르투갈, 인도, 로마 등의 여러 예수회 사역지로 보낸 편지들과 예수회 단체에서 발표한 여러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16 세기 중반 기독교 신앙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자비에르의 편지에 따르면 권력자들은 종종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에 대해 자세히 묻기도 했고 선교사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Campbell, 1921).




그림 1. 프란시스 자비에르 (출처: Kobe City Museum)

당시 기독교 신앙이 외래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입되자마자 일본에서 크게 환대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포르투갈이 무역을 통해 당대 일본 경제와 정치, 사회에 끼치고 있던 지대한 영향력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일본상인들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남겼고, 권력을 위해 끊임없는 싸워야했던 봉건 영주 다이묘들은 일본에는 없는 서양의 발달된 강력한 화기들을 들여와 쓸

수 있었다(Boxer 1951, 28). 때문에 경제적 이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에게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자신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영토와 가문을 보호할 수 있던 다이묘들에게도 포르투갈과의 무역은 중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일본 상인들과 다이묘들에게 포르투갈과의 무역이 한층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에게는 포르투갈을 대체할만한 무역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포르투갈은 글로벌 파워로서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 또한 독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에게 포르투갈을 통하지 않고서 외국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과 관련해서 포르투갈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일본에게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단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다이묘들은 포르투갈 상인은 물론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잘 알지도 못하는 외래종교의 포교 활동을 별다른 확인없이 쉽게 허가해주는 것은 물론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편안히 거처할 수 있는 안식처와 성전 공부를 위한 회당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물론 모든 다이묘들이 오로지 계산적인 마음만으로

예수회 선교단을 환대해주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포르투갈과의 지속적인 무역이 그들을 향한 환대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다이묘들이 선교사들을 그토록 환대했던 이유에는 포르투갈 글로벌 파워로서 일본에 끼쳤던 지대한 영향력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두 국가 간의 교역에서 선교사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 때문이었다. 교역을 위해서는 포르투갈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고 이에 선교사들보다 더 적합한 인력은 없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포르투갈 상인과 일본 상인 사이에서 통역과 함께 중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예수회 선교단들은 다이묘들의 환대와 보호 아래 일본땅에서 큰 제약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쟁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오랜 기간 포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일본 봉건 사회와 기독교 신앙의 빠른 확산

당시 일본사회는 봉건사회로, 봉건 영주인 다이묘가 개종할 경우 제도적으로 그의 가족, 신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한 3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개종하게 되는 사회적 형태를 띄고 있었다. 사실 자비에르가 일본땅을 새로운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 또한 이와 같은 일본의 봉건적 사회 제도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타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는 동안 일본의 봉건사회제도에 대해 전해듣게 된 자비에르는 일본 황제를 개종시키면 그 아래 봉건 영주와 지식인들 또한 기독교 신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을 또 다른 기독교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일본땅으로 건너왔다. 그는 일본에 도착한 이후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봉건 영주 다이묘의 허락 아래 포교활동을 펼쳐나갔고 그와 동시에 하루 빨리 황제가 있는 오늘날 쿄토(京都)인 미야코(Miyako)를 방문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비에르는 마침내 일본의 황제를 만나 복음에 대해 애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일본땅에서 황제란 그저 상징적인 지위인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허탈감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계획을 수정하여 일본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봉건 영주 다이묘를 선교 활동의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일본땅에서 계속해서 포교활동을 이어나갔다. 2 년 남짓의 포교활동을 뒤로하고 일본을 떠날 때 그는 다음 선교사들에게 일본땅에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다이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Cieslik, 1594).



그림 2. 선교사들의 포교활동 (출처: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그 이후 예수회 선교 단체는 다이묘를 포교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포르투갈은 무역과 관련하여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들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다이묘로부터 포교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락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은 서양의 외래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이래로 전면 금지령을 받기 전까지 포르투갈의 영향력과 일본의 봉건적 사회 제도의 힘을 입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일본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내 기독교 신자수가 1582 년에는 15 만명, 1609 년에는 22 만명에 달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빠르게 성장해나갔다고 한다(Elison, 1988).

### 예수회 선교단의 일본 문화 수용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몇몇의 기존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이 일본에서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동서양의 문화충돌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6 세기 후반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그저 충돌했다기보다 서로의 것을 수용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를 상대에게 강조하기 보다 절충점을 찾으며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6 세기 초반 예수회 선교단이 일본에 도착하여 포교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던 당시 선교사들은 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본래 선교활동을 위해 새로운 장소로 떠날 때면 헌금제도와 관련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 내 포교 활동의 계획에 있어 자비에르는 헌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대중들 사이에서는 종교단체라면 자금을 모아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돕는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예수회 선교단은 이러한 일본 기독교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예수회 선교단은 포교 활동에 있어 그들만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일본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일본사람들의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융통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선교사들은 일본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579 년 일본에 도착한 이탈리아 출생 예수회 선교사 알렉산더 발리가노(Alexander Valignano)는 기독교 신앙이 일본땅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사람들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사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의 전파와 일본대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선교사들은 반드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위해 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발리가노는 1590 년 리스본에서 마카오를 통해 일본으로 인쇄기를 들여왔고 이후 일본에는 다양한 설교집과 언어교육을 위한 서적들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인쇄기는 더욱 유용하게 쓰여졌고, 서양 선교사들의 일본어 학습을 위한 서적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라틴어, 포르투갈어 교육을 위한 언어교육 서적 또한 함께 발행되었다(Midzunoe 2005, 2). 기독교 선교단체는 일본에 대해 공부하며 일본대중에게 서양의 문화를 강요하기보다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했고, 이러한 선교단체의 노력이 결국에는 일본인들이 서양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불교단체와의 갈등

기독교 신앙은 일본에 유입된 이래로 포르투갈의 보호막 아래 순항의 길만 걸어온 듯하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본래 일본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잡고 있던 불교단체가 기독교 단체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단체는 일본 전역에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를 거짓된 교리라고 비판했으며 그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불교의 명망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제도로 인해 많은 수의 불교 신자들이 한꺼번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면서 몇몇 도시에서는 사찰로 모아졌던 시주의 크기 또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찰로 생계를 유지했던 승려들의 삶은  급격히 힘겨워지기 시작했고, 승려들은 자신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생계마저 위협하는 서양의 외래종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 단체와 불교 단체 사이에서 벌어진 직접적인 갈등은 예수회 선교단체에서 자비에르의 편지를 복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자비에르가 카코시마에서 포교활동을 이어나가던 때 불교승려들은 사람들에게 루머를 퍼뜨려 선교단체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자극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이묘들을 끊임없이 부추겨 더 이상의 기독교 확산을 금하는 법령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그리하여 카코시마에는 곧 기독교 포교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이 발표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포교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비에르는 안지로에게 카코시마를 맡기고 신부 토레스와 수사 페르난데즈, 그리고 몇몇의 일본인들과 함께 히라도로 떠났다. 1549 년 9 월 자비에르와 처음으로 대면할 당시 다이묘는 분명 서둘러 미야코로 떠나려는 자비에르를 막아서며, 반년 뒤 바람이 좋아져 안전한 항해가 가능할 때 떠날 것을 당부했지만 법령 발표 이후에는 그의 출발을 허락하며 히라도로 떠날 수 있도록 배를 마련해주었다(Cieslik 1954, 3). 다이묘들은 대개 포르투갈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예수회 선교사들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환대해주었지만 그 중에 몇몇 다이묘들은 불교단체의 설득에 넘어가 기독교 단체의 포교활동을 제한하곤 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2 년 반 남짓의 선교활동을 이어나가며 줄곧 유럽으로 편지를 보냈던 자비에르는 불교단체를 기독교 단체의 최대의 적으로 묘사했고(Coleridge, 1872), 일본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에게 앞으로 일본땅으로 건너와 선교활동을 이어나갈 선교사들에게 불교를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사상 차이로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종교에게 서로를 최대의 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 일본 기독교의 탄압 역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독교 포교 활동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든든한 지원 아래 순항의 길을 걸었다. 예수회 선교단은 회당과 학교를 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일본의 사절단을 꾸려 함께 유럽을 방문하면서 유럽 예수회와 일본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노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난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노부나가 이후 일본 최고의 권력가 자리에 오른 히데요시는 처음부터 기독교 세력에 대해 반감을 표했던 것은 아니었다. 히데요시가 집권할 당시에도 포르투갈과의 무역은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의 지속적인 무역과 또 선교사들로부터 무역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히데요시를 포함한 다이묘들은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기독교 신앙도 1587 년 히데요시가 크리스천 세력의 확산을 제한하는 공고문과 신부추방령을 연달아 발표면서 기독교 신앙의 난항은 시작되게 된 것이다.

히데요시는 1587 년 7 월 23 일, 신부추방령을 발표하기 하루 직전 반기독교 공지문을 먼저 공표했다. 총 11 가지의 조항이 담겨져 있는 반기독교 공지문은 핵심적으로 앞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개종의 문제는 중앙권력에서 통제할 것이며 기독교 신자들은 일본 사회 전체에 해가 되는 악의 무리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세세하게는 봉건 영주가 신하들에게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하고, 소작농 등의 하층민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허가하지만 봉건 영주 계급에게는 개종 전 반드시 중앙권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전에 일본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불교계의 한 종파, Ikko 를 언급하며 기독교 신자들은 이들보다 더 악한 무리임을 강력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반기독교 공지문 이후 잇따라 발표된 신부추방령에서는 첫머리에서부터 일본은 신의 나라임을 강조하며, 신사와 불교를 망가뜨리며 신의 나라를 더럽히는 기독교 세력은 20 일 안에 신국(일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Elison 1988, 115-118).

결과적으로 두 포고령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지만 포고령 이후 기독교 단체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처했다. 히데요시는 오무라 수미타다(大村純忠)가 예수회에게 양도했던 나가사키땅을 몰수하여 자신의 소유지로 두었고, 뿐만 아니라 긴키(Kinki)의 교회와 수녀원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 무역 상인들과의 교역은 여전히 중요했기에 포고령 시행을 잠시 중단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았다. 그리하여 반기독교 포고령의 시행은 중단되는 듯 보였지만, 1596 년 산 펠레페(San Felipe) 사건으로 인해 26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당시 크리스천의 도시라고 알려진 나가사키땅에서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Hur 2007, 34).

1596 년 산 펠리페라고 부르는 스페인 선박이 오늘날 코오치현인 토사(土佐)에 표착하게 되면서 당시 집권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앙권력의 허가 없이 일본으로 건너와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그림 3. 나가사키 순교 (출처: Saint Benedict Center)

히데요시는 이 기회에 자신의 명령을 어길 시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되는지 본보기를 제대로 보이기 위해 쿄토에서 24 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기독교인들의 도시인 나가사키로 끌고가 공개처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24 명의 기독교 신자들은 쿄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무려 1000km 가량의 거리를 한달 동안 걷게 되었다. 도중에 두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26 명이 되었고 1597 년 2 월 5 일 이 26 명의 기독교 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당했다.

나가사키 순교를 통해 히데요시는 일본 전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어 기독교 세력의 확산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나가사키 순교와 그 이후로도 진행된 몇 차례의 순교 사건들은 오히려 남은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권력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하기보다 그들을 아주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문하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Website of Churches, 2014). 히데요시 정권 아래 발표된 반기독교 포고령은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에 보내는 중앙권력의 첫 경고음과 같은 것이었다.

##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 정권 아래 기독교 신앙의 난항을 알리는 경고음을 울렸다면 도쿠가와 정권 때는 그 난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히데요시 다음으로 일본의 최고 권력가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 반기독교도 친불교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한 것 또한 아니었다. 그 역시 앞서 정권을 잡았던 노부나가, 히데요시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과의 지속적인 교역을 위해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다. 교토, 오사카 그리고 나가사키 등 일본 여러 도시에 예수회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허락했고 심지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1600 년대 초 네덜란드, 영국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단체를 향한 이에야스의 온건한 태도는 180 도 달라지게 된다.

포르투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갖게 되자 이것은 이에야스로 하여금 더 이상 포르투갈과의 무역 없이도 외국 물건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크리스천 선교사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중앙권력에서 기독교 단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Hur 2007, 37).

도쿠가와 정권 아래 기독교 단체를 가혹한 탄압은 두 개의 반기독교 포고령이 발표됨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1612 년에 기독교 단체를 향한 비교적 짧은 경고문이 발표되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며 법령을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Morries 2018, 300). 그리고 2 년 뒤 1614 년에는 앞서 발표되었던 비교적 짧은 경고문에 비해 긴 글의 배크리찬문(Hai Kirishitan bun)을 발표하였는데, 직전의 경고문과는 다르게 기독교 단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금지령을 어기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가혹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기독교 단체에 대한 강한 배척의 내용을 담고 있다(Morries 2018, 301-306). 그 이후로도 많은 반기독교 관련 포고령이 발표되었고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타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는 서양과 무역을 금하는 포고령 또한 발표되었다.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지(Martin Scorsese)의 감독 아래 제작되어 2016 년에 상영된 영화 사일런스(Silence)는 17 세기 도쿠가와 정권 아래 고통받던 포르투갈 출신 외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사일런스는 비록 일본 작가 슈사쿠 엔도(Shusaku Endo)가 쓴 소설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회 선교단체에서도 인정할 만큼 영화의 많은 내용들이 실제 벌어진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Jesuits, 2021). 1614 년 외국인 선교사들을 향한 대대적인 추방령과 일본 전역에 기독교 신앙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는 일보 역사상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중앙권력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독교 신자들을 탐색했다. 마을사람들은 줄을 서서 성모 마리아나 그리스도가 그려진 돌이나 나무판을 밟아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그림 4. 반기독교 포고령 (출처: Jesuits)**

단순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곧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것과 동일시 되었기에 명령을 거부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처형당하거나 가혹한 고문에 처해졌다. 외국 선교사들은 일본 전역에 추방령이 내려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중앙권력의 감시를 피해 숨어살며 지하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들을 찾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고, 숨겨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기에 은신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았다. 은신하다 적발되는 경우 거꾸로 메달려 머리는 구덩이에 파묻힌 채 이마에 난 칼자국을 통해 한방울씩 흘러내리는 피가 멈추어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 죽는 가혹형에 처해졌다(Silence, 2016).



그림 5. 성모마리아가 새겨진 나무판 (출처: Jesuits)

후에 도쿠가와 정권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아님을 불교 사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기도 했고(Hur 2007, 14), 이러한 정책 살아남은 크리스천들은 불교신자로 위장하여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다. 이들은 숨어지내는 크리스천으로 가쿠레 키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이라 이름지어졌고 오랜 시간 자신들의 믿음을 숨겨오다 19 세기 들어 일본의 폐쇄 정책이 끝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도쿠가와 정권 아래 17 세기는 크리스천 대학살의 시대였다.

1549 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외국인 선교사 수는 1614 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1586 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외국인 선교사 수는 1614 년까지 매년 100 명 이상의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1614 년 포고령 이후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1614 년에서 118 명으로 집계되었던 선교사 수가 다음해 1615 년에 58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Schütte 1968, 379-380). 선교사 수가 포고령 이후 이전해의 반도 안되는 수로 줄어든 당대 현실은 도쿠가와 정권이 얼마나 가혹한 기독교 탄압 정책을 이행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기독교 신자들에게 내려진 고문 (출처: Jesuits)

## 기독교 탄압 역사의 대내외적 배경

기본적으로 신토와 불교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본땅에 외래종교인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순항의 길을 걸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무역과 관련하여 포르투갈이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가 처음 유입됐을 때도 새로운 종교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웠던 일본사회가 머나먼

서양땅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드러내기는 커녕 처음부터 환대하며 생소한 종교의 포교활동까지 허락했던 까닭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점차 힘을 잃고 네덜란드, 영국과 같이 포르투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독교 단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급변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세계질서의 변화로 일본은 더 이상 교역문제와 관련하여 포르투갈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포르투갈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만큼 기독교 단체를 특별히 환대할 이유도 자연스레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포르투갈의 쇠퇴와 네덜란드, 영국의 성장이라는 나라 밖의 변화된 상황이 일본 정치계에게 기독교 단체를 이전과 달리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면,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대내적 배경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사상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 관련 정치 세력으로부터 느끼는 정치적 위협 그리고 중앙권력의 확립과 강화 등의 여러가지 요소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펼쳐지면서 이것들이 결국 기독교 단체를 향한 가혹한 탄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먼저, 일본사회 내 존재했던 기독교 단체에 대한 반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시기는 성장의 시기로 기독교 신앙이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되었던 1549 년 해부터 반기독교 포고령이 일본 전역에 실시되기 직전인 1614 년 초까지의 기간을 일컫고, 두번째 시기는

박해와 은신의 시기로 도쿠가와 정권 아래 반기독교 포고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1614 년부터 기독교 박해가 막을 내린 1873 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Morries 2018, 92). 이처럼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크게 성장의 시기와 박해와 은신의 시기로 나누어지기에, 기독교 신앙이 크게 성장했던 시기에 일본사회 내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겉으로 봤을 때 기독교 단체는 초기에 환대받다 후에 탄압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감도 처음엔 존재하지 않다 시간이 흘러 후에 생겨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어느 외래 종료이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환대받기보다는 박대당하고, 호감보다는 반감을 사듯이 기독교 신앙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물론 크리스천 선교사 단체가 처음부터 일본 대중과 정치계로부터 크게 환영받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포르투갈과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진정한 환영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궁극적으로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하여 상황에 맞춰 잠시 진심을 감춘 것이지 기독교 단체를 향하여 오로지 좋은 마음만을 품고 반감이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1600 년대에 들어서 네덜란드, 영국 등과 같이 포르투갈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새롭게 등장하자 빠르게 기독교 단체에 등을 돌린 도쿠가와 정권의 태도 변화 또한

존재했지만 단지 드러나지 않았던 반감이 상황이 바뀌게 되자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 단체를 향한 일본 중앙권력의 반감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기존에 일본에서 자리잡고 있던 신토, 불교사상과 상반되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이 일본에 처음 유입되었을 당시 예수회 선교사 단체는 사상 차이로 인해 불교 단체와 많은 갈등을 빚어냈다. 본래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사상으로써 다른 신을 섬기는 등의 우상숭배는 금지하며 오로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분만을 섬길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기존에 일본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던 신토와 불교사상은 800 만이 넘는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물론 인간은 죽고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두 부류는 사상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졌고, 기독교 신앙이 16 세기 중반부터 일본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자 불교 단체는 기독교 신자 수가 늘어난 만큼 불교 신자들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불교 승려들은 조용하던 일본 땅에 생소한 외래 종교가 등장하여 불교 단체의 종교적, 사회적 입지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기독교 단체를 향한 불만과 적개심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기독교 단체와 불교 단체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다른 두 종교 간의 갈등으로 끝이 났다면 아마 일본의 기독교

탄압사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 종교 간의 갈등은 정치계로까지 이어져 결국 기독교 단체를 향한 일본 정치계의 반감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본래 일본 정치계는 기독교 신앙이 일본에 유입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불교단체와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기본적으로 사찰에 새전을 바침으로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했던 시기였기에 누구든 사찰에 새전을 갖다바치고 불교 승려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다이묘들은 가장 많은 새전을 갖다바쳤던 사회계층이었기에 불교승려들과 더욱 가깝고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Cieslik, 1954). 이처럼 가깝게 지내며 하물며 자신의 업장소멸을 도와주는 승려들이 찾아와 기독교 단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이묘들은 당연히 승려들의 말을 믿고 기독교 단체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에도 몇몇 다이묘들이 불교승려들의 꾐에 이끌려 크리스천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제한시키곤 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듯이, 불교와의 마찰은 기독교 단체로 하여금 일본 정치계로부터 미움과 반감을 사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신토, 불교 사이의 갈등이 정치계에까지 이어진 또 다른 이유는 1500 년대 신토, 불교사상의 정치적 유용성과 관련깊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신토와 불교사상은 줄곧 일본 중앙권력의 정치적 도구로써 지배계층의 권력에 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 앞에서 맹세한 충성을 바탕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계를 곤고히하는 데 이용되었다. 즉, 중앙권력은 신토와 불교를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하극상의 발생을 미리 저지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Kudora, 1996). 1500 년대에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반기독교 포고령에 일본의 신의 나라라고 명시하며 신토와 불교를 옹호한 것 또한 이러한 고대의 정치적 관습을 따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불안정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중앙권력의 확립을 위해 종교가 정치적 도구로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시점에서 신토, 불교 사상과 마찰을 일으키고 대중에게 이들의 허물을 부각시키는 기독교 단체는 중앙권력으로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권력은 기독교 신앙과 단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일본 전체의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 1587 년에 발표한 반기독교 공문에서 기독교 단체를 이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교의 한 종파인 Ikko 와 비교하며 기독교 신자들을 Ikko 보다 더 악한 무리로 표현했고, 하루 뒤에 발표한 신부추방령에서는 기독교 단체를 일본의 오랜 전통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로 묘사했다(Elison 1988, 115-118).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기독교 단체와 관련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매우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1614 년 이에야스 정권 아래 발표된 배크리스찬문은 크리스천 선교사들을 가리켜 일본에 해로운 교리를 퍼뜨리고, 진실된

종교를 거짓되다 말하고, 나라의 공권력을 탐하는 악의 무리라고 비판했다(Morris 2018, 301-306). 다시 말해, 히데요시도 이에야스도 공통적으로 기독교 단체를 일본의 적, 일본사회의 악으로 만들어 이를 교묘하게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스스로를 악으로부터 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수호자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켰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 신자들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중앙권력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또 다른 배경은 중앙권력이 기독교 단체를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선교단체가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도 부재하기에 섣불리 판단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의 유무를 차치하고 이 시대 기독교 단체들이 보여준 행보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첫번째로, 선교단체는 시간이 흘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선교활동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일부분의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1580 년 오무라 수미타다가 예수회 단체에 나가사키 땅을 양도하면서 기독교 단체는 처음으로 일본땅에 기독교 도시를 세우게 된 것이었다. 두번째로, 선교단체는 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벽을 높여 요새화시켰고 무기를 사전에 비치해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은 정치계 인사들을 포교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데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Morris 2018, 107). 항상 경건하고 선한 일만 행할 것 같은 선교 단체가 마치 참전을 준비하는 이들과 같이 높은 성벽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 단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에, 이와 같은 종교 단체의 군사적인 면모를 포착한 이들은 분명 선교 단체가 선교가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일본사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정도의 선교 단체의 행보는 사실 어떤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보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선교 활동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닐 것이다.

오다 노부나가 정권 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례로 정권을 잡은 센고쿠 시대(戦国時代)는 중앙권력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내전과 반란의 시대였다. 1467 년부터 1477 년까지 대략 10 년동안 지속된 오닌 전쟁(應仁一亂) 이후 중앙권력이 무너지고 무려 120 명이 넘는 다이묘들이 제각기 일부분의 국가영토를 지배하면서 서로 더욱 많은 권력과 넓은 영토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던 시기였다(Morris 2018, 101). 때문에 이 시대 일본사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날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폭력으로 가득찬 시대를 보냈고, 선교사들 또한 잦은 내란으로 인해 선교활동을 중도에 포기하고 전쟁을 피해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과 자주 대면하였다.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수회 단체도 마냥 아무런 준비 없이 다이묘들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원한다면 얼마든지 모국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 단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전쟁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땅을 선교단체 이름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분명 무력이 아닌 양도를 통해 얻은 것이었고,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에 직접 전쟁을 대비한 것도 다이묘들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정적인 선교활동을 보장하고자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계 인사들을 포교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선교적 전략은 사실 초대 선교사 자비에르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당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봉건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법적으로 허가받은 포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다이묘들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더군다나 봉건사회 특성상 한 명의 다이묘를 개종시키면 그 아래 3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개종했기 때문에 선교 단체가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다이묘들을 포교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실 선교지의 당대 사회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선교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단체가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된 또 다른 배경에는 도쿠가와 정권 당시 기독교 신자로 확인되었던 다이묘들이 일으킨 정치적 스캔들이 관련되어 있다. 1614 년 일본 전역에 내려진 기독교 금지령의 촉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1608 년 마카오에서

일어난 무력충돌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크리스천 다이묘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의 선원들과 포르투갈 상인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마카오에서 벌어졌고, 그 결과 60 명의 일본인이 죽음을 맞이했다. 다음해 1609 년 마카오 무력충돌 사건에 관여했던 포르투갈 출신 마카오 총독 안드레 페소아(Andre Pessoa)는 선원들과 함께 나가사키에 정박했다. 이 때 하루노부는 마카오 사건을 기억하고 복수극을 펼쳤고 하루노부가 승리하면서 페소아와 그의 선원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하루노부와 같은 편에서 함께 싸웠던 또 다른 크리스천 다이묘인 오카모토 다이하치(岡本大八)는 하루노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 이에야스로부터 보상을 받길 원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하루노부에게 그를 대신해 이에야스의 측근이자 자신의 지휘관인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를 설득해 이전에 아리마 가문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다이하치는 하루노부에게 이에야스가 곧 땅을 하사할 것이라는 거짓된 소식을 전했고 이에 기뻤던 하루노부는 다이하치에게 후한 뇌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1612 년, 기다림에 지친 하루노부는 직접 마사주미를 찾아가 땅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이로써 다이하치의 거짓은 탄로나게 되었다. 두 크리스천 다이묘의 스캔들에 화가 난 이에야스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다이묘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이 넓게 확산되어 있으며, 자신의 부하들 사이에도 기독교 신자가 많고 그들 사이에는 신앙으로 형성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나, 히데요시가

죽고 그의 아들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에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며 도쿠가와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협하고 있을 당시,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다이묘들 사이에서도 친기독교 성향이 강했기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에야스의 반감은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Hur 2007, 35-40).

결국 기독교 단체가 탄압받게 된 대내적 배경에는 도쿠가와 정권의 중앙권력 확립을 위한 강압적인 통치가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이묘들은 물론 종교 세력과 소작농 세력까지 합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시기에 도쿠가와 가문은 앞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본받아 중앙권력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통해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서양에서 건너온 기독교 선교 단체와 일본 내 기독교 신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소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도쿠가와 정권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 마치며

일본 기독교 탄압사는 일본 안팎의 변화가 맞물려 펼쳐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포르투갈이 흥망성쇠, 대내적으로는 얽히고설킨 복합적인 배경 중에서도 중앙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가

전체를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던 도쿠가와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가 일본 기독교 탄압사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과 반대로 믿음과 신념을 지키려는 자들의 기나긴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또 다른 복합접인 관점에서는 역사란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안팎으로 여러가지 관찰 가능한 요소와 관찰 불가능한 요소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펼쳐진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Berry, Mary Elizabeth. 1982. *Hideyoshi*.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Boscaro, Adriana. 1973. "Toyotomi Hideyoshi and the 1587 Edicts Against Christianity". Oriens Extremus. 20 (2): 219-241.

Boxer, C. R. 1951. *The Christian century in Japan 1549-16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and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Campbell, Thomas J. 1921. *The Jesuits, 1534-1921: a history of the Society of Jesus from its foundation to the present time*. The Encyclopedia Press, New York.

Cieslik, Hubert. 1954. “Early Jesuit Missionaries in Japan 1 - St. Francis Xavier.”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 2010. “The Case of Christovao Ferreira.”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 2010. “The Great Martyrdom in Edo 1623: Its Causes, Course, Consequences.”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Coleridge, Henry James. 1881. *The life and letters of St. Francis Xavier*. 1 1. London: Burns and Oates.

———. 1872. *The life and letters of St. Francis Xavier*. 2 2. London: Burns and Oates.

Cooper, Michael. 2005. “The First Meeting between Japan and the West.”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Elison, George. 1988. *Deus destroye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Endo, Shusaku. 1992. “Kirishitan and Today.”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Fujitani, James. 2016. "Penance in the Jesuit Mission to Japan, 1549-1562".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67 (2): 306-324.

Gluck, Carol. 1985. *Japan's modern myths: ideology in the late Meiji perio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r, Nam-Lin. 2007. *Death and social order in Tokugawa Japan: Buddhism, anti-Christianity and the Danka syste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https://rekishinihon.com/2014/11/26/a-short-summary-of-francis-xavier-and-christianity-in-japan/.

Jesuits: https://www.jesuits.org/.

Kazui, Tashiro, and Susan Downing Videen. 1982. "Foreign Relations during the Edo Period: Sakoku Reexamined." Journal of Japanese Studies 8, no. 2: 283-306.

Khan Academy. “A portrait of St. Francis Xavier and Christianity in Japan.”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art-asia/art-japan/edo-period/a/a-portrait-of-st-francis-xavier-and-christianity-in-japan.

Kobata, Atsushi. 1965. "The Production and Uses of Gold and Silver in Sixteenth- and Seventeenth-Century Japa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8 (2): 245-266.

Kuroda, Toshio, Fabio Rambelli(trans). 1996. “The discourse on the "Land of Kami" shintoku in medieval Japan: national consciousness and international awarenes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3, no. 3-4: 353-385.

Maruyama Masao, Mikiso Hane (trans.). 1974. *Studies in Intellectual History of Tokugawa Japa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Midzunoe, Yuichi. 2005. “Aesop’s Arrival in Japan in the 1590s.”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Midzunoe, Ikuko. 2005. “Christian and Anti-Christian Tract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region/europe/portugal/data.html/.

Modelski,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 (2): 214-235.

Moran, J F. 2004. *The Japanese and the Jesuits Alessandro Valignano in sixteenth-century Japan*. Taylor & Francis.

Morris, James Harry. 2018. *Rethinking the history of conversion to Christianity in Japan, 1549-1644*. http://hdl.handle.net/10023/15875.

Mullins, Mark R. 2000. *Christianity made in Japan: a study of indigenous move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Newitt, Malyn. 2009. *A history of Portuguese overseas expansion, 1400-1668*. London: Routledge.

Paramore, Kiri. 2009. *Ideology and christianity in Japan*. New York: Routledge.

Saint Benedict Center: https://www.saintbenedict.com/catholic-resources/the-japanese-martyrs/.

Schütte, Josef Franz. 1968. *Introductio ad historiam Societatis Jesu in Japonia, 1549-1650, ac prooemium ad catalogos Japoniae edendos ad edenda Societatis Jesu monumenta historica Japoniae propylaeum. Opus composuit plurimisque tabellis instruxit et adnotationibus auxit Josephus Franciscus Schütte*. Romae: Apud Institum historicum Soc. Jesu.

Scorsese, Martin. 2016. Silence. United States: Paramount Pictures.

Toshio, Kuroda, James C. Dobbins, and Suzanne Gay. 1981. "Shinto in the history of Japanese religio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7, no. 1: 1-21.

Twenty-six Martyrs Museum Home page: http://www.26martyrs.com/.

Website of Churches and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Nagasaki. 2014. “The 26 martyrs of Japan.” http://oratio.jp/p_resource/nihonnijurokuseijinjunkyochi?type=r_en.

World Cultural Heritage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http://kirishitan.jp/ko.

3 장

# 상투를 자른 이토, 사무라이가 된 글로버
## 글로버 가든

**정헌욱**
중앙대학교

## 들어가며

### 주제

글로버 가든(Glover Garden, グラバー園)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인 글로버(Thomas Blake Glover)가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체류할 당시의 저택을 일컫는다.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잇폰마츠(一本松)라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의 동업자나 다른 상인들의 대접 장소이자 다른 존왕양이(尊王攘夷)파 정치인들이 막부(幕府)에 대한 반란을 모사(謀事)하는 장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를 에도(江戸) 막부의 '가장 큰 반역자'로 칭할 정도로 반막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성공에 기여한 삿초동맹(薩長同盟)에 공헌한 무기 및 선박 지원에서부터, '조슈 5 걸(長州五傑, Choshu Five)'로 대표되는 조슈 번(長州藩) 출신의 사무라이들을 '인간 무기(生きたる機械)'로서 해군기술을 배워오게끔

영국 유학길에 오르는 것을 도운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중에서 본 보고서는 조슈 5 걸 중 한 명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글로버의 인연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다만 두 개인의 만남만으로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의 관계를 논하는 주제의 비약을 경계하고, 두 개인의 심상에 들어가 그들의 가치관적 변환의 측면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 핵심 질문

조슈 5 걸 중에서 굳이 이토를 선택한 이유는, 이토와 글로버 사이의 특히나 각별한 관계 때문이다. 나이도 서로 비슷했던 글로버(1839-1911)와 이토(1841-1909)의 관계는 이토의 유학을 전후로 깊게 형성되었으며, 이토의 귀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둘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조슈 5 걸의 영국유학 전후 시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1908 년 글로버는 일본 정부로부터 산업화·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미친 영향을 높이 평가 받아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최고급 훈장인 2 등 훈장을 받았다. 막말유신(幕末維新)기 그의 활동시기를 감안하면 다소 늦은 수훈이었지만, 이는 그만큼 시기를 불문하고 글로버가 일본의 조선업, 탄광업 등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였음을 방증한다.

한편 총리를 역임하였던 이토는 사실 평민 출신의 양이론자였지만 영국 유학을 계기로 양이론을 버리고 개국론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그런 그들을 자발적으로 도운

글로버는 일본이 아닌 스코틀랜드 출신에다 심지어 관료도 아닌 일개 상인이라는 점은 그 함의하는 바는 새롭다. 이에 그들이(특히 외국인이었던 글로버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핵심 질문－글로버가 반막부 세력을 원조하기로 결심한 심상(心想)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또 이토가 양이론을 포기하게 된 심상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가－으로 삼아, 둘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토는 한국과 일본에게 각각 '원흉과 원훈의 두 얼굴'로 비춰진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필자의 한국인으로서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는 단지 글로버와 이토의 당시 상황에만 최대한 집중하여 한 편의 '드라마'적 구성을 연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개인의 관점에서 당시의 일련의 사건들을 몰입하여 바라보고 그 심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라 하겠다.

## 글로버와 조슈 5 걸의 탈출

1863 년 가을, 영국 런던 항구에 한 쾌속 돛배가 정박한다. 11 월 4 일 아침 8 시를 조금 넘긴 시각. 300 톤급 페가수스 범선에서 내리는 수많은 인파 중 두 명의 젊은 일본인이 있었으니, 28 세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22 세의 이토 히로부미가 그들이다. 상하이(上海)에서 출발한 배가 희망봉을 넘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장장 4 개월 동안 갑판원 신세로 지내며 힘겨운 노정을 거쳐야 했다. 생애 첫 항해에 심신이 지친 그들에게는 만나야 할 동료들이 있었다. 다른 배를 타고 먼저 도착해 둘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들은 야마오 요조(山尾庸三),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엔도 긴스케(遠藤謹助)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젊은이들이었다. 그렇다. 이들 다섯은 조슈 5 걸로 잘 알려진 일본의 사무라이들이었다. 왜 그들은 일본을 떠나 영국 런던에 오게 되었을까? 그들이 떠날 당시 일본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 일본에 들어온 외국 상인들

에도 시대 말, 도쿠가와 쇼군(徳川将軍)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일본은 정치와 경제 모두 난항을 겪고 있었다. 1853 년 흑선 군함을 타고 일본에 도착한 페리 제독의 함포외교로 강제 개항을 한 이래로 일본은 여러 서구 열강과 친선강화조약을 맺게 되었다. 1858 년에는 서구 5 개국과 무역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본은 약 200 년간 유지해 오던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그간 굳게 닫힌 문을 국제사회를 향해 열게 된다. 다시 말해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력한 군사력에 바탕을 둔 서구 열강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자유무역조약에 승인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요코하마(横浜)와 나가사키 등의 항구도시에

외국인 정착지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업적 기회를 좇아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다.

## 외국 상인 글로버

글로버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글로버는 스코틀랜드의 항구 도시 에버딘에서 해안경비대원의 아들로 나고 자랐으며 조선업과 상거래 등에 종사했던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외에서 활동하는 상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일본으로 가기 전에 중국에서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가 있던 상하이 지역에서는 일본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글로버 또한 일본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아예 일본어를 하는 가이드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일본 관련 강의를 찾아 들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정보와 일본 관련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글로버는 옛날 멘토였던 멕켄지(Kenneth Ross Mackenzie)를 만나게 된다. 멕켄지는 글로버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글로버는 사업을 합치기로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차, 아편을 중심으로 하는 밀수업을 계획한다. 이들은 1859 년 9 월 19 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에 도착한 글로버는 멕켄지의 파트너로서 주 나가사키 영국영사관의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로 일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 내부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외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이 순탄치 않았다. 1861 년 6 월 나가사키에 상업회의소가 설립된 이후에 글로버는 그 요직에 당선되었고, 이후에는 일본에서 그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자 멕켄지는 글로버의 성공을 질투하게 되고, 그는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글로버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일본 시장에서 글로버는 자립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다. 1864 년, 그의 상사는 20 개 구역에 설립될 정도로 번창하게 된다.

초창기에 글로버는 차 제조업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영국 차 사업은 대성공이었고 그의 새로운 회사는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 Matheson & Co.)와 협업을 시작했다. 먼저 글로버가 제조한 차의 견본은 상하이에 있는 이화양행으로 보내졌고, 거기에서 제조특허를 줄 경우 일본에서 차를 제조하는 두 단계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비록 차 제조업이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내지는 못했으나, 그가 무역에 대한 안목과 경험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글로버의 무기거래

한편 글로버의 무역 활동에서 특히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그와 당시 일본 내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막부세력뿐 아니라 지방 벌족들에게 재정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원조와 부채를 주고 있었다. 특히 그는 1864 년과 1867 년 사이에 일본 내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으며 막부세력뿐 아니라 벌족들 간의 싸움에서 필요했던 군함과 엄청난 양의 총, 은 등의 금괴를 공급하였다. 1864 년 9 월경에 글로버는 일본에서 첫 선박 판매를

하였고 글로버의 상회를 통해 나가사키에 들여온 소총은 약 17 만 1,934 개에 달하였다.

1860 년과 1867 년 사이에 무기 거래는 글로버에게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었다. 결국 25 살 때 그는 사츠마 번의 주요한 브로커가 되었다. 자연스레 그는 사츠마와 조슈의 동맹인 삿쵸동맹(薩長同盟)의 주요 무기 브로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글로버의 활동은 일본 역사에서 그를 수입소총, 대포, 폭발물의 개척자로 기억되게 하는 데 일조한다.

## 존왕양이 운동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이 외국인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한 몇몇의 일본 사무라이들은 외국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등 '오랑캐를 내쫓자'는 양이(攘夷) 운동을 펼치게 된다. 무엇보다 당시 천황이 외국인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해당 운동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천황은 받들고 오랑캐는 내쫓자'는 '존왕양이'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무라이들 사이에 이러한 반외세의 이면 기저에는, 일본이 서구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식의 대다수는 특히 사츠마(薩摩), 사가(佐賀), 조슈(長州), 토사(土佐) 등 일본 서부에 위치한 강력한 번(藩)들 사이에서 팽배했는데, 조선과 청나라에 가까운 해안가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해안 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조선(造船), 항해술, 대포주조, 총포대 등의 분야에서 서구의 해군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렇듯 군사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들의 힘은 그 결과 막부 쇼군의 군사력에 필적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1860 년부터 막부는 전국의 반외세 사무라이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1861 년 6 월에는 에도 토젠지(東漸寺)에서 영국 영사관이 미토번(水戸藩) 사무라이에게 공격을 받았으며, 1862 년 9 월에는 나마무기(生麦)에서 말을 탄 영국 상인이 사츠마번 사무라이에게 공격을 받아 1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통칭 '나마무기 사건'). 1863 년 1 월에는 조슈번 사무라이가 에도 시나가와(品川)에서 건설 중인 영국 영사관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기도 하였으니, 외국인들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황은 쇄국으로의 회귀와 함께 모든 외국인들의 추방을 막부에 지시했고, 이에 도쿠가와 이에모치(徳川家茂) 쇼군이 천황을 알현하기 위해 교토를 찾았다. 1863 년 6 월 25 일, 천황과 쇼군 간 회담 결과 2 개월 내로 외국인을 추방하라는 정책이 결정되었고, 존왕양이파 사무라이들은 그 결정에 열렬히 환영하였다.

## 전쟁의 위협 속에서

1863 년 나가사키의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매우 길고 더웠다. 특히 영국인 사회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시기였고, 해당 기간 동안

글로버가 이화양행의 메디슨에게 보낸 편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해 9 월 찰스 리처드슨(Charles Richardson)을 살해한 사츠마 번에 대한 영국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이듬해 초 영국은 막부에 대해 배상금 10 만 파운드를 요구했으며, 사츠마 번에게는 해당 사무라이를 처형하고 그의 범행에 대해 2 만 5 천 파운드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해군 함대의 쿠퍼 소장은 만일 그들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그들을 정벌할 수 있도록 9 척의 함선과 함께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쇼군이 사츠마 번, 특히 근거지였던 가고시마(鹿児島)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양이파는 쇼군에게 영국의 요구에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마침내 에도에 있는 쇼군으로부터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이는 온건파에 의해서는 서방과의 항구 협정에 대한 새로운 협정의 시작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조슈 번의 급진파에게는 마침내 일본에 상주하는 모든 오랑캐들을 공격하고 몰아내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실제로 그들은 이를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기에 이르렀다.

1863 년 4 월 6 일, 앨콕 경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권한을 대행했던 에드윈 세인트 존 닐(Edwin St John Neale)은 쇼군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일본이 20 일내로 영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에도나 요코하마보다

사츠마 번에 훨씬 가까운 나가사키에 영국 해군 함대가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주둔·대기하게 되면서 그곳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4 월 14 일 모리슨(Morrison)이 나가사키에서 주일 영국공사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는 자국민들에게 침착을 호소하면서도, 나가사키와 사츠마 근방에서 교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사츠마 번주는 항구에 요원을 파견하여 영국 정부의 예상 대처에 대해 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그의 고위 관리 중 일부는 외국인－특히 글로버 상사(Glover & Co.)의 글로버－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 이 글로버라는 신사분은 저에게 사츠마 번주의 총사령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나가사키에 갔다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고위직 요원이 그에게 중매자가 되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유통해줄 것을 간청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 불안한 나가사키 정세

당시 글로버는 사츠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영국인이었다. 한번은 그가 나마무기 사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츠마의 살인범을 압박했을 때, 그는 '의논해봐야 소용 없다'는 대답을 듣기도 했다.

그는 4 월 29 일 이화양행의 메디슨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 주민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상당수의 일본군이 … 만 입구에 있는 요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5 월 6 일자 내용은 이하와 같다.

> "… 번 주민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사츠마가 영국의 요구에 가장 분개하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대행위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습니다."

이화양행의 메디슨은 회신을 통해 나가사키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글로버는 5 월 16 일 다음과 같이 썼다.

> "전쟁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은 귀중품을 가지고 항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주는 국적에 따라 구별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지만 미국인, 네덜란드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그 말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송부해드린 노스차이나 헤럴드 & 레코더(North China Herald & Recorder) 발행본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모리슨의 에도 파견은 글로버의 상하이 파견과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그는 거의 영사의 정보원에 가까웠다. 그는 5 월 10 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 "기차는 내전을 위해 놓여져 있고, 외세 문제는 내전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흐레 뒤 밤이 되면 그 정착지는 도둑과 악인들이 득실대는 소굴이 될 겁니다."

5 월 중순경, 당시 24 살이었던 글로버는 외국인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상업회의소를 소집했다. 한편 영국의 최후통첩은 막부의 요청으로 그 달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이는 나가사키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에게는 (숨 돌릴 여유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상업회의소에서 그들은 최소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만이라도 그들의 소유지를 버리고 항구에 있는 두 군함으로 피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그들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매일 저녁 가장 방어가 용이한 윌리엄 알트의 자택에 모여, 그곳에서 무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알트의 집에서 보낸 매일 밤들은 분명 신경이 곤두서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장감시역은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대에 교대로 번갈아 맡는 당번제에 따라 선택되었다. 고요하고 습한 여름 밤의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암살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칼이나 검의 반짝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또 그들은 매미의 울음소리 위에서 잔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아침이 밝으면 그들은 각자의 집과 직장으로 돌아가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글로버의 경우 5 월 26 일 이화양행의 메디슨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무역상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에서 자신들의 책과 서류들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외관상 상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강요당했다고 보고했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 "… 정치적 문제로 장사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 일본 측에 대한 추가 허용 기간이 내일 만료되어 31 일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모든 신문에서 내전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일본 측에서는 적대적인 의도가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으며, 많은 수의 남자들이 밤낮으로 모래주머니, 포대, 총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제출했고, 영국 영사관에서 이를 정식으로 증명 받았습니다."

## 폭풍의 눈

그렇게 나가사키에도 무더위와 소나기의 틈새로 6 월은 찾아왔고, 그들은 여전히 에도에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유언비어들이 막 나돌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쇼군이 영국 해병과 리처드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나가사키에 전해졌다. 나가사키를 옥죄던 긴장과 압박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사츠마 문제가 남아있었음—그들은 여전히 살인범을 굴복시키지도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다—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가능성은 희미해졌다.

6 월 중순에 사츠마와 조슈의 요원들은 나가사키에 돌아왔고 사업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였다. 글로버 형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알트의 집에서 매일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글로버는 6 월 17 일 상하이로 편지를 썼다.

> "… 이곳 현지인들의 혼란은 상당히 가라앉았고, 그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내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상인들은 외국인들과의 상거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막간은 단지 폭풍의 눈이 지나가는 찰나일 뿐이었다.

## 조슈 5 걸의 형성

한편 조슈 출신의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 히로부미는 존왕양이 운동의 핵심 지지자였다. 그들과 더불어 야마오 요조와 히사사카 겐지(久坂玄随)는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가 조직한 영국 영사관 공격에 흔쾌히 가담해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교토에서 군사 전략가였던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을 만난 이노우에 가오루는,

해군력의 강화와 함께 사람을 해외로 보내어 공부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큰 감명을 받게 된다. 결국 그는 그 스스로 서구의 해군 과학을 배우러 해외로 갈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야마오 또한 이에 동참하게 된다. 그들은 서구로의 유학이야말로 진정한 양이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조슈 번의 군사력·경제력 강화 및 근대화는 곧 일본 전체의 근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의 해안 방어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잠재적 식민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큰 인상을 받은 번의 고위 간부들은 그들의 입장을 번주였던 모리 다카치카(毛利敬親)와 그의 후계자 모리 사다히로(毛利定弘)에게 전달했다. 1863 년 6 월 4 일, 이노우에 가오루와 야마오는 해외 유학을 승인 받게 되었으며, 세 번째 구성원으로 20 세의 이노우에 마사루가 추가되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서구 학문에 친숙했으며, 야마오와 이노우에 마사루는 항해술을 공부해왔었다.

셋은 곧바로 요코하마로 떠났고, 이전에도 만난 바 있었던 이화양행의 요코하마 지점장이었던 사무엘 고어(Samuel Gower)를 만나 통행수단과 비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고어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그는 결국 그들을 돕기로 했다. 바야흐로 6 월 말이었다. 이 단계에서 두 사람이 그들 무리에 합류한다. 이토 히로부미와 27 세의 엔도 긴스케. 그들 모두 해외로 가는 것을

열망했다. 그렇게 다섯 명의 용감한 젊은이들이 해군 과학을 배워오고자 영국을 행선지로 정한 것이다.

## 글로버, 조슈 5 걸에 협조하다

이 과정에서 글로버의 협조를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위기의 5 월 조슈의 반막부군들이 나가사키에 있는 글로버에게 접근했다. 젊은 사무라이들이 서구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로선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한 요청이었음에도 글로버는 고민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는 곧바로 이화양행 요코하마 지점을 통해 메디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자연스레 이는 이화양행 상하이와 런던 지점에서도 관여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조슈 5 걸의 탈출 작전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요코하마에 있는 그의 회사 직원인 웨이갈도 이 음모에 가담했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애버딘에 있는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막부가 엄격히 규정해둔 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은 그 동안 글로버가 주고받은 회사간의 서신을 통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로버는 이 시기동안 가장 영리한 젊은 일본인들이 기술이나 다른 진보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또 그는 외국에서 이들이 돌아오면 그 어떤 외국인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반막부군으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최고의 옹호자가 되게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조슈 5 걸의 해외 파견에 대한 글로버의

관여는 이러한 그의 신념의 첫 번째이자 아마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사례였을 것이다. 그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어떤 외국인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그러했다.

## 글로버와 이토

이 시점에서 그가 다섯 명 중 이토 히로부미와 맺은 평생의 인연은 일련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1863 년 글로버가 에도 공사의 책임 하에 있었던 조슈 번 사무라이 중 한 명이었던 이토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둘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글로버에게 이토를 비롯한 조슈 세력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조슈 세력과 막부 세력의 전쟁이 예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는 그 과정에서 현대 무기를 팔아서 한몫을 챙기려는 글로버의 계산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토는 1841 년 10 월 중순에 현재의 야마구치 현(山口県)의 구마게(熊毛, 당시 조슈 번 영역 내)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사무라이의 양아들이었고, 어린 이토는 당시 사무라이 계급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청소년기에 그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막부에 반대하는 선지자이자 교사. 후에 암살 집단을 조직한 죄로 처형당함)이 주도한 존왕양이 테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토는 당시

서구와 막부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요시자의 제자 다카스기 신사쿠가 이끄는 젊은 조슈 사무라이들－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야마오 요조, 이노우에 가오루 등－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들 모두가 토마스 글로버와 연관되어 있었다. 당시 총명한 젊은이들이었던 그들은, 글로버 덕분에 서구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토가 조슈 5 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가장 유력한 이유는－이후 오입(誤入), 음주, 그리고 맹목적인 야욕에 대한 정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이미 뚜렷했던 그의 강인한 성격과 함께, 그가 영어를 공부해왔었고 1863 년 언어에서의 유능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1863 년 당시 이토와 이노우에 가오루 모두 글로버와 마찬가지로 20 대 중반이었고, 이 위대한 탈출을 계획하면서 세 사람 모두 계획의 진척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다. 특히 이토는 2 년 전 영국 공사관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다만 과거에 어떤 경우였든 간에 그들은 이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맹목적인 혐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슈 5 걸의 탈출은 글로버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사건들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이 다섯 명의 젊은 그들이 서구로 탈출했던 것은 일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 ‘인간 무기’를 자처하다

그 무렵 이화양행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외국 무역회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1859 년 요코하마의 개항과 함께 요코하마 지점을 열었고, 일본에서 선도하는 무역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들 지점을 ‘요코하마 제 1 번지’로 불렀다. 이러한 영국의 무역회사가 ‘오랑캐를 내쫓고자’ 하는 조슈 사무라이들의 불법 통행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가히 역설적이다. 이화양행이 그들을 돕기로 결정한 그 이튿날인 6 월 25 일 조슈는 천황의 반외세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시모노세키(下関) 해협에서 미국 상선을 공격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다섯 사람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죽을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항해 하루 전인 6 월 26 일, 그들은 번 참모에게 서신을 남긴다.

> “소생은 소생의 행동이 지닌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있사옵니다. 소생의 불법행위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결단을 내리었습니다. 만약 초기의 의도를 이행하는데 실패한다면, 소생에게는 살아 돌아올 추호의 생각도 없습니다. … 소생은 겸허히 귀하의 양해와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소생을 그저 귀하가 매수한 ‘인간 무기’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영국으로의 유학이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결정임을 역설하면서 양해를 간청했으며, 유학 자금으로 많은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사죄하였다. 그들은 '인간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서구의 기술을 구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조슈 5 걸에게 유학이란 외세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생사의 기로에 선 여정과도 같았다. 즉 외국인을 내쫓기 위해 외국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 조슈 5 걸의 영국유학과 귀국

### 조슈 5 걸의 밀항

그날 저녁 9 시경 '요코하마 제 1 번지'에 도착한 조슈 5 걸은 그들의 상투를 자르는 의식을 거행한 뒤, 고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양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치욕이었다. 당시의 그들에게 있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억누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출발할 무렵 이토는 다음과 같은 시로 자신의 정신을 남겼다.

"나 떠날 적에
사내로서 부끄럼 한가득이나
그리하여야만 하는 걸 알기에

천황과 조국을 위하여!"

그들은 막부 경찰에 발각될까 두려워 요코하마에 있는 글로버 대리인의 정원에 숨어야 했다. 그들의 상투는 잘려 있었고 머리는 서양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발각된다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죽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후에 이토는 당시를 차분히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외국을 방문한 최초의 일본인 중 한 명이었으며, 1863 년에는 밀항하여 상하이로 탈출하는 것 외에는 외국으로 갈 방도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외국과의 교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일본인들은 아직 나라를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글로서 회상할 때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실제로는 되려 비참한 탈출이었다.

자정이 지나고 고어는 그들을 뒷문으로 내보내 이화양행의 첼스위크 증기선으로 향하는 자그마한 부속선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영국 선원의 제복을 빌려 입고 해안 경비병들을 지나치면서 외국어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기를 바랄 뿐이었다. 승선한 후에도 그들은 관리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석탄 창고에 몸을 숨긴 채 출발을 기다려야 했다.

승선을 앞두고 죽음을 각오한 송별회에도 불구하고, 내렸던 닻이 해외로 흔들리며 나아가는 선박 쪽으로 천천히 끌려 올라갈수록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선박이 외해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전에 잡힐 경우 그들은 꼼짝없이 사형이라는 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토는 일본을 서둘러 뜨기 전에 조슈로부터 사무라이의 지위를 부여 받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노년에 와서도 그는 영국의 도움, 특히 그 중요했던 시기에 그를 일본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밀항을 도와준 글로버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

마침내 배는 6 월 27 일 동이 트기 전 출발했다. 조슈가 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 상하이에서 서구 문명에 눈뜨다

닷새 뒤 그들은 상하이에 도착했고, 급속히 발전한 근대 상업 중심지의 화려한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상하이에 주둔한 외세의 해군력을 본 그들은 일본의 취약성을 절감하였다. 양이가 조국을 망칠 수 있는 실수이며, 해군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문물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상하이 방문은 그들의 자신감에 위기를 가져왔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거대한 서양 기선들과 전함들이 중국 항구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들의 양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화가 난 이토는 '어떻게 함선 몇 척만을 보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며 대뜸 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토 또한 그가 본 것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고어의 소개장을 가지고 이화양행 상하이 지점에 있는 윌리엄 케스위크를 만나러 갔다. 케스위크는 그들에게 여행의 목적을 물었으나 당시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던 이노우에 마사루는 '해군(navy)'을 말한다는 것을 잘못하여 '항해술(navigation)'을 공부하기 위해 간다고 답하고 말았다. 그들이 영국에 항해술을 배우러 가는 것으로 이해한 케스위크는 그들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두 척의 런던행 배에 올라타게 하여, 각각의 선장에게 항해 도중 그들을 훈련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는 페가수스 범선에, 다른 셋은 500톤급의 화이트 애더 범선에 올라타게 되었다. 두 배 모두 중국에서 영국으로 차를 운송하는 대형 쾌속 돛배였다.

## 우여곡절 끝에 영국 문명과 만나다

이토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유럽으로 가는 페가수스의 긴 항해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견습 선원 취급을 받으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받은 그들은 뱃멀미와 설사에 시달렸고, 한때는 매우 약해진 이토가 바다에 자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를 배의 측면에다 묶어야 했을 정도였다. 상하이를 떠난 지 4 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런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항해 후반기에는 모든 면에서 상황이 덜 험난해졌고, 둘은 심지어 그들의 주머니 사전을 참조하여 페가수스의 선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상하이에서부터의 긴 여정은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에게 있어 매우 힘든 역경과도 같았기에, 페가수스가 11 월 4 일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도하며 매우 기뻐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창의 영국 문명이었고, 이노우에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후 그는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 지 감이 오질 않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다.

> "3 층 내지 5 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기차들은 모든 방향에서 달리고 있었다. 공장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는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왕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영하는 장면들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얼떨떨했고, 양이에 대한 생각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증기기관차는 높은 벽돌 빌딩 사이로 요리조리 지나다녔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 최신식 공장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도시의 거리 속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 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본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는, '오랑캐를 쫓아낸다'는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불가피했던 초반의 혼란을 겪은 후, 그들은 런던 이화양행의 보살핌과 그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들에게 상하이가 거대하고 경이롭게 보였다면, 런던의 항구와 도시는 (런던의 물가와 혼잡함,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새로운 발견과도 같았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펜처치 스트리트 역에 도착했고, 이후 미노리스 동부에 있는 아메리카 스퀘어 호텔에 들어갔다. 놀랍게도 이노우에 마사루와 엔도, 야마오가 먼저 도착하여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명은 그들보다 몇 주 뒤에 상하이를 떴지만 런던에는 나흘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재회 당시 야마오는 이발소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이발 장면은 지극히 가관이었다.

## 메디슨과의 만남

며칠 후 페가수스 범선의 보어 선장은 그들을 이화양행의 상무이사였던 휴 메디슨(Hugh Matheson)에게로 데려갔다. 메디슨에게 영국에 있는 일본 젊은이들의 생활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였다. 메디슨은 그 일본인들과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런던에 도착한 그(보어 선장)는 그의 젊은 승객들을 내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그들의 이름은 이토, 시데(이노우에 가오루), 야마오(야마오 요조), 노무란(이노우에 마사루), 그리고 엔도였다. 오직 노무란만이 그나마 서툰 영어를 조심스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적절히 하숙시키고 그들의 교육을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내가 윌리엄슨 박사－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UCL)의 화학 교수, 이후 영국협회 회장－로 하여금 그의 집에 그들을 들이도록 설득한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교수님과의 상의 후 나는 그들이 영어를 배우고, 정말 좋은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업에 배치되도록 주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윌리엄슨 박사의 조언은 매우 귀중했다. 나에게 있어 그들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신발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들은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했다. 나는 그들을 자주 만났다.”

“이러한 점에서 윌리엄슨 박사의 조언은 매우 귀중했다.”는 메디슨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슨은 메디슨에게 자신이 UCL 에서 직접 강의하면서 실천해 온 종합과학교육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일본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UCL 에 공부하러 온 최초의 일본인 유학생이라는 사실은 윌리엄슨에게 있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윌리엄슨이 평생 추구하던 목표는 바로 ‘다름 속의 하나됨(Unity out of difference)’이었는데, 그에게 있어 일본

학생들은 어쩌면 이러한 그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메디슨은 UCL 의 고문 어거스트 프레보 경에게 일본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간 윌리엄슨의 성격, 교육관,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안목에 대해 크게 존경하고 있었던 프레보는 주저없이 윌리엄슨을 선택하였다.

### 윌리엄슨, 일본 학생들을 환영하다

1863 년 당시 39 살이었던 윌리엄슨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 있었다. 윌리엄슨과 그의 부인 엠마는 지난해 태어난 딸 앨리스를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또한 1863 년은 윌리엄슨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해가 되었는데, 이는 비단 그 일본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1862 년 그는 왕립학회로부터 왕실훈장(Royal Medal)을 받았으며, 1863 년에는 영국 화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런던화학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게다가 그는 뉴캐슬에서 열린 총회에서 영국협회의 화학부문 책임자로도 선정되었다. 다만 윌리엄슨은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온 다섯 명의 젊은이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그들은 교육계에서는 보기 드문 참된 스승을 영국에서 만난 것이다. 윌리엄슨은 그들 모두를 프로보스트 거리에 있는 그의 저택에서 살도록 불러들였다. 갓난아기 앨리스와 두 명의 하인이 있는 부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그들은 이 외국인 방문객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고, 결국 메디슨은 이노우에 가오루와 야마오를 대학 앞 고어 가 103 번지에 있는 쿠퍼네 자택으로 보내게 되었다. 알렉산더 데이비스 쿠퍼(Alexander Davis Cooper)는 풍속화를 전문으로 하는 꽤 유명한 화가였으며, 그의 부친과 아내 역시 화가였다. 쿠퍼네로 거처를 옮긴 둘은 분명 그림들로 둘러싸인 예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을 것이다. 쿠퍼 가족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그들은 그 집을 매우 쾌적하고 편안하게 느꼈을 것이다.

## UCL 의 학업 분위기에 적응하다

다섯 명의 일본인들이 UCL 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가 왔다. 그들은 '비공식 학생'의 지위로 윌리엄슨이 속한 교양법학부에 편입되었다. 그들은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료를 납부해 강의를 들었다. UCL 자료실에 보관된 학생기록부에는 그들이 선택한 과목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863 년 이토, 야마오, 이노우에 마사루와 엔도는 분석화학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는 윌리엄슨의 담당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학생기록부 상 이노우에 가오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수강료 납부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는 1864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으로 돌아갔고, 남은 학생들은

분석화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1864 년부터 2 년간 야마오는 화학과 토목공학을, 이노우에 마사루와 엔도는 화학과 지질학, 광물학을 추가로 수강하였다. 이듬해인 1866 년 야마오는 글래스고로, 엔도는 고향으로 떠나게 되자, UCL 에 혼자 남게 된 이노우에 마사루는 그 해 기존의 분석화학, 지질학, 광물학에 더해 영어, 불어, 수학, 수리물리학을 수강하였다. 그가 선택한 과목들은 교양교육에 대한 윌리엄슨의 생각을 그가 충실히 따르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3 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미 고등교육에 필수적인 파운데이션 과정을 완수하고 있었다.

윌리엄슨의 버크백 연구소는 일본 학생들의 대학 생활의 중심지였다. 연구소는 기초과학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면서도 실험실에서의 분석화학 작업을 통해 기술과 응용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윌리엄슨의 목표는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화학을 가르침으로써 과학 연구의 본질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후에 이토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 “낮에는 대학에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는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윌리엄슨 선생님의 자택에서 하숙하며 그분께 수학을 배웠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생님께서는 낮에는 대학에 계시며 화학을 가르치셨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 집에서 수업을 해 주셨다. 또 낮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루 일과였다."

그들은 점차 UCL 의 자유로운 학업분위기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들은 실증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을 경험하며 그 기본 원리들을 받아들였다.

## '서구의 본질'을 찾아서

수업 시간 사이마다 그들은 왕립 조폐국(Royal Mint)부터 박물관, 미술관 조선소와 공장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방문했다. 서양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두 눈으로 직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양의 지식으로 '인간 무기'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업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몇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으며, '서구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것 또한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엠마 부인은 그들의 이해를 돕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윌리엄슨의 전기를 쓴 해리스와 브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또 그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영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어 교습에도 도움을 준 엠마 부인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행운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영어가 늘었고, 영국 산업과 상업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는데, 이는 그들 고국의 성공적인 발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

엠마 부인은 그들이 일상에서 서구 문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었다.

한편 윌리엄슨은 그들을 수많은 산업공장에 단순히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그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다. 실험실에서 여러 실험들을 보여주었던 그는, 그들을 공장으로 데려가 그러한 실험들이 실제로 응용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끔 하였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과학의 원리를 이해시킨 다음, 현대 과학에 기반한 문화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름 속의 하나됨'이라는 그의 철학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인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문명이 꽃핀다'는 신념이 그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그의 가르침에 다섯 명의 일본 학생들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1864 년 1 월 22 일, 그들은 스레드니들 거리의 영국은행에 방문하였다. 영국은행은 당시 유럽 최고의 조폐술을 자랑하고 있었고, 한번에 수천 장의 지폐를 찍어내는 고도의 기술 수준에 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조슈 5 걸의 은행 방문 기록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들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인쇄된 천 파운드 지폐에 그들은 로마자와 한자 모두를 사용하여 그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때에만 진행되는 것이었다.

## 새로운 일본을 위하여

다섯 사람이 영국은행을 방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휴 메디슨은 지난해 8 월 일본에서 영국과 사츠마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중대한 소식을 들고 그들을 방문했다. 1863 년에 발발한 사츠에이 전쟁(薩英戦争)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외국 선박들에 대한 조슈의 공격과 그에 따른 반격, 그리고 사츠마에서의 전쟁에 대해 보도한 영국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이미 조금은 들었을 것이다.

그날을 회상하며 이노우에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조슈에 대한 보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사가 신문에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우 우울해졌다. 나는 이토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무리 우리가 해군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는다 한들 조국이 멸망해버린다면 그런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나는 주장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우리 중 둘은 돌아가 다이묘와 다른 관계자들을 만나 유럽의 상황을 설명하고, 방침을 선회하여 '존왕개국(尊王開国)' 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토는 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나와 이토는 나머지 셋을 영국에 남겨두고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서구 문화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가 느낀 위기감은 그로 하여금 '부국강병'이라는 표어와 함께 개국을 주장하게 만들었다.

이토는 영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며 '유럽 각국이 부현제(府県制)로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의 봉건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은 통일국가로 생각하고 있었고, 번으로 분단된 국가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결국 다섯 학생은, 심사숙고 끝에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를 일본으로 돌려보내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메디슨에게 보냈다. 주변에서는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기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며 그들을 만류했으나, 그들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나머지 셋도 함께 일본에 돌아가고자 했으나, 이노우에 가오루는 '인간 무기'로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며 그들이 영국에 남도록 타일렀다. 그렇게 1864 년 4 월 말경,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는 런던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 영국 외교관에게 유학의 본 목적을 숨기다

이들이 떠난 지 두 달이 지난 6 월 말, 이노우에 마사루, 엔도, 야마오 등 남은 세 명은 영국 외교관 레지널드 러셀(Reginald Russell)을 만났다. 그는 3 년 전인 1861 년 6 월 로렌스 올리펀트 주일 영국공사관의 제 1 서기관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2 년간 일본어를 배운 바 있다. 영국·미국·프랑스·네덜란드 연합군이 시모노세키의 포대를 공격할 계획을 알고 있던 러셀은 조슈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존 러셀 경(Lord John Russell)은 주일 영국 대사였던 러더퍼드 앨콕 경이 작성한 시모노세키 군사원정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레지널드 러셀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 "그들의 주인(즉 조슈의 다이묘 모리)은 유럽의 공격에 대한 방책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먼저 당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모든 일본인들이 혐오했던 다이쿤(大君, 에도 시대에 외국에 대하여 사용한 쇼군의 다른 이름)의 '부정한 정부'를 전복시키기를 바랐다. 또한 외국인의 추방이 아닌, 다이쿤이 오랫동안 빼앗아온 미카도(帝, 천황)의 권력 복원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다이쿤 정부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반정부 인사들의 목표물이자 타도의 대상이었다.

천황과 다른 많은 강력한 다이묘들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는, 우선 '서구 열강'들의 힘에 다이쿤을 휘말리게 만듦으로써 그 권력을 약화시킨 뒤 일본 국민들이 정당한 주권자에게로 그 권력을 복원시키기를 희망했다. 둘째로 그들은 외국인들의 눈을 가리던 베일을 걷어내어, 그들이 다이쿤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조약도 (진정한 황제에 의해 승인·인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가 전체의 국민 감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구속력이 없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그들은 외국의 열강들이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황제인 미카도와 직접 조약을 맺기를 희망했으며, 이로 인해 외교통상의 이익이 모든 계층과 당사자들에게로 확장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들은 현재 다이쿤의 '부정한 정부'가 이 모든 이점들을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중략) 그들은 만일 그(황제)가 외국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면—즉 그들이 교토에 있는 천황에게 그가 독자적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맺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한다면—모든 일본 국민들은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그들은 미카도와의 조약의 이점은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인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로 인해 내전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

다이쿤 관료들이 독점해왔던 통상(通商)의 혜택을 일본 내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레지널드 러셀과 일본 학생들은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 영어와 일어를 모두 사용해가며 대화를 나눴다. 조슈 5 걸의 방영(訪英) 목적을 묻는 러셀의 질문에 그들은 '응용 과학'과 함께 '조국발전에 유용한 기술'을 연구하고 유럽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그들 중 두 명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보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가 일본으로 돌아간 진짜 이유를 숨긴 것이다. 아마 그들은 더 많은 양이파가 유럽 문명을 경험한다면 정말로 일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막부가 아닌 황궁이 외국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여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러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해군 전문지식'보다는 '응용 과학'과 '기술'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UCL 에서의 6 개월 동안에는 '일본의 근대화에 유용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에 더욱 명확하게 접근하게 되었다고도 역설했다. UCL 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그들의 깊이 있는 헌신을 입증해 주었다. 실제로 1864 학년도 말 응용화학 과목에서 야마오와 엔도는 각각 전체 4 등과 5 등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귀국한 두 사람을 포함한 이들 다섯 명의 마음 속에는 일본 통합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

## 나가며

조슈 5 걸의 영국유학은 일본의 발전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였다. 당시 일본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했던 정세와 함께 막부가 해외로의 이동을 절대적으로 금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외로 몸소 찾아가서 배우겠다는 결심은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었다. 당시 이토를 포함한 조슈 5 걸은 확고한 존왕양이의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인간 무기'가 되어 '서양의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 서양을 배운다'는 역설적인 다짐을 한 것이다. 특히 출항 직전 눈물을 흘리며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는 과정은 성공적인 밀항의 조건이기 이전에 그들이 살아온 생활 양식과 전통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죽이는 치욕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랬기에 오히려 그들이 조국을 위한다는 가치관만큼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겠다.

이러한 조슈 5 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애초에 그들이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준 군사 전략가 사쿠마 쇼잔과, 그들에게 유학 자금을 대준 조슈 번 정부의 유력자 스후

마사노스케(周布正之助) 등 내부적인 도움이 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국으로의 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요코하마 제 1 번가의 사무엘 고어, 이화양행에 연락하여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며 막부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상인 글로버의 역할 또한 외부적인 도움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내외부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영국에 도착한 데 이어 그곳에서도 그들이 잘 적응하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준 알렉산더 윌리엄슨 가족, 그들의 생활을 꾸준히 책임진 이화양행의 휴 메디슨과 알렉산더 쿠퍼 가족의 도움도 필수불가결했다. 특히 윌리엄슨과 쿠퍼의 숙식 지원은 조슈 5 걸 이후 사츠마의 19 인 등 영국의 문물을 배우러 추가로 파견된 일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들 중 어느 한 명의 도움이라도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조슈 5 걸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했던 초기 출발 단계에서 영국과 일본의 은밀한 가교 역할을 했던 글로버의 도움은 가히 결정적이었다 할 것이다.

이토를 포함한 조슈 5 걸과 글로버의 심상에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여러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존왕양이를 실천하겠다는 목적을 지닌 초기의 심상에는 사쿠마 쇼잔의 주장을 통해 서양을 배우겠다는 수단이 추가되었다. 또 양이론을 목적으로 한 심상은 상하이와 런던에 밴 서구 문명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이후 접한 서양 문화를 통해 일본의 개국과 폐번치헌(廃藩置県) 등에 대한

생각을 새로이 가지게 되며 그들은 변화하였고, '인간 무기'로서 귀국하게 되었다.

글로버의 경우 또한 멘토 멕켄지와 함께 상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의 초기의 심상에서,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 속 막부와 반막부 사이를 중개하며 그 사이에서 무기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에 주재한 반막부 번 상인들과의 통상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막부에 대한 반감이 발전하여 반막부 세력에 대한 은밀한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변하게 되었다.

결국 두 행위자의 만남은 각자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던 심상에 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조슈 5 걸의 성공적인 파견과 일본의 새로운 새벽 메이지 유신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 상투를 자른 이토와 사무라이가 된 글로버의 만남은 19세기 영일 관계 속 신비한 양상을 띠며 발전한 역사의 큰 일부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박훈. 2014.《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울: (주)민음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종각. 2010.《이토 히로부미》. 서울: 동아일보사

Aberdeen City Council: Thomas Blake Glover Trail. Accessed November 12, 2021. https://www.aberdeencity.gov.uk/sites/default/files/2020-09/Thomas%20Blake%20Glover%20Trail.pdf.

Alexander McKay. 1993. *Scottish Samurai*. Edinburgh: Canongate.

Michael Gardiner. 2007. *At the Edge of Empire: The Life of Thomas Blake Glover.* Edinburgh: Birlinn.

———. 2011. “The Scot who shaped Japan”. *The Japan Times.* Tokyo: The Japan Times. Accessed October 15, 2021. https://www.japantimes.co.jp/life/2011/12/11/general/the-scot-who-shaped-japan/.

Takaaki Inuzuka. 2021. *Alexander Williamson, A Victorian Chemist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London: UCL Press.

Undiscovered Scotland: Thomas Blake Glover. Accessed November 12, 2021. https://www.undiscoveredscotland.co.uk/usbiography/g/thomasblakeglover.html

伊藤博文. 1936. 伊藤公直話. 東京：千倉書房

伊藤之雄. 2009. 伊藤博文. 東京：講談社

グラバー園公式ウェブサイト： グラバー園公式ウェブサイト
www.glover-garden.jp(検索日：2021.09.30.)
長崎市公式観光サイト：日本の近代化に貢献したグラバー
https://www.at-nagasaki.jp/feature/gaikokujinn/glover/(検索日：2021.09.30.)
三好徹. 2000. 史傳 伊藤博文. 東京：徳間書店

4 장

# 17 세기 동인도회사(VOC)와 동양의 만남: 도자기 무역의 국제정치학
## 아리타 도자기박물관/궁전

**정다연**
고려대학교

## 들어가며

도자기는 한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분야 특징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상품이다. 우리는 당대 도자기를 이용하는 계층별 사용법, 도자기 디자인, 거래 방식 등에서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도자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고고학적, 미학적 시각에서 분석되거나 도자기 공학, 도자사 시각에서 주로 분석되었다. 무역 시각에서는 각 분과학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되었다. 국제정치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기술·문화전파에 대한 연구는 무역사의 관점에서 도자기라는 재화가 어떻게 교류되었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다.

17 세기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와 동양, 즉 중국의 경덕진(景德鎭)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県),

이마리(伊万里)가 도자기를 매개로 했던 만남을 다루고자 한다. 17 세기는 서양 종교전쟁과 동양 명청 교체기라는 사건을 통해 동서양의 역동성을 띄고 있다. 이 중 도자기 무역은 동양과 서양이 각자의 역동성을 소화해내며 동시에 만남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면모를 묘사한다. 동양이라는 공급자와 서양이라는 수요자가 초기 산업 활동에서 어떠한 거래 양상을 띄고 있었는지, 당대 최고 기술을 반영하는 도자기 기술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서양과 도자기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이 명-청 교체라는 국내정치적 혼란기로 인해 그 지위를 놓쳤을 때, 동인도회사가 일본에 어떻게 접근하였고 일본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만, 도자기 무역에 대한 포괄적 추이가 아닌 대표적인 추이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인도회사의 도자기 무역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볼커(T. Volker) 의 자료와 동인도회사 다흐(Dagh) 문서(Registers)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당시 무역 규모의 일부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도자기 무역은 마닐라, 말라카, 시암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중국 개인 상인들에 의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동인도회사와 동양과 도자기 무역을 통한 만남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첫째, 세계화 시작단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7-18 세기 이후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도자기

무역시장이 만들어졌다. 원거리 항로를 따라 아메리카 대륙 까지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도자기를 통해 당시 정치경제적 환경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상품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의 요인이 만난 복합 상품이다. 셋째, 17 세기 시작된 동양의 근대적 거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7 세기 초반 일본은 쇄국 정책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과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일본은 나가사키를 열어 둠으로써 세계와의 교역의 여지를 남겨둔다. 특히 그 중 동인도회사와의 도자기 교역은 상당히 근대적인 거래 면모를 보인다. 17 세기 이전 중국과 서양이 도자기 무역을 하던 것과 비교할 때, 적극적인 소비자-생산자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중국과 서양의 도자기 무역

중국식 도자기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16 세기에 시작되어 네덜란드와 아시아가 만나게 되는 17 세기에 확연하다. 중국 요업지인 경덕진은 수세기 동안 세계 도자기 생산, 수출의 중심지였다. 경덕진에서의 도자기 생산은 이미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송나라 시기에는 '청화백자매병', 원, 명, 청 시기에는 '청화'를 생산하였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자기인 청화는 궁궐에서 사용되는 고급 자기

일종이었으며, 유럽, 이슬람권 등 해외 여러 나라에도 널리 수출되어 '차이나(China)'의 어원이 되었다.



**그림 1. 청와백자매병**

명나라 시기(1368-1644), 고급 도자기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명나라는 왕실 그릇 공급의 중심지가 되었고, 넘쳐나는 수출 시장의 수요량을 생산하였다. 경덕진은 명-청 교체기에 잠시 도자기 수출입을 닫았다. 하지만 청나라 시기(1644-1912)에 경덕진은 도자기 산업은 "황실 가마(imperial kilns)"이라고 불리며 재부흥하였다. 경덕진의 위상은 중국에서 도자기 기술을 배웠던 프랑스 신부 프랑수아 자비에르 당트르콜(François Xavier d'Entrecolles)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 그는 "경덕진은 전 세계에 (도자기를) 혼자 보급하는 영광을 누린다 "고 한 바 있다. 또한 17세기경 경덕진에는 수천 개

가마가 존재했고 도공만 5 만 내지 6 만명에 달했다고 추정한다. 도공들은 가족과 스승-도제관계에 기초하여, 밀도 있는 집단을 이루어 도자기를 생산했다.

17 세기 이전까지 중국은 도자기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도자기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 누렸다. 그러나 17 세기에 중국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주요 요업지인 경덕진의 수출 중단과 관요의 폐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유럽의 등장은 기존 도자기 무역 수급 구조에 균열을 가져왔다. 유럽이라는 소비자에게는 중국 도자기 생산 중단이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이라는 새로운 생산지의 등장과 수급 구조 다변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 일본 도자기 기술의 배경과 동인도회사의 진출 과정

17 세기 이전 일본에는 도기를 만드는 전통가마는 존재했지만, 고급 도자인 백자를 만드는 고령토와 기술은 부재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많은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기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도공 이삼평이 일본 도자기 산업의 기념비적인 인물로 남게 된다. 이삼평은 1616 년 아리타 이즈미야마(泉山)에서 백자를 만들 수 있는 고령토 광산을 발견하고 고온으로 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게 된다. 이로써 일본은 백자를 생산하게 되고, 동인도회사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특히 1658 년은 일본 도자기 무역의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했다. 경덕진의 일시적 폐쇄는 일본 규슈, 특히 일본 도자기의 주요 생산지였던 아리타 도공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먼저, 일본과 동인도회사의 수평적인 거래 관계는 주목할만한 점이다. 동인도회사가 일본 쇼군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쇼군이 받은 선물 항목 중 도자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도자기는 중요한 해외 교역품이었고, 일본에서도 도자기는 주요 물품 8 가지 중 3 위에 있던 물품이었다(Van Dam). 이를 통해 일본 도자기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었지만, 동인도회사는 중국과의 무역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을 택했고, 일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은 물론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640 년도부터는 일본에서 거래되는 중국의 도자기 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되다가, 1651 년이 일본 도자기 무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가 되었다. 중국의 도자기 공급이 중단되고, 서양으로의 일본 도자기 공급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658-1659 년도를 기점으로 일본 도자기가 동인도회사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대량 수출이 시작되었다. 특히, 1659 년에 중국의 샤먼(廈門)으로 일본의 도자기가 대량 수출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 샤먼은 기존 중국 도자기 수출의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데지마의 기록(register)에서 동인도회사와 일본 거래의 근대적 모습을 알 수 있다. 기록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수도인 바타비아(Batavia)와의 첫 거래였기 때문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일본과 동인도회사는 단순한 도자기 상품 무역을 떠나, 가격 조정, 디자인 요구 등의 구체적인 주문과 이를 수정 및 수락하는 방식을 취한다. 1655 년 데지마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령 포르모사에 도착한 선하증권(Bill of landing)에서 일본 자기 종류의 다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동인도회사로 작은 도자기 약병(small porcelain phials)이 수출되었는데, 기존 도자기의 형태, 용도와는 상이한 새로운 도자기 무역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자기 가운데 ‘VOC’가 새겨져 있는 17 세기 아리타 도자기**

일본과 동인도회사의 활발한 무역에도 불구하고 위 시기를 동인도회사의 일본 진출과정으로 생각해야한다. 동서양의 도자기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655 년

나가사키 항구에 도착한 37 개의 중국 범선에서는 일본에서 혹은 일본으로 수출 혹은 수입된 도자기는 없었지만, 615 개의 도자기 물감(porcelain paint)이 일본으로 수입된 바를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유일한 도자기 공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656 년 일본은 역설적으로 네덜란드에 "네모 모양으로 구워지고, 높이 6 인치 너비 4,5 인치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네덜란드 도자기(Dutch earthenware)판매"를 요구한 바 있다.

## **일본과 동인도회사의 무역 과정**: 1662~1682

1651 년, 일본 도자기가 서양에 수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0 년 뒤인 1661 년부터 일본의 도자기 무역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전까지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서양으로 중저품 도자기만을 수출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은 동인도회사에 고급 황실 도자기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프랑스 신부 프랑수아 자비에르 당트르콜(François Xavier d'Entrecolles)의 말을 빌리자면, 고급 도자기를 혼자 보급하는 중국의 영광을 이제는 일본이 누리게 된 셈이다. 또한 1668 년부터 일본은 해외 도자기 국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수입 전면 중단에는 도자기 뿐만이 아니라 도자기 제작을 위한 재료, 물감 등 모든 물품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독점적 지위는 1680 년대 경덕진이 정상화되면서 마무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17 세기 말~18 세기 초반

차이니즈 이마리(Chinese Imari) 양식이 유럽에서 유행한 것에서 일본 도자기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차이니즈 이마리는 유럽의 수요에 의해 중국 자기가 일본 자기를 모방한 양식이다.



**그림 3. 차이니즈 이마리 양식의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는 향후 유럽 도자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 도자기 생산의 선발주자인 독일 마이센(Meißen)은 유럽 최초로 백자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도자기, 특히 가키에몬(柿右衛門) 양식의 자기에 심취해있던 아우구스트 1 세의 집요한 투자와 관심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림 4. 가키에몬 채색 호랑이 매화무늬 접시**

## 마치며

17 세기의 도자기 무역 시장의 변화는 전체 도자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주요 공급자였던 중국 내부 혼란으로 인해 도자기의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새로운 수요자인 동인도회사가 도자기 시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일본이 구조적 공백을 기회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내 새로운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다만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관요와 더불어 인근의 민요까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고급 도자기 중심으로 요업지가 형성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동인도회사가 종종 불평했듯이 그 시대의 일본 도공과 상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 이마리 도자기는 일본이 도자생산의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양식을 유행시킨 바 있다. 붉은색의 채색자기와 차이니즈 이마리 양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중국의 내부 정치적 혼란기, 동인도회사라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의 안정적 연결, 선택적 쇄국정책으로 구조적 공백을 활용함으로써 도자기 시장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주경철 / Kyung Chul Jou. 2005. “특집 : 세계화의 역사와 패권 경쟁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교역: 세계화의 초기 단계.” 미국학 / American Studies 28 (December): 1.

Butlin, R. 2003. “Trading Places: The East India Company and Asia 1600-1834.” GEOGRAPHY 88 (January): 83.

Finlay, Robert. 2007.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iu, Y. 2022. The Dutch East India Company's Tea Trade with China 1757 - 1781. Vol. 6. TANAP Monographs on the History of Asian-European Interaction. Brill Academic Publishers. Accessed January 17.

Gunn, Geoffrey C. 2011. History Without Borders: The Making of an Asian World Region (1000–1800). Hong Kong University Press. doi:10.5790/hongkong/9789888083343.001.0001.

H., Latham A J, and Heita Kawakatsu. 1994.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Edited by John Latham and Heita Kawakatsu. London: Routledge.

Huetz de Lemps Christian. 1973. "Volker (T.). —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1602-1682). 1971." Cahiers d'outre-Mer 26 (102): 219–21.

Jörg, C. J. A. 1982. "Porcelain and the Dutch China Trade."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Dordrecht.

5 장

# 이홍장, 해악연하(海岳煙霞)에 맞서다
## 시모노세키 일청 강화기념관

**한이임**
성균관대학교

## 들어가며

### ‘한간’으로서의 이홍장

이홍장은 19세기 후반 청나라 대신으로, 청일전쟁이란 단일한 사건에서는 조선을 두고 일본과 청일전쟁을 벌이고 청일전쟁 강화회담에 파견되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중국의 군사가이자 외교가이다. 군사가로서 그의 지위에 대해, 양계초는 청일전쟁 대패에서 이홍장의 권위의 실추를 확인하였다는 평을 남겼다. 이러한 평가는 청나라의 청일전쟁 대패라는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근거 있는 평가로서 여겨진다. (양계초 2013, 189) 한편 외교가로서 그의 입지는 후세에 논쟁이 분분한 주제이나, 그의 사후 중국에서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한간’이란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한간(漢奸)이란 중국 청나라 때에 한인으로서 만주인과 내통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홍장에게는 사후 매국노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그가 청나라 대신으로서 체결한 '굴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영토 할양과 배상금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한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거침에 따라 이홍장의 양무운동 정신이 재조명받으며 그가 사실은 청나라의 현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도모한 애국자라는 평가를 통해 일부 상쇄되었다. (신동준 2017, 350) 그러나 이러한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조차 외교가로서 그의 입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양계초는 외교가로서 이홍장의 실책을 맹렬히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홍장의 시대를 사실상 중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이자 대외교섭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평가하며, 특히 청일전쟁 관련해서는 일본은 중국의 이홍장 하나와 전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초 2013, 185-189)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의 전권대신으로서 이홍장의 협상 과정과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과정을 담은 verbal discussions과 이홍장에게 맞서는 일본 측 대신인 이토총리와 무쓰 무네미쓰의 언동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 대한 이홍장의 선택재량과 외교전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체결 당시 청·일 관계가 수직적이었는지 수평적이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즉, 당대 청나라가 일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국가적 열세의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이홍장에 주어진

선택재량은 크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에게 공격적인 외교전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그는 방어적인 외교전략을 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시모노세키 회담이 진행되기 직전의 전시 상황과 회담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양 국가 중 휴전에 더욱 절박한 국가는 국가적 열세 상황 속에 놓인 것으로 분석할 것이다.

### 시모노세키 조약의 배경

청나라는 조선에서 있었던 전투인 평양 전투, 성환 전투, 황해 해전 그리고 청나라 본토에서 발생한 요동 전투, 웨이하이웨이 전투에서 모두 패퇴하였다. 청일전쟁에서의 계속된 패배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히로시마 회담을 거쳐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 과정은 크게 정전(armistice)협정과 평화협정(peace negotiation)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후, 패전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청나라의 휴전 요청에 응하여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체결 당시 양 국의 조약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극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휴전을 제의하는 것과 동시에 청나라는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조약 체결에 더욱 절박했던 것은 청나라이며 결국 청나라가 국가적 열세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추론된다.

## 충돌과 전략 그리고 충돌

### 청·일 간 지속된 악연

청일전쟁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나라와 일본 양국 간에 발생한 전쟁이나, 그 본질은 조선 반도에 대한 영향력 파이 분쟁의 성격을 가진다. 조선을 속국으로 여겨온 청나라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대해 갖는 전통적인 지위를 지키려 했고,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눈을 돌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가지는 파이를 나누어 차지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패권국인 청나라와 부상하던 국가인 일본 간의 다툼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촉발시켰다. 1882년 임오군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세를 점한 청나라는 이후 조선과 서양 열강들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였다. 한편 1884년의 갑신정변은 청나라가 일본의 욕심을 또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갑신정변 정국으로 인해 출병한 군대를 철수시키고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상호 통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톈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방의 무력행사를 경계하였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자 조선은 이의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파견되자 일본은 톈진조약에 근거하여 자국의 군대도 파견하여 조선반도에서 청일은 또다시 대치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후에도 주둔하여 조선-청나라 간의 통상무역장정을 폐기하고 조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는 양국이 무력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시켰고 이는 곧 청일전쟁으로 발전되었다.

### 청·일의 전략적 사고

국가적 열세 상황에 취해있는 청나라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넓지 않았다. 조선에 대한 오랜 대치 상황은 청나라가 청일전쟁의 패배를 앞두고 조선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파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또한 외견상으로도 청일전쟁은 조선의 내부 분쟁에서 기인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로서는 조선의 자주국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며 '결자해지'적 해결방식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나라의 전략 상, 상대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인 조선의 지위 문제는 제쳐두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 배상금 문제를 거론하여 그 액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영토 할양 문제의 경우, 할양을 거부해보되 거부되지 않는다면 할양 년수 또는 할양 지역을 조정해보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청나라가 먼저 회담을 제시하기 이전에 메이지 27년 11월 6일 동경주재 미국공사인 댄은 미국 정부가 양 국간의 우의적인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감지한 미국의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경계해야할 서양의 열강은 미국뿐만이 아니었으며, 일본에게 청나라와 회담을 성공리에 완료한다는 것은 회담 이후와 이전 모두 제 3국의 교섭을 사전에 방지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쓰 무네미쓰 2020, 235)

청일 전쟁의 계속된 승리는 일본 국내여론을 자극시켰고, 일본 내부에서는 청국이 스스로 항복을 해오며 화의를 청해올 때까지는 진격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라는 이른바 대외강경파의 주장이 득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가 회담을 제의하자 이토총리와 무쓰 무네미쓰는 청국이 성실하게 평화를 희망해올 때까지 요구할 조건을 감추어두고, 모든 사태를 일청 양국 사이에만 제한시켜 제 3국이 사전에 어떠한 교섭도 해올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히로시마 담판이 청나라 사신의 전권위임장 조건 불비로 결렬되자 서양 열강은 일본이 이러한 구실로 담판을 거절한 것이 아닌가라며 도리어 일본의 야욕을 의심하였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일본의 제 3자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도록 여지를 없앤다는 방침이 위태롭게 되었다. 국외 여론에의 의식으로 열강들의 시각을 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이토 총리와 무쓰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시모노세키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陸奥宗光 2020, 246)

간섭이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시점에서 (후지무라 미치오 1997,

208) 국외 여론에의 의식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일청 양국은 정전 조건을 논의하며 맹렬히 부딪혔는데, 이홍장의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결국 청나라가 원하던, 일본이 원하던 유리한 휴전 조건이 없는 정전 협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홍장은 총격 사건 이후 자신이 흘린 피가 조국을 위한 피라는 것을 직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무쓰 무네미쓰의 '건건록'에는 이홍장의 총격 사건을 '쓸데없이 외면적으로만 확대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우리들의 언행이 허위적인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우리측의 중용적인 태도가 의심받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쓰 무네미쓰 2020, 260) 즉, 무쓰는 무엇보다 총격 사건으로 통해 마주할 서양 열강의 불온정한 태도를 문제시하였으며 그는 이러한 국외 여론을 무마할 방법이 일본이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일인, 이홍장이 간청한 휴전을 무조건 허락해주는 것이라고 보았고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 조약 체결 당시의 충돌 쟁점

시모노세키 조약의 verbal discussions와 이홍장과 무쓰 무네미쓰 그리고 이토 총리 간의 문서 교환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었으며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 2조(배상금)와 제 4조(영토 할양)의 문제였다. 이홍장은 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청나라의 경제적 상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임을, 후자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감당해야할 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청나라의 국가적 열세 상황에서 이홍장이 이 두가지 충돌 쟁점을 어떠한 전략으로서 설파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노력이 조약 결과에 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다.

## 시모노세키 조약 조항의 검토

### 충돌과 비충돌

앞서 언급한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조약 조항이 국가적 열세 상황에 처해있던 청나라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만약 조항이 청나라가 제안하여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조약에 반영한 경우 이는 충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가 먼저 제안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논쟁을 계속해왔다면 그 조항은 충돌을 빚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돌을 설정하는 두번째 기준은 시모노세키 조약의 1차 자료인 verbal discussions과 이홍장과 일본측 대신들이 주고받은 문서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며 양 국가 간의 입장 차가 현저히 눈에 띄는 경우이다.

청나라는 강화조건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배상금 문제는 조약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쟁을 빚는데 반해, 조선 독립국 인정 문제는 verbal discussions에서도, 이홍장의 강화조약에 대한 회답에서도 양 국가간 입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verbal discussions에서는 평화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하며 중국측 대신들이 배상금 문제와 영토 할양 및 군사적 점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안건을 제출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서 중국 측 대신들이 조선 독립국 인정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 Tientsin press 1895, 13) 또한 강화조약에 대한 회답에서 이홍장은 '청국은 수개월 전에 조선은 완전무결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는 뜻을 언명한 바 있으며, 이번 강화 조약 중에 이를 기재하는 것도 이의가 없다'라며 조선 독립국 인정 조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시모노세키 제 2조(배상금), 제 4조(영토 할양)를 충돌의 영역으로, 시모노세키 제 1조(조선 독립국 인정)을 비충돌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전자에 관해서는 이홍장의 외교전략을 후자에 관해서는 충돌 부존재의 이유를 중심으로 서술해볼 것이다.

### 시모노세키 조약 제 2조, 제 4조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며 주요 충돌 쟁점이 되었던 배상금과 영토 할양문제를 다투는 회담의 verbal discussions을 읽어보면 이홍장이

애절하다 못해 처절하게 동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토를 “past-masters in severity”라고 부르는 등 그의 외교적 자비를 촉구하고 (The Tientsin press 1895, 18), 이홍장 본인의 국내적 위신을 이유로 “I must at least save a hair” 즉, 동정을 베풀어달라며 일본을 회유하는데 절박함을 보였다. (The Tientsin press 1895, 18)

그러나 그가 동정만으로 일본을 회유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홍장은 일본이 서양 열강의 간섭을 배제시키는데 최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일본의 무리한 요구, 주로 영토 할양, 는 서양 열강들의 관심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이 간섭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회담 내내 이토 총리와 이홍장은 자국의 논리가 서구의 국제법, 관습에 더 부합하는가 입증하기 위해 설전을 펼치는데, 이홍장이 비록 마지막 회담에서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 및 관습에 대해 답답함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일본의 논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본이 취하는 서구의 국제법적 논리를 따라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The Tientsin press 1895, 26)

하지만 이홍장의 외교전략은 결국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홍장과 협상하기에 앞서 일본은 이미 서양 열강의 간섭을 예측하여 조항의 내용을 결정한 후였으며, 이홍장이 서구의 논리로서 청나라의 배상금을 감축하고 영토 할양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피력해도 일본은 이미 주어진 조건은 일본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며 이로 인한 서양의 간섭은 일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 시모노세키 조약 제 1조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시모노세키 조약 제 1조는 청나라의 조선 내정간섭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향후 일본의 조선영토 진출해도 기여했는바, 이는 명백히 일본에게 우호적인 성격의 조항인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홍장이 이러한 1조를 수정 요구 및 문제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이의 답으로는, 첫번째 그가 당대 국제정세에 무지하여 이 조항으로 인해 야기될 미래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것 또는, 두번째 이홍장이 조선 독립국 인정문제가 타협 불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하여 일찌감치 포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첫번째, 이홍장이 당대 국제정세에 무지하여 이 조항으로 인해 야기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계초는 '이홍장 평전'에서 이홍장의 국제법 무지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인 양계초의 관점에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으나 이홍장의 '자주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무지와 그에 따른 조선 수교의 묵인은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양계초 2013, 183-185) 또한 양계초는 이홍장이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톈진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서양의 대국 프랑스도 중국에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 동양의 소국 일본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만과 무지를 지적하였다. (양계초 2013, 199)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 상에서 이홍장의 시모노세키 조약 1조의 체결은 이홍장이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청나라가 휴전을 제의하면 조건을 보내올 때 무쓰는 이에 대해 '이러한 조건은 그들이 제시할 수 있었던 가장 염가의 조건을 골라 보내왔던 것'으로 설명한다. (무쓰 무네미쓰 2020, 217) 즉, 당시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조선의 지위 문제였으므로 독립국으로 조선을 설정한다는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홍장 또한 조선을 독립국으로 설정하는데에서 오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그렸을 것이다.

Verbal discussions을 살펴본다면 조선의 문제는 대만 할양 문제와 함께 거론되어 한번 언급된다. 이토 총리는 조선인은 일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대만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We are about to attack Formosa" 즉, 대만 영토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The Tientsin press 1895, 10) 대만 영토에 관한 계속된 마찰은 청나라가 조선보다는 영토 문제에 더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것도 이홍장의 실책에 관한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두번째, 조선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이 포기하지 않을 vital interest에 포함되어 이홍장이 협상을 포기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청일전쟁은 조선반도에 대한 청일 간에 발생한 첫번째 갈등이 아니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청일 간의 오랜 분쟁과 청나라의 국가적 열세 상황은 이홍장이 당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상을 위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전통적 지위를와 영향력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을 것이다. 즉, 배상금 문제에서는 청나라의 경제가, 영토 할양 문제에서는 청나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지위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이홍장이 당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그가 일본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영국과 러시아에 중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전쟁 후 일본에 사절로 가기 전에 먼저 각국 공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는 서양을 끌어들여 청나라가 처한 국가적 열세 상황을 극복, 또는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려진다. 또한 시모노세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홍장은 일본을 넘어서 서양의 세력들에 대한 분석도 늦추지 않았는데, 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일본 관민이 나의 조난에 대해 통석의 뜻을 표하는 것은 외면을 치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입증된다. (신동준 2017, 345-351)

양계초는 이홍장의 외교전략에 대해 주로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또 다른 국가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양계초 2013, p238)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제 3국을 끌어들여 당장 청일 양국의 회담에서는 조선반도를 포기하되, 일본의 야욕을 경계하는 서양을 자극함으로써 청일 간의 충돌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후 삼국 간섭은 현실화되었고 일본은 할양된 산둥반도를 청나라에 되돌려주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는 이홍장의 통찰력이 일정 부분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가며

청나라가 패퇴하기 일보직전인 청일전쟁의 전시상황은 객관적으로 청나라가 일본에 대해 국가적 열세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배상금 문제 등을 거론하여 휴전회담을 먼저 요청한 청나라의 모습은,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국가적 열세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여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시모노세키 회담의 청나라 측 전권대신이었던 이홍장에게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공유되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시모노세키 조약 조항을 충돌과 비충돌도 분류하여 각각의 조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국가적 열세 상황 속에서 타협의 여지가 존재하는 조항에서만큼은 일본의 이해를 구하여 수정을 가하고 제 3국으로 하여금 일본이 과한 이득을 쟁취하는 것을 경계토록 한다라는 전략을 세운 청나라와, 제 3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은 일본 간에는

청나라가 이의를 제기한 조항에만 한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충돌'에 해당하는 문제는 배상금, 영토할양 문제로, 이홍장은 일본의 '대원칙'을 파악하여 적절한 외교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일전쟁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며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오랜 패권 다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양계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주독립국이란 용어에 대한 이홍장의 무지와 청나라 국력에 대한 그의 오만은 한반도 문제를 다룬 시모노세키 제 1조가 충돌없이 체결되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홍장이 서양 열강들이 이권침탈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제 3국을 이 사건에 포함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더라도 청나라의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배상금 영토할양 조항은 타협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홍장은 국가적 열세 상황에서 청나라의 외교전략의 폭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인지하고 타협의 여지가 존재하는 조항에서만큼은 타협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홍장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가적 열세라는 상황이 그의 외교전략으로 타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홍장보다 100배나 좋은 외교술이 좋은 외교가가 있다하더라도 당시 청나라가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며, '한간'이란 그의 사후 평가는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사건에서도 재고의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양계초. 2013. 리훙장 평전. 박희성, 문세나 역. 프리스마.

무쓰 무네미쓰. 2020. 김승일 역. 종합출판범우.

신동준. 2017. 인물로 읽는 중국 근대사. 인간사랑

후지무라 미치오. 1997. 청일전쟁. 허남린 역. 소화

The Tientsin Press. 1895. “VERBAL DISCUSSION DURING PEACE NEGOTIATION BETWEEN THE CHINESE PLENIPLOTENTIARY VICERY LI HUNG-CHANG AND THE JAPANESE PLENIPOTENTIARIES COUNT ITO AND VISCOUNT MUTSU AT SHIMONOSEKI, JAPAN.” The peking and Tientsin times.

#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2050: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system and order

**Kyushu National Museum**

**Seungpo Sohn**

Korea University

## Introduction

Amidst the relative decline of U.S. hegemony along with the faltering European economy, a consensus seems to have been reached among the western elite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in crisis. There existed three historical moments that in fact, foreboded this predicament in 2008, 2016 and 2020 respectively. The first is the 2008 financial crisis that not only devastated the U.S. economy but triggered the outbreak of European debt crisis. This discombobulation discredited the reliability of western capitalist model among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engendered confidence in Chinese political leaders of their

domestic political model. The second is the concurrence of Brexit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2016 which impaire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from its very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drop ou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pursue protectionist trade policy and prioritize alleged American interests at the expense of its traditional allies epitomize his anti-liberal policies. The last is the coronavirus pandemic in 2020. The failure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 promptly tackling the global health crisis and the nationalistic behaviors states manifested in securing vaccines speaks to the retraction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dditionally, the stark contrast in Western countries' mismanagement of the pandemic with the Chinese government in terms of its casualties have come to embolden China of its political model. This self-assurance was then, often translated into diplomatic adventurism that makes many to doubt the peaceful rise of China.

When authoritative institutions estimate China to overtake the U.S. economically by approximately 2030, the kind of international order that will unfold with Chinese supremacy deserves much scholarly analysis(Hawksworth and Chan, 2015; Dadush and Stancil, 2010; CEBR, 2020). To be more specific, whether China

would overturn the current U.S. 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even, engage in a hot war need to be examined. In the first part, I discuss two major approaches in assessing the nature of the rise of China. Secondly, I lay out future predictions projected respectively by the two approaches along with their limitations. Lastly, I suggest the need for a multi-lensed perspective and end with a short-term and long-term prospect on the future of U.S.-China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system.

## Engagement vs Containmen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ubsume the diverse academic debates revolving the rise of China into two categories of *engagement* and *containment,* it still offers us a vantage point in readily understanding the discussions hitherto advanced.

### Engagement

From Nixon's détente to Clinton's "integrate but hedge" and Obama's "constructive engagement," the U.S's foreign policy vis-à-vis China rested on the idea that the country will politically liberalize as integration to the international order proceeds. It was based on the foundational belief that China would gradually

evolve into a democratic state with the burgeoning middle class and eventually, transform into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international stage. As rightly suggested by Elizabeth Economy, "engaging China equated with changing China (Bitonus, Price and Economy, 2020)."

It was the liberal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at provided academic discourses for the thirty years of *engagement*. The liberal institutionalists contended the rise of China would not result in the collaps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China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e U.S. led international order. China is on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United Nations, and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th the rights to fully take advantag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DSP). Considering that China owes much of their meteoric economic growth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underwrites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free trade, it is nonsensical to assume that China would seek for global hegemony and upend the status-quo. In short, any efforts to upset the liberal institutions would only adversely affect herself.

One of the most profound of the liberal institutionalist scholars is John Ikenberry who proposed to accommodate China within the Western order (Ikenberry, 2008). Only through

reinvestment and engagement that facilitates Chinese integration can the Western order persist to survive even after the fall of U.S. unipolarity. In other word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ll survive despite shrinking U.S. leadership for the rising "rests" are already too deeply embedded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kenberry, 2018). When traditional "power transition" that involves destructive wars is unthinkable in the age of nuclear, the future of liberal internationalism hinges upon whether the U.S. and its old allies can reform the existing institutions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an increasingly multipolar world (Ikenberry 2018). Nye also cautioned U.S. from overestimating the might of China and claims the *containment* model is not the proper strategy for one who lacks intent for global hegemony (Nye 2015, 2017). Rather, he maintains that the two giants have much to gain from cooperation than conflict, particularly in transnational issues of global capital market, climate, cyber-terrorism and the pandemics. Areas of interdependence such as trade and education –research and talent—further incentivizes the two to coordinate their policies in produc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rather than focusing on balancing against the ascending China (Nye 2013, 2020).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advent of China's new paramount leader, Xi Jinping, heralded an era of reinforced

political grip of the Communist Party with strengthened social censorship, Nye warns the deleterious effects of exaggerated fear. Ungrounded fears would only increase the chances of bilateral relation culminating into the "Thucydides Trap." This in part, reflects the confidence in na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as Nye predicts the unipolarity of U.S. in the realm of military to persist for a while. The U.S. still enjoys unmatched financial power with dollar functioning as the world's dominant reserve currency and boasts its geographical advantages with friendly neighbors and demographic strengths with rising working forces. Also, U.S. stands at the forefront i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bio, nano, and information— while its cultural glamor attracts global talents. Observing that China, despite being the second largest economy, suffers from great income disparity, geo-political insecurity, poor soft-power and aging population, U.S. would continue to function as a global unipole. Thus, it is not "Thucydides Trap" that we should be wary of, but the "Kindleberger Trap" that America should heed more where China refuses to contribute to an international order (Bitonus, Price and Nye, 2020).

**Containment**

It was Graham Allison who popularized the term "Thucydides Trap," which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n emerging power seeks to displace the established great power as regional/international hegemon (Allison, 2017). The Greek historian, Thucydides, attributed the Peloponnesian war to two causes: the rise of new power and the fear that it instills in pre-existing hegemon. The historical analysis from the Harvard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demonstrated 12 of 16 cases in which a rising power confronts a ruling power ended in bloodshed warfare. Although four of the cases eschewed conflicts, it required painstaking efforts of adjustment, coordination, and adaptation on both part of the challenger and the challenged. Frustrating is the fact that the ascendance of China is likely to follow the past trajectories that resulted in conflicts when observing the absence of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Allison, 2015).

While Allison cautiously left room for a possibility to avoid U.S.-China rivalry from intensifying into a war through means of communication, Mearsheimer adamantly insisted 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Realpolitik—based on balance of power. This means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ll be

replaced with a realist international order as the economic dynamism from globalization turned China into a superpower, seriously eroding the unipolar supremacy of the United States (Mearsheimer 2019). He notes letting China to grow as potential competitor of U.S. through its accession to the WTO was a major mistake of U.S. foreign policy. It has thus, become natural to assume that a severe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China, who achieved regional hegemon in East Asia, and the U.S.(Mearsheimer, 2010).

Against this backdrop, voices for a chan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have been made that demands U.S. to discard their "hopeful thinking" of Chinese democratization and adopt tougher strategy by recognizing China as a strategic rival. Aaron Friedberg, for example, called for enhanced balancing, constrained engagement and increased domestic welfare as countervailing strategies to the increasingly assertive China(Friedberg, 2018). Robert Blackwill added the optimism that prevailed in the White House during the past two decades and the ensuing misunderstandings of China's ambition to become a hegemon in Asia, and in time the world, ranks one of the most damaging U.S. foreign policy error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Blackwill, 2019). He argued the Trump administration's turn from

past *engagement* to *containment* deserves credit in recognizing the rise of China as a threat to U.S. national vital interests.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C) released a Special Report that points out how the past efforts to embrace China within the international order have come to intimidate the U.S. primacy in Asia—and consequentially of the world— and that a major revision to the grand strategy of U.S. foreign policy is necessary (Blackwill, 2015). In betrayal of a longstanding wish of the White House in morphing China into a responsible stakeholder of international order, the primary foreign policy objective of Beijing now lies in weakening the military alliances of U.S. in Asia, undermining American authority, confidence and legitimacy in international order and ultimately challenging the American global hegemony. This le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prescribe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perceiving her as a threat with a deliberate intention to capsize the U.S. 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United States, 2017).

## Limitations of Liberal and Realist Ideas

The current scholarly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rise of China and its implications on the international order, although

entail partial truths, fail to capture the whole picture of U.S.-China relations. Dogmatic focus on purely liberalist or realist view hampers one from confronting the complex reality but leads one to a parochial ed understanding of the bilateral relations. In short, both the liberal and realist discourse result in simplistic projections of future international order and distribution of power.

First, perceiving the increasing assertiveness of China, it is naïve for the liberalists to think that China lacks capability or is absent with the desire to assume global hegemony and upe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ee, Kuan Yew has elucidated this point clearly that "it seems certain that China's GDP will overtake that of the U.S. within the next decade or two. It is China's intention to be the greatest power in the world (Lee 2011)." China's refusal to accept the Hague Tribunal's South China Sea ruling, continued territorial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sta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South China Sea, military confrontations with the U.S. regarding the Taiwan issu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mmitted in Xinjiang and Hong Kong patently speaks on behalf of their antipathy and disaffection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s Allison neatly put it, "with the arrival of Xi Jinping, the era of 'hide and bide' is over (Allison, 2015)." China has become more repressive in the inside and more

expansionist to the outside.

China's ambition to supplant the U.S. led international/regional regime has been most conspicuous in the realm of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promotion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launch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l testify to China's aim to supersede the current economic order.

Nevertheless, it would also be inaccurate, for the realists, to expect the coming of a new Cold War era where containment is the sole policy tool to utilize. I believe the U.S.-China rivalry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Cold War in four main fronts: 1) an intense ideological competition over the superiority of a state-model is still absent. Although China has recently embarked on a number of projects to enhance its soft-power and national image, the attractiveness of Chinese state model, culture, and idea lags far behind those of U.S. This makes it highly unlikely the formation of two bounded blocs of international order that is led by the U.S. and China respectively; 2) a full-scale arms race in nuclear developments that defined the Cold War era is absent between the U.S.-China relations. The nuclear superiority of the U.S. is rather explicit, suggesting that the unipolarity of U.S. in the realm of

military would continue for a while despite the increasing multipolarity in the realm of economy (Heginbotham, 2015); 3) the U.S. and China are closely interconnected particularly in areas of trade, finance, and global supply chain while the Soviet Union and the U.S. rarely experienced economic intercourse. Disruptions in global value chains for instance would thus, harm the economy of both countries while China's dollar trap speaks volumes for bilateral interdependence in global capital market; 4)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demands that the two collaborate. Failure to work together would only give birth to a catastrophic outcome that will seriously disfigure the civilizations humanity have constructed .

## Future Projection

Then, what kind of future would unfold in coming decades? I suggest that a complex international order would emerge where aspects of 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ll co-exist. By adopting a multi-lensed approach that can envision a concurrence of multitudinous order, it is possible that we project different international system to take place depending on different dimensions of power: military, economy and transnational issues

(Nye, 2011).

Primarily, the U.S. unipolarity in the military realm would continue at least until mid-2030's. Although China would overtake the U.S. in terms of its size of economy, China would need additional time to translate their accumulated wealth into substantial military power. The military modernization project is scheduled to finish in 2035, implying that reaching military power parity with the U.S. would take more time than economy. Research exhibits a blatant asymmetry in nuclear power with U.S. considered to possess 5550 nuclear warheads compared to China's 350 nuclear warheads (SIPRI, 2021). Furthermore, the military spending of the U.S. and China exhibited a three times difference with the former laying out 778 billion U.S. dollars($) and China investing 252 billion dollars. The U.S. accounted for 39 percentage and China accounted for 13 percentage of the world's aggregate military expenditure (Silva, Tian and Marksteiner, 2021).

If China succeeds in expanding their nuclear capability up to holding 1000 deliverable nuclear warheads by 2030 as anticipated by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continue the level of military spending at the current rate of 1.7 percentage of their GDP, it is by 2050 that China would reach a parity in military power with the U.S. (DOD, 2021). This means in other words that

that a conflicting bipolarity is unlikely to unfold earlier than 2030 where U.S. primacy would last. Areas such as the South China Sea and Taiwan could still function as a flashpoint with the potential of bounded conflict developing into a battle. Tensions would persist yet controlled within a managerial level. It would then be by 2050 where China consummates their project in building an army "that can win" where China would risk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S. Thus, to regard China as an imminent military threat capable of challenging the U.S. is an overstatement.

Secondly, it is evident that China would becom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player in the realm of economy but also a rivaling competitor of U.S. trying to institute alternative economic regime. Based on the economic prowess that surpasses that of the U.S., China would not hesitate in continuing and embarking on new bold initiatives to displace the U.S.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re classic examples of China's ambition in founding institutions to supplant U.S. hegemon in East Asian economy. Each has been pursuing their own vers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t the exclusion of its competitor for control of both membership and the agenda

(Hamanaka, 2014). As the economic power of China is expected to achieve parity as early as 2030, a fierce competition over shaping the rules of international commerce would further intensify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5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o securing safe supply chains of semiconductors. The competition would escalate as multipolarity unfolds by 2050 where major players include China, the U.S., India, the EU, Japan, and Brazil.

Lastly, in the realm of transnational issues, the power would be diffused to a magnitude where it is difficult to pinpoint a single major actor by 2050. The U.S and China has already embarked on coordinating their policies in this non-conventional area of power and the European Union is playing a pioneering role in environment. In short, from a status quo of U.S. unipolarity and dominance in every three realms of power, a U.S. unipolarity would persist militarily while a competitive bipolarity would unfold economically, and a more pluralist order would ensue by 2030. By 2050, U.S. military predominance would end and a confrontational bipolarity where China challenges the U.S. would begin while a competitive multipolarity would follow in the realm of economy. The power would be loosely diffused over many countries in transnational issues for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every member state of United Nations to tackle the problems. The figure below summarizes the points.

## Conclusion

Despite flooding literature assessing the nature of China's rise and the prospects of East Asia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der, dearth in imagination often results in their failures in capturing the complex characters in Sino-U.S. relations. Diverse regional orders and systems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A unipolar world system can contemporaneously exist with a competitive multipolarity by dividing dimensions of power. This means that although military primacy of U.S. would survive in the coming decade, U.S. would have to confront fierce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realm of economy while concurrently, the two giants would have to coordinate policies to tackle transnational problems.

| | **Status-quo (2021)** | **Short-term (2030)** | **Long-term (2050)** |
|---|---|---|---|
| **Military** | U.S. Unipolarity | U.S. Unipolarity | Confrontational Bipolarity (China-U.S. parity) |
| **Economy and Technology** | U.S. Unipolarity | Competitive Bipolarity (China-U.S. parity) | Competitive Multipolarity |
| **Soft power and Transnational Issues** | U.S. Unipolarity | Lessened form of unipolarity with increased plurality | Diffusion of Power |

## Bibliography

Allison, Graham. “The Thucydides’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2015.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5/09/united-states-china-war-thucydides-trap/406756/.

———.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Bitonus, Leah, Jonathan Price and Elizabeth Economy. “Reimagining Engagement.” Chapter 3. In *The Struggle for Power: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41-52.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2020.

Bitonus, Leah, Jonathan Price and Joseph Nye, “The Rise of China.” Chapter 12. In *The Struggle for Power: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133-140.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2020.

Blackwill, Robert, and Ashley Tellis.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Council Special Report No.72.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2015. https://www.cfr.org/report/revising-us-grand-strategy-toward-china.

Blackwill, Robert. *Trump's Foreign Policies Are Better Than They Seem.*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9. https://www.cfr.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CSR%2084_Blackwill_Trump.pdf.

CEBR.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A world economic league table with forecasts for 193 countries to 2035.* London: CEBR, 2020.

Dadush, Uri and Bennett Stancil. *The World Order in 2050.*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0.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Virginia: Department of Defense. 108-112.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Friedberg, Aaron. "Competing With China." *Survival* 60, No. 3 (2018).

Hamanaka, Shintara. "TPP versus RCEP: Control of Membership and Agenda Setting."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8, no. 2 (2014): 163-186.

Hawksworth, John and Danny Chan. *The World in 2050: Will the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continue?* London: PwC, 2015.

Heginbotham, Eric et al. "Scoreboard 10: U.S. and Chinese Strategic Nuclear Stability." Chapter 12. In *The U.S.-China Military*

*Scoreboard: Forces, Geography, and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285-319. California: RAND Corporation, 2015.

Ikenberry, John.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87, no. 1 (2008): 23-37.

———. "Why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ill Survive."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32, no. 1 (2018): 17-29.

———.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4, no. 1 (2018): 7-23.

Lee, Kwan Yew. "China's Growing Might and the Consequences." *Forbes*. March 9, 2011. https://www.forbes.com/forbes/2011/0328/billionaires-11-current-events-lee-kuan-yew-china-consequences.html?sh=313e5ad037fe.

Mearsheimer, John.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43, no. 4 (2019): 7-50.

———.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3, no. 4 (2010): 381-396.

Nye, Joseph. "Are we seeing the end of American liberal order?" *The*

*Graduate Institute of Geneva, June 16,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nNctr5T3t8k&t=2932s&ab_channel=TheGraduateInstituteGeneva.*

———. "Our Pacific Predicament." *The American Interest, June 25, 2015.* https://www.the-american-interest.com/2013/02/12/our-pacific-predicament/.

———. "Power and Interdependence with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43. No, 1 (2020): 7-21.

———. "Work with China, Don't Contain it." *The New York Times*, January 25, 2013. https://www.nytimes.com/2013/01/26/opinion/work-with-china-dont-contain-it.html.

———. *The Future of Power,* 31.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Silva, diego, nan tian and alexandra marksteiner.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0.* SIPRI Fact Sheet. Solon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1.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1-04/fs_2104_milex_0.pdf

SIPRI.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as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1988-2020.* Solon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1.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Data%20for%20all%20cou

ntries%20from%201988%E2%80%932020%20as%20a%20share%20of%20GDP%20%28pdf%29.pdf

———. *SIPRI Yearbook Summary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1-06/sipri_yb21_summary_en_v2_0.pdf.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7 장

# 신[新]대만 해협 위기: 2030 년 미·중·일 해군력 균형 전망
## 사세보 해상자위대 박물관

**김사준**
고려대학교

## 들어가며

### 핵심질문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대치 중이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중 간 해군력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인도와 호주 등 서태평양 인접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쿼드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1 년 3 월 29 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Philip Davidson 은 3 월 29 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30 년 전후로 대만 통일을 무력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Shelbourne and Mallory, 2021). 경제 규모도 GDP 기준 2030 년 전후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예측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2030 년에 대만 해협 주위에서 중국과 미·일 양 진영 간 해군력 균형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가?”

## 선행 연구 검토

인도-태평양 해군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힘을 중점적으로 비교했다. RAND 연구소(Heginbotham et al., 2015)는 시공간을 2017 년 대만과 남중국해로 한정했을 때 미국과 중국 해군력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전망하고 있다. 총 해군력에 있어 중국이 미국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본토와 갈등이 벌어지는 지역 간의 거리라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역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꼭 해군력이 대등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만 주변에서 갈등이 벌어질 시 중국이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약간의 우위를 점한다고 평한다.

미국 싱크탱크 The Heritage Foundation(Wood, et. al., 2021)는 2021 년 미국 해군이 미국의 주요 핵심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적정한 수준인지 capacity, capability, readiness 3 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연구 결과 현재 미 해군은 본토를 수호하고 적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정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평한다. 반면, 미국에게 위협국인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인 행태(aggressive behavior)를 보이고

있고 능력(capability)도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formidable)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O' Rourke, 2021)는 중국 해군의 주요 무기체계 변화·발전을 정리하고 있다. 항공 모함,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와 해군 소속 공군의 위력, 다양한 함선 개발 수준을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부록에서 함선 수와 톤수만으로 국가 간 해군력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양국의 함선 수 증강 정도와 함선 종류를 개개별로 나누고 그 숫자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군력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미국 싱크탱크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Yoshihara, 2020)는 기존 연구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인접한, 미·중 이외의 다른 주요 행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여러 행위자 중 일본 해군을 중국과 비교하는데, 일본 해군력을 중국과 비교하고 동시에 중국이 일본 해군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집필 당시 함선 수, 톤수, 화력, 인력 등의 수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중국 해군력이 일본을 이미 추월했거나 근래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학계는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저자는 이러한 물리적·심리적 우위가 중국으로 하여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인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waine et al., 2013)도 미국과 중국만 서로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여 미·중·일 3 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경제 성장, 국방비, 여론 등 간접적 요인을 반영하여 각국의 군사력을 전망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예상되는 미·중·일 간의 관계를 6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는데 대체로 미·일 동맹이 군사력에서는 중국보다 앞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양 진영 간 세력 균형이 이뤄져 장래가 불안정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 본 연구

기존 선행 연구는 대개 주요 행위자인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 해군력만 두고 서로를 비교하거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의 총 해군력만 비교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해 시공간을 2030 년, 대만으로 설정해 주요 행위자인 미·중·일 해군력을 모두 반영하여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근접한 전망을 내놓으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미·중·일의 해군력이다. 역내 해군 중 가장 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세 국가이자, 동시에 각국의 주요 이해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대만에 걸려 있는 행위자다. 본 연구에서 2030 년 각국 해군력 수준을 연구함으로써 역내 세력 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해군력 수준은 양적인 데이터로 비교하는 방법(capacity)과 구체적인 성능(capability)을 기준으로 3 국을 비교했다. 양적 데이터

연구는 함선 수·톤수·화력을 지표로 두어 비교한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각국의 예하부대와 총 해군력 2 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동부전구·남부전구 해군(东海舰队, 南海舰队),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INDOPACOM Pacific Fleet), 일본의 해상자위대 중 사세보·쿠레 구역(佐世保, 呉)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선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시공간 변화에 따른 세력 분포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

양적 연구만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시도하고 미일이 이를 저지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 진영의 핵심 무기 체계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2015 년 미국의 RAND 가 내놓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2030 년에 양 진영의 해군과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들이 당시에 비해 얼마나 발전할지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대만 관련 우발상황(Taiwan contingency)이 발생하였다는 가정 속에서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을 펼치고 미·일이 중국의 대만 통일을 방해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무기 체계들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항공모함,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잠수함을 다룰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군력 균형 변화를 전망한다. 추가로 앞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해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수들을 언급하고 여태까지 했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

본 연구는 큰 맥락에서 미·중 간에 벌어지는 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어느 쪽이든 만약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우발 상황이 벌어져서 양측에서 동시에 자기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일본이 주도하려는 대(對)중국 동맹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미·중 패권 경쟁의 전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Capacity : 함선 수, 톤 수, 화력

한 국가 해군력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2 가지로 구분하자면 양적인 데이터로 비교하는 방법(capacity)과 서로의 함선 및 무기체계의 성능(capability)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수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중·일 해군력을 비교하고 그 다음 각 해군의 주요 함선 및 무기체계의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해군력을 비교할 수 있는 양적인 기준으로 함선 수(ship count), 톤수(tonnage), 화력(firepower)(Yoshihara, 2020)이 대표적이다. 함선 수는 해군력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으로서 군의 규모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선박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미 의회 보고서(O' Rourke, 2021)도 미·중 해군의 규모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각국을 비교했다. 미·중·일 해군 규모를 연구한 자료(O' Rourke, 2021; Pape, 2019;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1; Ministere armées, 2020;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2020; U. S. Navy, 2020)를 참고하여 항공모함, 잠수함, 대형 수상전투함, 소형 수상전투함, 상륙함(aircraft carrier, submarine, large surface combatant, small surface combatant, amphibious warfare forces)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제외된 선박에는 군수지원함, 해안경비, 초계함 등이 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함선이더라도 그 크기나 장갑 두께, 성능, 탑승 인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함선 수만으로 해군력을 비교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함선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톤수와 화력을 추가로 비교한다. 톤수는 만재 배수 톤수(full load displacement tonnage)를 기준으로 삼았고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차선책으로 기준 배수 톤수(standard displacement tonnage)를 반영하여 계산했다. 총 톤수는 100 의 자리에서 반올림, 평균 톤수는 1 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 화력은 함선의 파괴력(lethality)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화력 지수'를 "수직 발사체계(vertical launcher system)의 cell 개수 + 미사일

발사체계(missile launcher)의 개수 + 어뢰 발사체계(torpedo)의 개수"로 정의한다. 화력 지수가 높을수록 파괴력이 더 세다는 뜻이다.

## 미·중·일 예하 해군 부대 해군력 수준

대만 해협 주위 해군력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예하 부대 해군력부터 비교한다. 중국 해군의 경우 동부전구(东海舰队)가 대만 주변을 맡고 있고 남부전구(南海舰队)는 남중국해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만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같이 움직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INDOPACOM U. S. Pacific Fleet)가 인도-태평양 에서 활동하며 일본 자위대에는 사세보와 쿠레(佐世保, 呉)구역 해군이 있다.

2030 년 중국 동부전구와 남부전구 해군의 함선 수는 238 척이고 총 톤수는 약 1,657,000t 이며 평균 톤수는 약 6960t, 화력 지수는 5,468 이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함선 수는 148 척으로 총 톤수는 2,125,000t, 평균 톤수는 약 14,360t, 화력지수는 7,239 이다. 사세보와 쿠레 구역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은 42 척, 총 톤수는 약 299,350t, 평균 톤수는 약 7,130t, 화력지수는 1,405 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군을 합칠 경우 총 함선 수는 190 척, 총 톤수는 약 2,424,350t, 평균 톤수는 약 12,810t, 화력지수는 8,578 이다.

| 국가 | 함선 수 (척) | 총 톤수 (t) | 평균 톤수 (t) | 화력 지수 |
|---|---|---|---|---|

| | | | | |
|---|---|---|---|---|
| 중국<br>(동부·남부전구) | 238 | 1,657,000 | 6,960 | 5,408 |
| 미국<br>(인도-태평양) | 148 | 2,125,000 | 14,360 | 7,239 |
| 일본<br>(사세보·쿠레) | 42 | 299,350 | 7,130 | 1,405 |
| 미·일 | 190 | 2,424,350 | 12,760 | 8,644 |
| 미·일/중국 | 0.8 | 1.46 | 1.83 | 1.6 |

**표 1. 미·중·일 예하 해군 부대 해군력 수준**

### 미·중·일 총 해군력 수준

본 연구는 공간을 대만 해협 주변으로 한정 지었지만 미·중·일 사이의 갈등이 총력전으로 비화될 고려하여 3 국의 총 해군력도 수치로 계산하여 비교했다. 중국 해군은 2030 년에 310 척을 보유하고 총 톤수는 약 2,036,000t 이며 평균 톤수는 약 6,570t, 화력 지수는 7,824 이다. 미국 해군 함선 수는 259 척이고 총 톤수는 약 3,826,000t, 평균 톤수는 약 14,770t, 화력지수는 13,342 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은 89 척, 총 톤수는 약 542,000t, 평균 톤수는 약 6,100t, 화력지수는 2,752 이다. 미국과 일본 해군을 합칠 경우 총 함선 수는 348 척, 총 톤수는 약 4,369,000t, 평균 톤수는 약 12,550t, 화력지수는 16094 이다.

| 국가 | 함선 수 (척) | 총 톤수 (t) | 평균 톤수 (t) | 화력 지수 |
|---|---|---|---|---|
| 중국 (동부·남부전구) | 310 | 2,036,000 | 6,570 | 7,824 |
| 미국 (인도-태평양) | 259 | 3,826,000 | 14,770 | 13,342 |
| 일본 (사세보·쿠레) | 89 | 542,000 | 6,100 | 2,752 |
| 미·일 | 348 | 4,368,000 | 12,550 | 16,094 |
| 미·일/중국 | 1.12 | 2.15 | 1.91 | 2.06 |

**표 2. 미·중·일 총 해군력 수준**

총 해군력에서는 중국이 미·일 동맹에 비해 약하다. 총 톤수와 평균 톤수, 화력 지수 모두 미·일이 약 2 배로 중국보다 많고 함선 수도 앞선다. 반면 대만 주위의 3 국 해군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줄어들어 함선 수는 오히려 앞서고 나머지 항목도 약 1.5 배로 차이가 줄어든다. 즉, 미·일이 대만 지역에서는 중국에 대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교 함선의 종류를 통일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던 중국의 해안 경비나 초계함을 추가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더 좁혀진다.

다른 변수까지 감안하면 대만 주변에서 미·일과 중국의 격차가 더 근소하다.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군 규모가 수비의 3 배 이상이어야

승산이 있다고 말한다. “3:1 rule”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규칙은 육군에 해당하며 몇 가지 가정이 있다. 방어하는 군이 대비 태세가 갖춰지고 지형이 비교적 폐쇄적이어서 수비하기가 용이한 경우에 “3:1 rule”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석 단위를 전구(theater) 이상으로 높이거나 가정을 바꾸면 그 비율이 변한다. 지형의 개방성(open)이나 공격하는 군의 기동, 방어하는 군의 병력 배치에 따라 공격자 대 수비자의 비율이 ‘1.5:1’, 심지어 ‘0.8:1’여도 양측 병력이 같은 속도로 줄어든다(Davis, 1995). 육지에 비해 해양은 더 개방된 지형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수적으로 열세에 있더라도 미·일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과 일본 바로 앞에 있는 반면 미국 본토와는 거리가 멀어서 미 해군 전체 중 일부가 순환하여 전방 배치된다. 미국 해군의 함선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현재는 총 규모의 약 3/4 이 세계 곳곳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본토로 돌아가는데, 그 기간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대만까지 열흘보다 더 걸린다(Callender, 2018). 그러므로 중국이 당장 대만에서 부딪히는 군은 전체 미국 해군 중 태평양 함대, 그 중에서도 전방 배치된 일부와 일본 해상자위대 일부만이다.

## Capability : 주요 무기체계

앞에서 함선 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언급했지만 단순한 양적 데이터만으로 국가별 해군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 톤수도

일반적으로 클수록 함선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분산된 함대 구성(more-distributed fleet architecture)을 검토 중인데 상대적으로 톤수가 낮은 함선의 수를 늘리고자 한다(O' Rourke, 2020). 그 이유는 중국의 주요 무기체계 때문이다. 새 아키텍처에 따라 소형 전투함(small surface combatant) 수를 늘리면 총 톤수와 평균 톤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미국 해군은 오히려 대(對)중 capability 를 늘리기 위해 톤수를 줄이고 있는데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미 해군의 전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오해하기 마련이다. 화력도 마찬가지로 모든 무기체계를 동일한 1 이라는 값으로 처리하고 숫자를 세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파괴력, 사정거리, 정확도가 다 달라 실제 함선 화력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해군의 capability 를 다루고자 한다. 실제 전쟁에서는 작전·전술·전략, 병력들의 훈련 수준, 전투 경험, 군수지원, 사기(morale), 날씨 등 수많은 변인이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 그 중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고,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그 정도를 파악하기 힘든 변인이 있다. 이를 고려해 여러 변인 중에 2030 년 대만에서 우발 상황(contingency)이 발생하여 미·중·일 간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핵심이 될 '주요 무기체계'를 다루면서 양 진영 간 해군력을 비교했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만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논하기로 약속했지만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비롯한 일부 경우 무력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U. S. DoD, 2021). 현 외교 노선인 신형국제관계에서도 꾸준히 대만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듯 신형대국관계에 따라 미국과 충돌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핵심 이익을 건드릴 경우 신형주변국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했다(하영선, 문용일, 2021).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해 공중·해상 차단(air-naval blockade), 무력 시위(show of force), 부분적 무력 사용을 통한 강압(compliance) 내지 상륙을 통한 정복 등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리고 이미 군사력에서 대만과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현 능력도 충분하다(U. 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비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통일할 때 미국을 비롯한 제 3 국의 개입을 억제, 방해 혹은 물리치기 위해 A2/AD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무기체계들을 개발했다(U. 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미·일 동맹의 자산은 항공모함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ASBM/ASCM 을 개발했다. 잠수함은 중국과 미·일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중국에게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적 함선의 접근을 차단할 때 필요하고, 미·일에게는 중국의 함선뿐 아니라 상륙선들을 공격하여 대만 무력 통일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항공모함', 'ASBM/ASCM', '잠수함'

3 가지를 주요 무기 체계로 선정하여 해당되는 각국 capability 를 분석했다.

RAND 연구소가 2015 년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주요 무기체계 capability 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본 연구는 RAND 연구소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에 비해 2030 년 대만 지역을 둘러싼 미·일 주요 무기체계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주요 행위자인 일본을 추가함으로써 해군력의 균형이 어느 진영으로 기울일지 전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Heginbotham et al., 2015).

##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힘을 역외로 투사(power projection)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체계 중 하나로서 현대전에서 핵심 자산에 속한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그것을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잠수함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을 통해 자국 군사력을 전세계에 투사하고 있다. 서태평양에도 배치된 항공모함은 중국이 가장 염두에 두는 미 해군의 자산으로 뒤이어 소개할 중국 주요 무기체계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미국 항공모함을 견제하는 것이다.

2015 년 당시 미 해군에 니미츠급(Nimitz class) 항공모함만 있었지만 2030 년에는 니미츠급과 함께 제럴드 R. 포드급(Gerald R. Ford class) 항공모함을 갖춘다. 포드급은 신형 항공모함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니미츠급을 대체할 예정이다. 두 항공모함 모두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포드급 항공모함이 조금 더 크다. 두 항공모함의 가장

큰 차이는 포드급 항공모함에 전자식 항공기 발진시스템(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이 장착되었다는 점인데, 그 결과 기존의 발진 시스템보다 항모비행단(carrier air wing)의 항공기 숫자를 늘릴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약 60 대 이상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지만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75 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U. S. Navy, 2021). 그 결과 더 많은 힘을 투사할 수 있고 정찰이나 적 탐수함 탐지 능력 향상 등 항공모함을 비롯한 타격단 전체 위력이 더 커진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항공모함을 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대표적으로 레이더 성능 향상이 있는데 미 해군은 포드급 항공모함에 이중 대역 레이더를 탑재했다. 기존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6 개가 있던 레이더를 하나로 통합시켜 투입 병력도 줄였고, 옮겨 항공기 적재량도 늘릴 수 있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적에게 탐지될 위협을 줄였다(Thompson, 2020). 앞으로 배치될 John F. Kennedy 포드급 항공모함과 기존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대공·미사일 방어 레이더인 AN/SPY-6 을 탑재한다. 이는 기존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SPY-1 레이더보다 30 배나 더 민감하다. 탐지거리도 SPY-1 에 비해 2 배 늘어나 740㎞ 이상이고, 물체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Raytheon Missiles & Defense, 2021). 그리고, 기존 항공모함에 탑재된 탐지거리가 320km 이상인 AN/SPS-48 레이더와 480km 이상인 AN/SPS-49 레이더보다 길다(U. 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0).

중국과 일본 항공모함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중국은 러시아 항공모함을 개조한 랴오닝(Liaoning)과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Shandong)을 보유 중이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국산 항공모함을 개발 및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 지역인 대만은 중국 본토와 매우 가까워서 미·일과 군사적 충돌이 일 경우 본토에서 직접 전투기들이 출격할 수 있어 항공모함의 역할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O' Rourke, 2021). 일본의 경우 현재 항공모함은 없고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Izumo class)급 경항공모함과 휴가급(Hyuga class) 항공모함만을 보유 중이다. 최근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을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은 힘을 역외로 투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평화헌법에 따라 정규군이 아닌 자위대만 운용할 수 있는 일본은 그동안 항공모함을 개발 및 배치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여론이 변하고 헌법이나 법령을 수정하여 항공모함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자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공모함은 자체 개발과 생산을 하기까지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2030 년에 중국과 해상에서 경쟁하는 데에 있어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이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본 논의에서 제외를 했다.

##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을 차단하기 위해 A2/AD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기체계는 단연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대함 순항미사일(ASCM, anti-ship cruise missile)이다. 두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긴 사거리와 정확도 때문에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game-changing) 무기(O' Rourke, 2021)라고도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ASBM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DF-21D 는 기존 DF-21 을 변형한 미사일로 사거리는 1,450~1,550km 이고 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를 탑재하여 이동하는 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원형 공산 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20m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미사일로서 “carrier-killer”라고 불리기도 한다(Dahlgren, Masao, and Missile Defense Project, 2021).

RAND 는 당시에 DF-21D 만 다뤘는데 2015 년 이후에도 중국은 꾸준히 ASBM 을 연구하여 DF-26 과 DF-17 을 개발 및 배치했다. DF-26 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용도 미사일로서 원형 공산 오차가(CEP) 150~450m 로 기존 DF-21D 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거리가 4,000㎞ 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DF-21D 의 2~3 배 이상이다. 중국 본토에서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 “Guam-killer”라는 별명도 있는데(Dahlgren and Masao, 2021) 중국은 DF-26D 을 배치함으로써 기존 1 차 도련선(first-island chain)을 넘어서서 2 차 도련선 (second-island chain)까지 적 해군에게 위협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중국은 2020 년에 최초로 DF-

21D 와 DF-26b 로 해상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맞히는 데에 성공할 정도로 정확성을 키웠다. 미 해군은 이동하는 선박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적을 상대한 경험이 없어 중국의 ASBM 은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O' Rourke, 2021).

DF-17 미사일은 새로 배치된 신형으로서 사거리는 1800~2500km 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DF-17 의 주요 특징은 극초음속 활동 비행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해 마하 5 에서 최대 마하 10 까지 날 수 있다는 점이다(Shaikh et al., 2021).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점은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속도가 너무 빨라 현재 자산으로 탐지를 하기가 힘들고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임박했을 때 탐지를 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 비행 중간에 기동(maneuver)도 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표적 처리를 마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 미국은 현재 상태로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Sayler, 2019)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일러도 2020 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U. S. DoD, 2020) 극초음속 무기 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전망하기 힘들다.

중국은 그동안 ASBM 못지 않게 ASCM 에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었다. ASCM은 전투기와 폭격기 혹은 구축함이나 호위함, 잠수함 등 다양한 발사체계에서 발사할 수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아래 [표 3]은 기존에 배치한 ASCM 과 최근 개발한 ASCM 의 특징을 정리했다(Gormely et al., 2014; Heginbotham et al., 2015; Pape, 2019;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6).

* 중국이 최근에 개발한 ASCM

| 종류 | 해상 발사체계 | 사거리 (km) | 속도 (마하) | 탄두중량 (kg) |
|---|---|---|---|---|
| **YJ-62, YJ-62a** | Luyang II 구축함 | 280 | 0.8 | 210 |
| **YJ-82** | Han, Yuan, Shang 잠수함 | 40 | 0.9 | 165 |
| **YJ-83, YJ-83A/J** | Luda, Luhu, Luhai, Luyang I, Luzhou 구축함, Jiangkai I/II 호위함, Jiangdao 초계함 | 120~250 | 0.9 | 165 |
| **YJ-91** | - | 50 | 2.5 | 87-90 |
| **YJ-12*** | - | 400 | 3 | 500 |

| | | | | |
|---|---|---|---|---|
| **YJ-18*, YJ-18a*** | Luyang 구축함, Renhai 순양함, Song, Yuan, Shang, Tang 잠수함 | 540 | 3 | 300 |

**표 3. 중국의 주요 ASCM**

최근 개발된 ASCM 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거리와 속도, 탄두중량(warhead payload)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사거리가 길수록 적으로부터 위협을 안 받으면서 동시에 적을 타격할 수 있고, 탄두중량이 클수록 적 함선 장갑을 뚫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속도에서 주목할 점은 초음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초음속으로 날면 미·일 이지스 체계가 미사일을 탐지부터 요격까지 공격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 방어하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YJ-12 는 나선(cork-screw-like turns)으로 날아서 적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6).

미·일 해군은 중국 ASCM 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해군은 현재 미쓰비시 Type 90 SSM-1B 와 미국의 Harpoon 을 사용하는데 SSM-1B 의 탄두중량은 260kg, 사거리는 200km(Naval Technology, 2011). 미 해군도 Harpoon 을 사용하는데 속도는 0.9 마하로 날고 탄두중량은 227kg(Pape, 2019)이며 사거리는 약 130km 이다(U. 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미국은 그 외에 Raytheon-Kongsberg NSM 을 사용하는데 (U. 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Raytheon-Kongsberg 는 0.95 마하까지 날 수 있고 사거리는 약 185km 이고 탄두중량은 약

227kg 이다(Raytheon Missiles & Defense, 2021; Kongsberg, n.d.). 최근 지상 공격용(land-attack) 미사일인 Block V Tomahawk 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중국 YJ-18 보다 사거리가 길지만 해상에 이동하는 표적을 맞힐 수 있을지, 해당 성능에 관한 정보가 없다(U. 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 잠수함

잠수함은 중국과 미·일 모두에게 중요한 무기 체계이다. 중국의 경우 잠수함은 ASBM/ASCM 과 함께 A2/AD 전략의 핵심 자산이다. 미·일의 전함들, 특히 해전이 벌어질 시 가장 큰 위협이 될 미국의 항공모함이 주변 해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은 파괴력을 키우고 차단 범위를 늘리기 위해 잠수함에 ASCM 을 탑재했다. 반면, 미·일은 중국이 대만에 상륙할 때 잠수함으로 견제를 해서 무력으로 대만과 통일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잠수함 모두 SLBM 을 탑재할 수 있어 서로의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해전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잠수함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폐능력이다(Heginbotham et al., 2015). 누구의 잠수함이 먼저 적 탐지를 피해 타격을 주고 누가 적의 잠수함을 먼저 탐지하는지에 따라 수중전의 승패가 갈린다. 그리고 은폐와 탐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잠수함의 소음(acoustic

performance)이다. 잠수함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음이 작을수록 찾기 힘들고 적 잠수함을 찾기가 더 용이하다.

2030 년이 되었을 때 중국 잠수함 capability 가 아직 미국과 일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잠수함으로 SSN-21 Seawolf-class, SSN-774 Virginia-class, SSN-688i Los Angeles-class 이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잠수함은 Jin-class(Type 094), Type 095, Shang-class(Type 093/A/B), Yuan-class(Type 039A/B/C), Kilo 636 이 있고 일본은 Soryu-class, Taigei-class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표 4]는 미국과 중국 잠수함들이 내는 소음을 정리한 표다.

| 이름 / 국가 | 데시벨(db) |
|---|---|
| **바다 수중 소음 (ocean background noise)** | **90** |
| **SSN-774 Virginia-class / 미국** | **95** |
| **SSN-21 Seawolf-class / 미국** | **95** |
| **Kilo 636 / 중국** | **105** |
| **SSN-688i Los Angeles-class / 미국** | **105-110** |
| **Yuan SS (Type 039) / 중국** | **?** |
| **SSGN (Type 095) / 중국** | **110** |

| | |
|---|---|
| **SSN Shang-class (Type 093) / 중국** | **110** |
| **SSGB Jin-class (Type 094) / 중국** | **120** |

**표 4. 미국과 중국의 잠수함 소음 정도**

[표 4](Collins, 2008; Lee, 20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의 잠수함들이 대체로 미국의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크다. 중국에서 최근에 개발한 Type 095 SSGN 핵잠수함이 몇십 년 전에 개발되었던 미국 Los Angeles-class 핵잠수함과 소음 수준이 비슷하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Yuan 은 더 크다. 그나마 RAND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던 2015 년 당시, 중국의 편재에 있던 Ming(Type 035) 디젤 엔진 잠수함이 2030 년에는 현대화를 통해 신형 잠수함인 Yuan(Type 093)으로 대체되고 Type 095 잠수함이 새로 배치되면서 전반적인 소음이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

일본 잠수함인 Soryu-class 와 Taigei-class 의 경우 소음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가 없어서 정확한 소음의 크기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인 중국의 Yuan 에도 쓰이는 기술인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Soryu-class 잠수함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P 기술을 활용하는 대신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시킨 신형 Soryu-class 잠수함과 새로운 유형인 Taigei-class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Roblin, 2020). 리튬이온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충전 시간이 짧고 출력이 더 세고 수명도 더 길다. 두 기술 모두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은폐 능력을 키운다. 정확한 소음 정도는 위에 언급한 기술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일본의 Soryu 와 Taigei 가 중국의 Yuan 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앞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Larson, 2021).

## 미 · 중 · 일 해군력 분포

### 중국 vs. 미·일

이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중국과 미·일 양 진영 해군력 균형을 전망한다. 먼저 capacity 의 경우 총 해군력은 미·일이 중국에 비해 함선 수, 총 톤수, 평균 톤수, 화력 지수 모두 앞섰고 예하부대 해군력을 비교했을 때 총 톤수, 평균 톤수, 화력 지수에서 앞섰지만 함선 수는 중국이 앞섰다. 그러나 "3:1 rule" 미국의 태평양 함대 전체가 인도-태평양에서 상주하지 않고, 일부는 타 지역에 배치, 전체 해군 함대 약 1/4 은 본토에서 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중·일을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양적 연구에서 2030 년 중국 해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ASCM 을 탑재한 해안경비대(China coast guard) 소속 함선이 85 척 이상 더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O' Rourke, 2021).

주요 무기체계의 변화를 보았을 때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ASBM 과 ASCM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면서 미·일의 기술력보다 앞서고 있다. 전 미 사령관 Phillip Pournelle 의 전함 파괴력(type lethality) 공식에 미래 함대 규모와 ASCM 사거리, 탄두중량을 대입하면 중국 해군 파괴력이 미·일에 비해 앞선다(Cummings, 2016). 잠수함의 경우 중국이 2015 년 당시에도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했고 2030 년에도 지금보다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 일본 잠수함 수준과 비슷하고 미국에 비해 아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했을 때 중국 해군력은 2030 년에 대만과 그 근해에서 A2/AD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미·일 해군력에 매우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미·중·일 해군력을 평가할 때 추가로 고민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 우선 예산 문제가 있다. 앞에서 전망한 미국 해군의 규모는 미 국방부 통합해군력구조 평가단(INFSA)이 세운 목표(355-ship goal)(O' Rourke, 2021)를 기반으로 예측한 수치다. 미국은 355 척 이상의 함선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O' Rourke, 2020). 미 해군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본 연구에서 전망한 수준보다 해군력이 더 약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실제 작전 이행의 문제로서 중국의 경우 육·해·공군 간의 합동작전 수행(jointness) 문제와 전투 경험의 부재가

관건이다. ASBM 과 같은 주요 무기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 수집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C4ISR 체계가 중요한데 과연 중국이 얼마나 각 군 간에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며 실제 해전을 경험한 병사가 없어서 실제 전투에서 얼만큼 평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Sweeny, 2020). 미·일의 경우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이 문제인데 중국과는 달리 미·일 해군은 서로 다른 나라의 군대와 협동을 해서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일은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평소대로 잘 이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또한 최근 미국은 중국의 주요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함대 구성을 고안하고 있다. 일명 분산된 함대 구성(more-distributed fleet architecture)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함선의 전반적인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미 함대의 구성 비율을 보면 대형 수상전투함과 소형 수상전투함의 비율이 2:1 인데 이를 1:2 로 바꾸는 것이다(O' Rourke, 2020). 대신 무인수상정과 무인항공기를 배치함으로써 대형 수상 전투함이 수행하던 여러 역할을 분산시킨다. 그리고 항공모함도 기존의 대형 핵추진 항모보다 크기도 작고 핵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을 고려 중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ASBM 과 ASCM 위협을 줄이고 생산비용도 줄여 예산상 부담도 줄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일 대결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개념은 Joint Warfighting Concept(JWC)와 Integrated Deterrence이다. 둘 모두 미국방부가 구상하는 미래전의 핵심이다. JWC 는 사이버·우주 공간까지 전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계를 활용하여 모든 전장에서 적을 압도함으로써 거부를 통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A Warfighting Concept for Great Power Competition, 2020; Work, 2020). 미국은 미래전이 육·해·공을 넘어서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domain)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 미국의 목표는 개별 전장 각각에서 앞서는 것뿐 아니라 여러 전장에서 모인 정보를 수집하고 한 데 모아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다.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과 인간의 협동체계(collaborative human-machine system)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적이 잠수함과 ASBM/ASCM 같은 미군에게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중·일 역시 모두 미래전 환경에 발맞춰 사이버·우주전 준비 중이다 (Ministry of Defense Japan, 2021;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Integrated Deterrence는 미국의 전반적인 억제력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단순히 군사력만 늘리지 않고 억제의 대상, 방식, 공간 등을 확대하고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해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때, 동맹 간의 교류를 늘려 상호운영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Integrated Deterrence 를 통해 기존의 쿼드 체제를 비롯하여 AUKUS 등 대중 견제 참여국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한 동맹국 간 상호운영성 증강으로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 (fait accompli)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 마치며

본 연구는 2030 년 대만 지역에서 중국과 미·일 중에 해군력이 어디가 더 우세할지 전망을 했다. 기준은 크게 2 가지로 해군의 규모와 관련된 capacity 와 주요 무기 체계의 성능인 capability 였다. capacity 측면에서 보면 아직 중국의 총 해군력과 대만 주변의 예하 해군 부대 해군력이 미·일에 비해 부족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고 미 해군의 순환 배치나 중국의 해안경비대까지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좁다. capability 의 경우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중국 또한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ASBM 과 ASCM 을 발전시켜 오히려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 중국의 잠수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미·일 수준을 따라잡질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2030 년에 대만 관련해서 우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일 해군력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으나 중국 해군력은 A2/AD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근접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하영선, 문용일. 2021. “미·중 정상회담 독해법: 미국의 ‘경쟁’ vs. 중국의 ‘복합.’”EAI 이슈브리핑.

Ball, Desmond, and Richard Tanter.2015. "The tools of Owatatsumi: Japan's ocean surveillance and coastal defence capabilities." ANU Press.

Callender, Thomas.2018. "The Nation Needs a 400-Ship Navy". The Heritage Foundation

Collins, Gabriel, Andrew Erickson, Lyle Goldstein, and William Murray. 2008. "Chinese evaluations of the US Navy submarine force."Naval War College Review61, no. 1, 68-86.

Cummings, Alan. 2016. "A thousand splendid guns: Chinese ASCMs in competitive control."Naval War College Review69, no. 4.: 79-92.

Dahlgren, Masao, 2021. "DF-21 (CSS-5)." Missile Threat,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f-21/.

Dahlgren, Masao. 2021. "DF-26." Missile Threat,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ong-feng-26-df-26/.

Dakota L. Wood, et. al. 2021. "2021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The Heritage Foundation.

Davis, Paul K.1995. "Aggregation, Disaggregation, and the 3: 1 Rule in Ground Combat." RAND Corporation.

Gormley, Dennis M., Andrew S. Erickson, and Jingdong Yuan. 2014. "A potent vector: Assessing Chinese cruise missile developments."

Heginbotham, Eric, Michael Nixon, Forrest E. Morgan, Jacob L. Heim, Jeff Hagen, Sheng Li, Jeffrey Engstrom et al.2015. "The US-China military scorecard: Forces, geography, and the evolving balance of power, 1996–2017." RAND Corporation,

Kongsberg. n.d. "JSM − Joint Strike Missile − Missile Systems." https://www.kongsberg.com/kda/products/defence-and-security/missile-systems/joint-strike-missile-jsm/.

Labs, Eric J. 2021. "The 2021 Outlook for Navy Shipbuilding: Prospects and Challenges in Building a Larger Fleet."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ttps://www.cbo.gov/publication/56947.

Larson, Caleb. 2021. "Taigei-Class: Japan's New Stealth Submarine Has a Secret in Its Hull." 19FortyFive, https://www.19fortyfive.com/2021/10/taigei-class-japans-new-stealth-submarine-has-a-secret-in-its-hull/.

Lee, Sheryn. 2017. "Beyond the Arms Race: Explaining the Modernization of Naval and Associated Air Capabilities in the Asia-Pacific (2001-2016)."

Ministere des Armées. 2020. "Les Forces Maritimes d'Auto-Défense, Le Corps Des Garde-C□tes Et La Structuration De La Stratégie Maritime Du Japon." Defense.gouv.fr. https://www.defense.gouv.fr /dgris/recherche-et-prospective/etudes-prospectives-et-strategiques/2020-2021.

Ministry of Defense, Japan. 2013.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9 and beyond."

Ministry of Defense, Japan. 2018.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9 and beyond."

Ministry of Defense, Japan. 2021. "Defense of Japan 2021"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2016. "YJ-12." https://missiledefenseadvocacy.org/missile-threat-and-proliferation/todays-missile-threat/china/yj-12/

Naval Technology. 2011. "Hayabusa Class Guided-Missile Patrol Boat." https://www.naval-technology.com/projects/hayabusa-class/.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2020.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http://www.nanhai .org.cn/uploads/file/20200623/jlbg.pdf

O'Rourke, Ronald. 2020. "Future Force Requirements for the United States Navy."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Columbia (SSBN-826) Class Ballistic Missile Submarine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Navy Virginia (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Procurement: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Next-Generation Attack Submarine (SSN[X])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Navy Ford (CVN-78) Class Aircraft Carrier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DDG-51 and DDG-1000 Destroyer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Navy DDG(X) Next-Generation Destroyer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Constellation (FFG-62) Class Frigate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Rourke, Ronald. 2021. " Navy LPD-17 Flight II and LHA Amphibious Ship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ape, Alex. 2019. "Jane's fighting ships". England: Jane's by IHS Markit.

Raytheon Missiles & Defense. 2021. "Naval Strike Missile." https://www.raytheonmissilesanddefense.com/capabilities/products/naval-strike-missile.

Raytheon Missiles & Defense. 2021. "U.S. Navy's Spy-6 Family of Radars. "https://www.raytheonmissilesanddefense.com/capabilities/products/spy6-radars.

Roblin, Sebastien. 2020. "Japan's Lithium-Ion Battery Submarines Are a Leap Forward for Navies Everywhere." The National Interes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japans-lithium-ion-battery-submarines-are-leap-forward-navies-everywhere-153801.

Sayler, Helley M.2019. "Hypersonic weap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haikh, Shaan, Ian Williams and Masao Dahlgren, Ian Williams, and Masao Dahlgren. 2021. "DF-17." Missile Threat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F-17/.

Shelbourne, Mallory. 2021. "Davidson: China Could Try to Take Control of Taiwan in 'next Six Years'." USNI News https://news.usni.org/2021/03/09/davidson-china-could-try-to-take-control-of-taiwan-in-next-six-years.

SIPRI. 2021.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Sugimoto Yoichi, Hirayama Shigetoshi, Inoue Takashi, Ushirogata Keitaro. 2013. "Challenges for JMSDF after the Post-Cold War Era." JMSDF Staff College Review 2

Swaine, Michael D., Mike M. Mochizuki, Michael L. Brown, Paul S. Giarra, Douglas H. Paal, Rachel Esplin Odell, Raymond Lu, Oliver Palmer, and Xu Ren. 2013."China's military &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ompson, Loren. 2020. "Ten Performance Gains the Ford-Class Carrier Will Deliver That a Nimitz Never Can." Forbes. Forbes Magazine. https://www.forbes.com/sites/lorenthompson/2020/08/05/ten-performance-gains-the-ford-class-carrier-will-deliver-that-a-nimitz-never-can/?sh=525f4813134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1. "The Military Balance 202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st ed. Taylor and Francis https://www.perlego.com/book/2271178/the-military-balance-2021-pdf.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1.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U. 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U. S. Department of Defense 2020.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0. "Defense acquisitions: comprehensive strategy needed to improve ship cruise missile defense :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1997."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U. S. Navy. 2020. "Report to Congress on the Annual Long-Range Plan for Construction of Naval Vessels."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U. S. Navy. 2021. "Aircraft Carriers - CVN." https://www.navy.mil/Resources/Fact-Files/Display-FactFiles/Article/2169795/aircraft-carriers-cvn/.

_____ 2020. "United States Navy Military Sealift Command: 2020-2021 handbook." https://purl.fdlp.gov/GPO/gpo148807.

Work, Robert O. 2020. “A Joint Warfighting Concept for Systems Warfare”

Yoshihara, Toshi.2020. "Dragon against the Sun: Chinese Views of Japanese Seapower."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8 장

# 18 세기 한국의 대일심상: 애증의 일본
## 한일교류 박물관

**최다인**
이화여자대학교

## 들어가며

서로 근접한 위치에 자리한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교류가 불가피한 나라로써, 그 관계는 당연히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역사를 되돌아가 현재의 한일관계의 모습 이전 과거의 한일관계는 어떠한 형상을 띄었는지 18 세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8 세기 한일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는 한일관계에 대한 동주 이용희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시대구분을 하고자 한다. 동주 이용희는 한일관계를 심리학적인 면에서 접근하였는데, 한일관계의 문헌과 기록을 서로에 대한'관심'으로 보고, 그 양에 따라 두 나라간의'태도' 즉 '심상'(image) 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였다 (이용희 1970, 292-293). 즉 기록이 많을 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뜻이고 그 태도와 심상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관계를 다섯 시기로 나누는데 제 1 기는 상고로부터 기원후 9 세기 말, 제 2 기는 10 세기로부터 여말까지, 제 3 세기는 조선왕조 시대, 제 4 기는 식민지 시대, 그리고 제 5 기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이르는 때 이다. 그 중 3 기는 전,중,후의 3 개로 나누어 보는데, 전기는 임란 전, 중기는 병자수호조약 때까지, 후기는 일제의 강점 때까지로 끊었다. 1, 2 기 때는 한국 측의 자료의 양으로 봤을 때 일본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여 당시 대일심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반대로 일본은 그 기록의 양이 방대했던 것을 볼 수 있다. 3 기 중기 때에 들어서면 두 나라 다 서로에 대한 자료가 풍부해지는데, 이때에 비로소 양 국가들 간의 관심이 비등해지며 두 나라 다 서로에 관해 불안정한 심상을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특히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멸시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때인 3 기 중기인 18 세기에 일본에 사신으로 간 통신사 조엄의 해사일기를 통해 당시 대일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통신사 수행 중 두 나라간 심각한 국교 문제를 일으켰던 최천종 살해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조엄의 기록을 봄으로써 당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심상을 넘어 외교적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한 그의 노련한 대처를 볼 것이다. 끝으로는 당시 18 세기 통신사와 지식인들의 대일심상을 살펴보고, 조엄은 어떠한 선상 위에 놓여있는지를 볼 것이다.

## 기존 선행연구

『해사일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다른 해행총재의 기록들과 한 비교 연구가 많다. 특히 최천종 살해 사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최천종 살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사건을 통해 통신사가 대마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과, 이 사건을 보다 문화적인 접근에서 다룬 선행 연구가 있다 (민덕기 2004, 75-110; 김문길 2007, 65-77).

그 중 조선통신사 연구 제 20 호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 비교 연구(홍혜정 2015, 67-108)를 보면 해사일기 속 조엄은 (1) 책임자로서의 조심스러운 모습, (2) 통신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3) 애민정신 (4) 예식 • 절차에 대한 관찰과 기술을 보이는데, 먼저는 책임자로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행의 임무를 맡기 전 동래 부사와 경상도 감사를 지내며 일본과의 외교와 통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였기에, 『해사일기』에서는 조엄이 일본에 관해 전반적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일본의 기술들과 작물을 보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점도 보이는데, 일본의 수차, 물레방아 등의 기술, 고구마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여올

지에 대한 점을 통해 그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사일기』에서 조엄은 예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열린 모든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 행사의 예법과 절차, 제도를 자세히 관찰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 조선의 소중화의식

본격적으로 조엄의 『해사일기』를 보기에 앞서 조선이 어떠한 사상을 바탕으로 대외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조선의 중심개념은 중화주의적인 화이관 (華夷觀) 이였는데, 이 화(華)의 기준이 유교문화의 수용과 발달 여부를 결정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화이관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인 사대교린 (事大交隣)을 바탕으로 명(明) 에 대해서는 사대, 주변국인 여진,일본,유구,동남아제국에 대해서는 교린으로써 평화적 대외관계를 구축하였다. 조선은 비록 화이관과 조공 체제에서는 외에 속하지만, 유교문화 면에서는 중국과 동등하다고 자부하며 문화의 정체성을 명과 일체화 및 중심화를 시키며 주변 국가인 일본.여진.유구를 이적으로 취급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소중화의식(朝鮮小中華意識)이며 조선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우봉, 2006).

17 세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더욱 극단적인 형태를 띄게

되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발과 명에서 청으로의 왕조 교체는 기존의 존재하던 화이관과 국제질서를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명이 멸망했음에 따라 조선만이 유일한 화(華)의 계승자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소중화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사상은 17 세기 중반 이후 일반화 되어 18 세기 중반까지 한 세기동안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때도 이 소중화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왜 (倭)로 인식하며 화이관적 유교문화의 낙후성과 외교의례에 관한 무지와 무례를 토대로 열등하고 미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무력적 위세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것이 열등감과 더불어 더욱 심화된 일본이적관(日本 夷 狄 觀 )과 일본소국관(日本 小 國 觀 )으로 형성되었다. 조선소중화의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멸시적인 일본이적관이 조선의 3 기 중기를 대표한 주류적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배경 속 1763 년 조엄의 계미통신사가 왕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 조선통신사 행렬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엄의 『해사일기』를 통한 대일심상

### 미워할 수만은 없는 원수, 일본

조엄(趙曮)은 1752 년(영조 28)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맡았던 자로서 1757 년 (영조 33) 동래부사, 1758 년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1763 년 조선통신사 정사로 임명되었다 (이정은 2020, 230). 그는 당시 500 인에 가까운 일행 (국역 사행록 해행총재 10 2008,42) 이 포함된 통신사의 상사로서 이인배, 김상익과 함께 세 사신으로서 원가치(源家治)가 새로 일본 관백이 된 것을 축하하며 국서를 전하기 위해 영조 39 년 (1763 년)에 떠났다.

조엄의 글에서 크게는 두 가지의 심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일본을 이(夷), 또는 왜인이라고 인식하며 멸시하는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이고, 두 번째는, 조선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도 (善導)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優越感)이다.

글 속에서는 스스럼없이 일본인들을 '오랑캐'(위의 책, 73,77,82) 라며 일본의 문화를 야만 (野蠻)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인들의 법을 무식하고 해괴스럽다고 하면서 그 풍속(64,189),법제(124),의복(137),음식들이 모두 불교에서 나왔으니'어떻게 이적(夷狄), 금수(禽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는가?'(207) 하며 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문화와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人情)을 보이는 면도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 그는 비록 '왜인들이 지껄이는 언어는 한 가지도 알아들을 수 없으나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와 남녀가 급히 웃는 소리는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으니'라고 하며 다 같이 타고난 천성을 가졌으면서도,'다만 교양이 마땅함을 잃어 문명과 야만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64). 일본인들도 조선인들과 같은 윤리를 지키는 천성을 가졌으니,'윤리와 강상으로 가르치고, 예와 의로 인도한다면'그 천성의 타고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왜에게 조선이 주는 재산에 관해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주는 것에 10 분의 1 이라고 비교하며'잊어버리기 어려운 이들 원수를 먹이는 것이… 참으로 안 될 일이다,'라며 '주부자(朱夫子 주자) 같은 분도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이 오랑캐와 화친한 최하의 방책을 쓴 것이지, 어찌 즐겨서 하였겠는가?'(76) 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게 당한 수모를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동시에 더 우위에 있는 조선이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한다는 일종의 우월의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무조건적으로 왜인의 간교함을 말하는 일행 상하를 꾸짖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 "사람의 떳떳한 마음은 다 같이 하늘에서 타고났으니, 거짓이 습속으로 된 중에라도 어찌 진실한 자가 없겠는가? 이제 만약 사람마다 간사하다 하고 일마다 거짓이라고 의심한다면 저들도 사람인데,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갓 일시 전해들을 것에 의하여 문득 의심을 품는다면 또한 들은 바가 그르지 않고, 본 바가 어긋남이 있지 않음을 어찌 알겠는가?"(111-112).

무조건적으로 일본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난민 (亂民)이 양민으로 변화되기를 다른 나라의 모든 풍속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면 오랑캐 지방에서도 다닐 수 있다 (충신만맥 忠信蠻貊)라는 성인의 훈계를 기억해야한다고 말한다.

조엄은 오히려 왜인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왜인을 접대하는 도리는 본디 난처스러운 꼬투리가 많이 있으니, 더욱 깊이 헤아리고 두루 생각한 뒤에야 혼단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만일 사세를 알지 못하고 위엄과 공갈로 한다면 성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니, 이는 병가에서 이른바, '남을 알고 자기를 안다.'는 어려움이다"(125) 라고 기록한 것은 마도의 태수가 오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굳이 강호江戶(에도)에 가서 그의 죄를 묻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였다는 것과 같이 기록된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대목들을 보았을 때 조엄은 일본이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성리학에 바탕한 배움과 이성 (理性)을 가지고 일본인들을 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배경에는 조선이 더 우월하다는 조선소중화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 최천종 살인사건의 대처

조엄이 이끄는 계미통신사 수행 중 갑신년 4 월 7 일, 통신사 중 한 명으로 행중 집사였던 최천종이 살해 당하였다. 그는 죽기 전 범행을 저지른 자는 분명히 왜인이였다고 증언하였으며, 방 안에 있는 범행에 쓰인 흉기들도 다 왜인의 물건이었다 (283-284). 이 사건에 대해 조엄은 "상사가 되어 밤낮으로 마음을 쓰면서 고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위엄이 왜를 복종시키기에 부족하고 신용이 남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한 탓으로, 통신사가 있어 온 이래 일찍이 없었던 변괴를 만나 부끄럽고도 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 (284).조엄에 따르면 최천종은 군무에 밝고 왜인들까지도 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였으며, 그가 죽자 놀라고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어난 살인 사건은 국가 간의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조엄이 이 사건을 대처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춘추시대의 두 여자의 뽕 다툼 (두 여자의 뽕 다툼: 춘추시대 초의 변방 처녀와 오의 변방 처녀가 국경에 있는 뽕나무가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싸우다 결국 두 나라 싸움으로 커졌다는 고사, 291). 으로 비유하며 이 사건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범인이 대마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태수를 오히려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의 전체적인 국익으로 봤을 때 대마도의 태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며, 이것은 조선과 일본 교린의 모든 일이 다 마도 태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변방을 위한 원대한 계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313).

『해사일기』에는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려는 조엄의 노력이 보인다. 일본에 대한 심상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도인에게는, "마도인은 배은망덕하다고 할 수 있다. 천리가 있으니, 반드시 그들의 종묘사직을 뒤엎을 것이다 (289)," 라고 까지 말하지만, 동시에 그 심상이 한일 외교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조엄이 같이 온 통신사 수행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그는 감정의 배제성을 강조하는데, "타국에서의 사정이 있고 피아의 형세가 다르니, 요컨대

오랫도록 버티고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주를 삼아야 했다” 라고 하며 중관이나 하관 무리가 분통해하고 사람을 욕 해봤자 ‘일 처리에는 무익하며, 트집거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 그런 행위들을 금하였다고 기록했다 (293). 조사가 계속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또 다시 일본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면서도, 겁에 질리거나 놀라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자들을 꾸짖으며 범인을 찾아 법으로 처벌하기 전까지는 배에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290).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조정에서 특별 전교를 내려 살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신단에게 접대는 관례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엄은 감사함을 표현하면서도, 조정의 처벌과 그 죄명이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공포되어 일본이 조정의 법의 엄숙함을 느끼도록 대처했어야 한다며, 사신들이 죄를 받았다는 것을 왜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을 볼 수 있다 (392). 이런 면에서 조엄은 일본에게 조선의 그 위엄과 법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다.

17 세기때 굳혀진 대일심상인 일본이적관(日本 夷 狄 觀 )과 조선소중화의식에서 비롯된 우월감(優越感)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조엄은 한일외교 관계를 보다 실무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최천종 살해사건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 18 세기 조선시대 지식층의 일본심상

## 18 세기 통신사

17 세기 조선의 통신사는 일본으로의 왕환을 통해 일본의 번영과 무역, 즉 경제적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일본의 문물 제도를 조선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물이나 가옥의 치장들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김문식 2009, 191).

18 세기 중기에 들어서는 일본의 발달 된 문물 제도를 수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747 년 (영조 23) 영조가 통신사에 포함된 일본의 산천과 도로, 무예의 장단, 인식과 습속(풍속)을 잘 관찰하고 오도록 명령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1764 년 통신사에 파견된 조엄은 실제로 주의 깊게 일본의 문물을 관찰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대마도에서 대마도 지도와 일본 지도를 구입하고, 요도우라에서 수차를 보고 군관과 화사를 시켜 그 제도와 모양을 자세히 살폈다가 조선에 돌아가 논에 물 댈 때 사용하게 했으며, 사도가와의 주교(배다리)제도를 조선의 서남해 제언 댐)에 응용하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했다 (위의 책, 192).

그러나 공식적으로 파견된 통신사가 조엄의 1764 년 계미통신사가 마지막이였고, 그 이후로는 두 나라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끊기며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수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은 양국에게 외교적인 행위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더 컸는데, 조선 정부에게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또 막부 정권에게는 통신사의 방문 행사를 통해 관백의 권위를 더 높이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의 지출이 많은 소모성 행사였기에 계미통신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왕환은 없었고, 그에 따라 직접적인 교류도 없어 문물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위의 책,193-194).

그러나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에 다녀와서 쓴 견문, 일본사행록은, 일본의 사회상과 문화를 조선에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결국 18 세기 실학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18 세기 실학파

18 세기 실학파에는 크게 두 학파가 존재하였는데, 하나는 노론계 북학파이고, 하나는 남인계 실학파이다. 노론계 북학파는 청이적관을 벗어나 청의 문물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남인계 실학파는 이익의 명나라에 대한 비판 (숭명반청의 반대),기존의 북벌론의 비현실성, 청이적관을 거세게 비판하며 현실에 맞는 대외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또 서학 연구를 주도하는데, 이것을 통해 17 세기에 뿌리 깊이 존재하던 전통적 화이관과 소중화 인식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우봉 2006, 51)

.

북학파는 주로 청 연구에 집중하였기에 일본에 대해서는 남인계

실학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일본을 실용적으로 바라보려는 관점은 당시 박제가의 북학의 (北學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지식인들의 일본이적관을 비판하며 이용후생적인 (백성들을 위한) 관점에서 일본의 제도나 기술 등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본의 해외무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며, 일본이 다른 제국들과 활발한 통상을 하듯이 조선도 이와 같이 중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해외통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책, 63).

이익의 주도하에 있던 남인계 실학파는 이익이 조선이 유일한 화(華)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서학연구를 통해 중국중심의 천하사상을 부정하고 모든 나라의 독자성을 인정하였으며, 청과 서양에 대한 이적관을 극복하며 일본에 대해서도 재인식 할 것을 말하였다 (위의 책, 51). 17 세기 지식인들의 조선소중화의식( 朝 鮮 小 中 華 意 識 )을 비판하며 보다 현실적인 대외관계를 제시하는 이익을 따라 정약용도 보다 개방적인 화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 중심의 화이론'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중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하여 일본도 중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김문식 2009, 353-354). 정약용은 일본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용후생의 발전과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그렇기에 조선도 일본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해사일기 중 신유한의 해유록을 읽고 일본 기물의 정교함, 군대 조련법, 선박 제도 등을 제대로 관찰해오지 못 한 것을 개탄하며

조선도 이러한 기술들을 본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1811-1812 년에 홍경래와 우군칙 등이 지도 하에 서북지역에서 일어난 민란을 경험하며 조선의 군대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런 상태에서는 외국 나라들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 때에 위험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이러한 조선의 현실을 깨닫고 일본이나 청의 발달된 문물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의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 제안하였다 (위의 책, 362-363).

이와 같이 18 세기의 실학파 지식인들은 17 세기와 조선통신사의 대일심상보다 한층 더 개방적인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았으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문물을 수용하고 그 제도와 기술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가며

17 세기 조선의 중심 개념은 청과 일본을 멸시하고 명의 화이관을 계승한 조선소중화의식(朝鮮小中華意識)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일본을 오랑캐 취급하는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과 일본소국관(日本小國觀)으로 나타났다.

『해사일기』 속 18 세기 조엄의 글을 읽으면 일본에 대한 그의

심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7 세기 조선소중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이고, 과 일본을 가르치고자 하는 (善導)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優越感)이다. 그는 17 세기의 조선을 중심하는 화이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 했으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 이것은 특히 최천종 살해사건을 대처하는 그의 방식에서 뚜렷이 보이는데, 일본을 교활한 왜놈이라고 칭하면서도, 원만한 한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 문물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이용후생을 위해서라도 발달된 일본의 문물과 제도를 조선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일본을 이적시하면서도 일본의 막강한 무력과 부를 인정해 우수한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었다 (김문식 2009, 195). 18 세기 실학파와 같이 일본을 재인식 하려고 시도는 하지 않았으나, 적용할 수 있는 일본문물의 장점은 배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엄은 17 세기 조선의 조선소중화의식(朝鮮小中華意識)과 18 세기 실학파의 개방적인 화이론의 과도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18 세기 실학파와 같이 일본이적관을 극복하지는 못하였으나, 17 세기 지식인들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오랑캐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원수시 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애증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겠다.

## 참고문헌


《국역 사행록 해행총재》10. 2008. 민족문화추진회.

김문식.《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민덕기. "최천종 살해사건으로 본 19 세기 중반 通信使의 대마도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1(2004): 75-110.

이용희.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 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연암서가, 1970.

이정은. "범어사 간행 『영사단지』의 성격과 조엄" 대각사상 no.33(2020) : 227-253.doi: 10.35768/taegak.2020..33.007

임형택.《18 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 태학사, 2007.

하우봉.《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 인식》. 혜안, 2006.

홍혜정.《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 비교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20 (2015):67-108.